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2008년 5·6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2008년 5·6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5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 05.06-05.12 |

| 05.13-05.18 |

| 05.19-05.25 |

| 05.26-06.01 |

제2권 제3호 · 2008

월간 **북한동향**

인쇄 2008년 7월

발행 2008년 7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소

편집간사 권혜진 연구원

등록 제2-02361호(97.4.23)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5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대인인쇄 두일디자인 2285-0936

<비매품>

1. 대내정세 — 2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3

가. 북·미 관계

나. 북·중 관계

다. 북·러 관계

라. 북·일 관계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8

가. 대남 보도

나. 남북 교류

1. 대내정세 — 24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30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일 관계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35

가. 대남 보도

나. 남북 교류

1. 대내정세 — 40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49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일 관계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54

1. 대내정세 — 58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69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북·일 관계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73

가. 대남 보도

나. 남북 교류

4. 주요동향 개요 — 75

CONTENTS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6

1주차

| 06.02-06.08 |

1. 대내정세 — 78

- 가. 정치 관련
- 나. 경제 관련
- 다.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85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91

- 가. 대남 보도
- 나. 남북 교류

2주차

| 06.09-06.15 |

1. 대내정세 — 96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03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09

- 가. 대남 보도
- 나. 남북 교류

3주차

| 06.16-06.22 |

1. 대내정세 — 114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21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28

- 가. 대남 보도
- 나. 남북 교류

4주차

| 06.23-06.29 |

1. 대내정세 — 134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40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일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43

- 가. 대남 보도
- 나. 남북 교류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5.6-5.12

5월
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중 관계
- 다. 북·러 관계
- 라. 북·일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가. 대남 보도
- 나. 남북 교류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청진 염소목장·합성수지관공장 현지지도(5/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북도 청진시에 위치한 청진염소목장과 청진수지관(합성수지관)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
- 김정일 위원장은 목장의 각종 시설을 둘러보고 “종자문제와 먹이문제를 해결하며 축산에서 수의방역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가공시설들을 더욱 대형화, 현대화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으나 과업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음.
- 김 위원장은 이어 청진수지관공장을 방문하고 시설들을 둘러봄. 청진수지관공장은 건설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고압관, 저압관, 연결부속관 등 다양한 규격과 용도를 가진 수지관을 생산해 공급
-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에는 홍석형 함경북도 당책임비서와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이 동행

■ 김정일, 전투력 강화 강조(5/5, 5/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1105군부대를 시찰, 전투력 강화를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
- 김정일 위원장은 지휘참모훈련과 화력시범훈련을 참관한 후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제시했으며 “부대 지휘성원들은 언제나 훈련을 중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조직 진행하며, 부대 안의 군사정치사업이 다 훈련을 잘하는 데로 지향되고 복종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보도
- 김정일 위원장은 또 ‘김일성청년영예상’ 수상자인 김명철을 만나 담화했으며 군부대 산하 중대군인들의 예술 소품공연을 관람하고 군인, 가족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함.
- 이날 시찰에는 현철해, 리명수 군 대장이 동행
- 조선중앙통신은 이에 앞서 김정일 위원장이 강원도 고산군에 위치한 고산과수농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4일 보도

나. 정치 관련

■ 北, 남북관계 현상유지 우려(5/1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2일 북한 대남 관계자들의 언급을 인용해 “대결전을 이겨낸 조선은 현상유지를 바라지 않는다”고 주장
- 신문은 ‘〈공화국창건 60돌 대결속에서 지킨 나라〉현장체험자의 증언(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남관계자의 언급(최성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참사)이라면서 “분단의 비정상성을 언제까지 내버려두겠는가. 6·15구현의 담보는 있다. 장군님(김정일)의 대에 기어이 통일을 이룩하고야 말겠다는 것이 우리의 철석같은 의지다”라고 전언
- 그는 “통일을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최고영도자의 의지가 6·15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에 집약되었다”며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남북관계에 대해 “6·15실천은 통일을 반대하는 외국세력과의 투쟁을 동반하고 외세와의 대결은 그 본질이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이고 사실상 그것은 힘의 대결”이라고 주장하고 “조미대결이 격화되고 긴장이 조성될 때면 민족대화도 예외없이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

■ 北, 南정부 대북·대외정책 비난 지속(5/11,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5/10, 통일신보)

- 노동신문은 11일 ‘시대와 민심의 지향을 거역하는 것은 자멸의 길’이라는 기사에서 남한 정부가 “친미사대, 외세의존 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으며... ‘실용주의’와 ‘비핵·개방·3000’ 따위로 6·15통일시대의 전진에 제동을 걸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
- 조선중앙방송도 11일 ‘제 코부터 씻으라’는 제목의 단평에서 “이명박이 미국의 식민지 연속경제나 가지고 제 코도 못 씻는 주제에 우리에게 대해 선심이나 쓰는듯이 가소롭게 놀아대는 꼴이야 말로 삶은 소대가리도 웃다 꾸레미가 터질 노릇이 아닐 수 없다”고 비아냥
- 통일신보는 10일, 이명박 정부의 미국 쇠고기 수입개방 조치는 “친미굴종의 산물”이고 “매국 배족적인 행위”라며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이 “미국과 그에 아부하는 친미보수집권세력의 외세 굴종행위를 단호히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선동

■ 北, 5·10 총선거 논평서 南정부 맹비난(5/10, 평양방송; 우리민족끼리)

- 북한 매체들이 1948년 제헌국회 구성을 위해 남한에서 단독으로 실시된 5·10 총선거 60돌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비난 보도
- 평양방송은 대담 프로그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역도” 등의 극언을 사용하면서 “비핵·개방·3000이라는 엉터리없는 궤변을 대북정책으로 들고 나오면서 미국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에 추종해 북남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평화변명을 위한 북남협력 사업에도 빗장을 지르고 있다”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는 ‘대중적인 반미투쟁의 불길을 다시 한번 지펴올리자’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친미 보수세력들이 활개치는 조건에서는 지난 세기의 6.25전쟁과 같은 참화와 낡은 시대의 대결만 되풀이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역시 “5·10단선을 반대하여 총궐기했던 그때의 정신과 투지로” 반미·반보수 투쟁을 할 것을 촉구

■ 식량 자체 해결이 사회주의 고수에 진요(5/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자’라는 제목에 사설을 통해 “현 시기 농업전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공 전선이며,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서 알곡생산을 늘이는 것보다 더 절실하고 중대한 과업은 없다”며 “농사는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이라고 강조
- 신문은 특히 “오늘 인민군대는 조국보위도 경제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당의 농업혁명 방침 관철에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해 북한군도 농사에 동원되고 있음을 시사
- 신문은 특히 시기와 장소는 밝히지 않은 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로 보나,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과 현실적 조건으로 보나, 또 세계적 추세로 보나 우리는 농업전선에서 담보할 수 없으며, 결정적으로 농업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

■ ‘비핵·개방·3000’ 구상은 빈 돈주머니 흥정이라고 비난(5/9, 민주조선; 평양방송)

- 민주조선은 핵포기와 개방시 10년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천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과 관련, “우

리 공화국(북)에는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놓은 자립경제가 있다”고 주장, 신문은 ‘비핵·개방·3000’ 구상을 “서푼짜리 사탕발림수”, “북남 협력사업에 빗장을 질러 미국의 반공화국 책동에 적극 가담하기 위한 대결선언” 등으로 비난

- 평양방송도 대담 코너에서 ‘국민소득 3천달러’ 구상에 대해 “북남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평화변영을 위한 북남 협력사업에 빗장을 지르자는 것”이라며 “북남관계 문제를 빈 돈주머니를 가지고 흥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

다. 경제 관련

■ 제11차 춘계국제상품전람회 개막(5/12, 조선중앙통신, 5/9, 조선신보)

- 평양의 3대혁명전시관에서 12~15일 열리는 제11차 봄철 평양 국제상품전람회에 180여개 외국기업이 참가했다고 조선신보가 9일 보도
 - 제11차 평양 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12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개막식에는 북측에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 리용남 무역상, 김정식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평양 주재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여
 - 전람회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네덜란드, 독일, 시리아,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베트남, 태국, 프랑스, 핀란드 등 18개국의 기업들이 참가하며 공작기계, 전기 및 전자설비, 운전기재(운송장비), 석유화학제품, 의약품, 일용품, 식료품 등을 출품했음. 외국기업은 중국(120여개)과 대만(30여개) 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북한이 최대 규모라고 했던 2007년 전람회(130여개)에 비해 50개나 증가한 수준
 - 특히 그동안 중국 대기업들이 참가할 경우 ‘대리점’ 간판을 걸고 참가했으나, 이번엔 ‘하이얼집단전기산업유한공사’, ‘청도하이얼특수극동기유한공사’, ‘중국홍콩공가유한공사’, ‘TCL해외전자유한공사’ 등 본사가 직접 나서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 북한 최대의 상품전인 평양국제상품전람회의 봄철 전람회는 1998년 시작됐으며 2005년부터는 가을철 전람회도 개최되고 있음.

■ 올해 모내기 시작(5/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농촌에서 2008년 모내기 작업이 시작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는 5월 10일 중앙과 도·시·군에서 내려간 지원인원과 함께 모내기를 했고 강서군 청산협동농장은 12일 첫 모를 낔.

라. 군사 관련

■ 민족자주의 담보는 군사력(5/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우리에게 필승불패의 혁명무력과 자립적 국방공업이 없었더라면 이미 전에 조선반도에서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고 우리의 사회주의는 수호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 “평화는 구걸과 타협의 방법으로는 절대 보장할 수 없”고 “오직 막강한 군사력으로써만 쟁취하고 수호할 수 있다”며 “발전도상 나라들, 작은 나라들일수록 군사력 강화에 더욱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

■ 긴장 격화, 제2의 6.25전쟁 가능성 고조(5/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이명박 역도의 군사적 대결소동 진상을 폭로’ 라는 제목의 군사논평원 글에서 남측의 이명박 정부와 군부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 충돌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다시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남측 군부를 거론하면서 “군사적 대결소동은 정세를 의도적으로 긴장시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것으로 인해 더욱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남북간 합의를 ‘퍼주기’로 몰아가고 10·4선언을 ‘할 것’, ‘나중에 할 것’, ‘하지 못할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비난
- 군사논평원은 남측의 F-15K 도입, ‘주적관’ 확립 움직임 등을 ‘군사적 우세’를 조성해 북측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하면서 “군사적 우세로 긴장을 조성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것은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는 민족의 소중한 지향을 짓밟고 새로운 충돌과 전쟁을 불러오는 반민족적 행위”이자 “북남 사이의 불가침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이고 우리에게 선

전을 포고한 엄중한 도전”이라고 주장

- 그는 이 대통령이 미, 일 방문 이후 “미국의 대조선정책과 전략에 맞춘 정치군사적인 국제적 공조 실현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다”며 미사일방어(MD) 및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움직임을 거론한 뒤 “모든 움직임은 이명박 역도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도 변화겠으니 북도 변화여 달라고 하면서 던지고 있는 ‘관계개선’의 추파가 한갓 내외여론을 기만하고 막다른 궁지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권모술수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비난

마. 사회·문화 관련

■ 北협조로 인구조사 ‘본격단계’ (5/12, 자유아시아방송)

- 오는 10월로 예정된 북한의 인구조사 준비가 북측의 “협조적인 태도”로 설문지 작성 작업이 끝나는 등 “본격단계에 들어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 관계자 말을 인용해 13일 보도, UNFPA에 따르면 북한의 인구조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14만명의 조사요원들이 북한 전역의 모든 가구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최종결과를 자료분석 시간을 감안할 때 빨라야 1년 뒤인 2009년 10월께 나올 예정
- 북한의 인구를 유엔은 2천270만명으로, 미국은 2천330만명으로 추산

■ 제18차 2·16예술상 개인경연 폐막(5/12, 조선중앙통신)

- 제18차 2·16예술상 개인경연이 12일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대학 음악당에서 폐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민족현악기, 민족성악, 피아노, 손풍금 및 바얀, 무용을 비롯한 12개 부문으로 나뉘어 열린 이번 경연에서는 40명이 입상했고 이들에게는 증서와 메달을 수여

■ 제8차 5·21건축축전 폐막(5/12, 조선중앙통신)

- 제8차 5·21건축축전이 12일 평양대극장에서 폐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번 축전은 도시형성계획과 여러 대상에 대한 설계현상모집, 건축물의 조형화와 예술화를 위한 장식도안과 벽등에 대한 설계현상모집, 건축·건설부문 과학논문 발표회, 건축·건설설계 현대화경연의 형식으로 진행

- **정확도 높은 AI검사용 키트 개발(5/12, 조선중앙통신)**
- **별자리 새겨진 고인돌 무덤군 발견(5/12, 조선중앙통신)**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최근 황해남도 은천군 정동리 일대의 고인돌 무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뒷개돌에 별자리가 새겨진 고인돌 70여기를 발견했다고 보도
- **지난 3년간 AI 미발생 주장(5/12, 조선신보)**
-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일성 주석에 대한 각계 인사들의 회상실기집 '인민들속에서' (71-73권) 출간(5/9, 조선중앙통신)**
- **청암동 토성은 단군조선 때 첫 축조(5/9, 조선중앙통신)**
 - 북한문화유물(국보) 제9호인 평양시 대성구역의 청암동 토성을 복원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
- **영화·방송 음악단 창립 50돌(5/9, 조선신보)**
 - 북한에서 각종 영화·드라마 음악을 만들고 있는 '영화 및 방송 음악단' 이 창립 50돌을 맞음.
 - 영화문화창작사, 예술영화촬영소와 함께 북한 영화의 3대기둥으로 불리는 이 음악단은 1958년 5월 7일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부속 관현악단으로 출발해 1978년 지금의 이름으로 개칭, 악단은 창립 당시 20명의 연주자로 구성됐지만 "영화음악의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1971년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분리돼 '영화음악단' 으로, 1978년에는 방송예술단과 통합해 '영화 및 방송 음악단' 으로 개편
 - 음악단에는 관현악단과 함께 경음악단도 있으며 "경음악단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라 불린 1990년대 후반 시련의 시기에 국가적인 조치에 따라 조직됐다"고 소개하고 경쾌한 음악을 통해 "시련을 이겨내는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줬다"고 설명

■ 북한 주민 20만~30만명 두 달 내 아사 가능성(5/8, 연합뉴스)

-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날로 극심해지고 있어 국제사회의 긴급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5~6월 두 달 사이에 20만~30만 명이 굶어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의 법륜 스님이 8일 주장
- 북한의 식량난은 95~96년의 대기근 때와 아주 비슷해 평안남도 양덕군과 황해도 사리원 인근 등 일부 지역에서 벌써 굶어죽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많은 주민들이 옥수수대와 풀뿌리로 연명하는 단계에 들어가 5~6월 사이에 수 십 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법륜 스님은 추산, 또 90년대에는 함경도와 황해도 등 일부 지역에서 기근이 시작됐던 것과는 달리 최근엔 북한내 전 지역에서 기아사태가 빚어지고 있으며 농민들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고 주장

■ '세계 적십자의 날' 대대적 기념(5/8,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제61회 '세계 적십자의 날' 인 8일 평양과 각 지방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
- 노동신문은 "자연재해의 후과(피해)를 가시고 피해자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적십자 및 적반월회국제연맹의 활동은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

■ 평양에 강냉이국수 붐(5/8, 조선신보)

- 시원한 오이냉국에 옥수수로 뽑은 사리가 담긴 강냉이국수가 평양시민들의 애호를 받고 있다고 거듭 강냉이국수의 보급 상황을 보도

■ 백두산 천지에서 새 온천 발견(5/8, 조선중앙통신)

-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가 최근 새 온천을 발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에 따르면 '락원온천'으로 불리는 이 온천은 락원봉 기슭에 있으며, 길이 20m, 너비 5m 크기에 최고 수온 47.5도, 평균 수온 45도에 탄산수소나트륨 성분이 많은 ph 6.8의 중성천임.
- 백두산 천지 부근에는 락원온천 외에도 백암온천과 백두온천이 있음.

■ 식량난속 '爲民' 정책 선전 강화(5/8,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4/26, 통일신보)

- 노동신문은 8일 논설을 통해 "우리식 사회주의제도 하에서는 인민의 복리

증진에 대한 혜택이 당과 국가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인민적 시책들이 널리 실시되고 있다”며 ‘무료 의무교육제도’, ‘무상치료제도’, ‘어린이 보육교양제도’, ‘정휴양(근로자 휴양)제도’ 등을 중요한 “인민적 시책”들로 언급하면서 “오늘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민적 시책들은 강성대국 건설이 진척될수록 여러 분야에서 더욱 전면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임.

- 조선중앙방송도 8일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조국 앞에 위훈 세운 영예군인(상이군인)들에 대한 사회적 혜택이 끊임없이 베풀어지고 있다”면서 “국가적 관심과 방조(지원)속에 동립, 달천영예군인요양소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졌으며 영예군인 공장들의 노동조건이 더욱 개선되고 있다”고 선전
- 노동성의 장애화 사회보험국장은 통일신보(4.26)를 통해 “국가의 인민적 시책이 근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기 위해 최근 노동성에서는 많은 정휴양소들을 새로 건설하는 것과 함께 전에 건설된 정휴양소들을 개건보수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고 있다”고 언급

■ 노력영웅 ‘정춘실’ 소재 영화제작(5/8, 조선신보)

-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가 정춘실(67.여) 자강도 전천군 상업관리소장의 삶을 소재로 한 기록영화 ‘인생의 시작도 끝도 한 모습으로’를 제작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자랑거리 대동강맥주 “맛 더 좋게”(5/8, 노동신문)

- 최근 로이터통신이 ‘최고품질의 맥주중 하나’라고 평가한 북한의 대동강맥주의 품질 향상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
- 노동신문은 김정일 위원장이 2007년에도 대동강맥주의 질을 높일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전하고, 이에 따라 공장에선 최근 수년간 종래 몇 명의 ‘참모 기술성원’이 하던 기술관리를 직장(職場, 생산공정)별로 자체적으로 하도록 개선했으며 “모든 기술혁신 사업과 생산공정들의 기술지도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품질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맡은 품질관리과를 설치했다고 설명

- 부지면적 10정보(9만9천㎡), 건평 2만㎡ 규모로 평양시 사동구역 송신입체 다리 인근에 자리 잡은 대동강맥주공장은 2002년 5월부터 주정 5.6%의 생맥주를 생산해 단숨에 북한 애주가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2007년부터는 12도 맥주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당분이나 단백질 함량을 낮춘 10도짜리 라이트형 맥주를 개발·보급중임. 평양시내에는 생맥주 판매점인 '대동강 맥주집' 이 200여곳 성업 중임.

※ 북한에서는 대동강맥주공장 외에도 평양맥주공장과 룡성맥주공장 등 4~5곳에서 맥주를 생산

■ 팔씨름하면 뇌 노화 지연(5/7, 조선중앙TV)

- 팔씨름이 뇌의 노화를 늦추는 데 매우 효과가 있다고 조선중앙TV가 7일 보도

■ 제3차 건축미학 토론회 개최(5/8,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7일 평양대극장에서 제3차 건축미학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8일 보도, 토론회에는 전승훈 내각 부총리와 김성일 평양도시계획설계연구소장, 조승무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백태삼 인민경비대 장령(장성), 박 우 백두산건축연구원 부원장, 리주을 함경남도 도시계획연구소장, 박희건 평양건재공장 지배인, 김철수 평양정보센터 실장, 신용선 국가건설감독성 국장 등이 참석

■ 설비관리법 제정(5/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근 설비관리법을 채택하는 정령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이 법의 제정 목적에 대해 “설비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설비의 이용률을 높이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할 목적 밑에 채택됐다”고 밝힘.

■ 선군시대에는 선군음악을 창작(2008년 1월호, 사회과학원 학보)

- 계간지 '사회과학원 학보' 최근호(2008년 1호)는 '우리 당의 음악정치는 선군음악이 창조될 수 있게 하는 근본요인' 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고 “선군

시대는 자기 시대에 맞는 음악을 요구하며 선군음악은 선군시대를 반영하게 된다”며 선군음악의 창작을 촉구

- 잡지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인민대중의 투쟁의욕과 건전한 혁명정신을 마비시키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는 오늘의 정세에서 무의미한 자연이나 노래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이나 보여주는 음악은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에 길을 열어주는 해독적인 작용을 한다”며 음악에서 “혁명성”을 강조
- 잡지는 선군음악을 “선군시대를 반영하고 그 시대에 이바지하는 음악”으로 정의하면서 “자주성을 옹호하는 인민대중의 투쟁과 생활의 근본 바탕을 체현한 자주적 인간의 사상 감정을 형상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

■ 조선초기 사찰 석왕사 복원 추진(5/7, 조선중앙통신)

- 6.25전쟁 당시 일부가 소실된 북한 강원도 고산군 설봉산 기슭의 석왕사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북한의 문화유물 94호로 지정된 석왕사는 14세기 말인 조선 태조 때 세워진 사찰로, 6.25전쟁 때 대웅전을 비롯한 많은 건물이 소실되면서 불이문, 호지문 등 몇 동만 남아 있는 상태임.

■ 中 고구려사 왜곡 성토(2008년 1월호, 사회과학원 학보)

- ‘사회과학원 학보’의 최근호(2008년 1호)에서 사회과학원의 손영종 교수(후보원사, 박사)는 “고구려는 조선민족사의 한 부분이며 고구려는 조선중세의 자주적인 독립국가였다”면서 동북공정의 역사왜곡을 일일이 비판, 손 교수는 먼저 “일부 다른 나라 학자들이 고구려가 시종일관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 또는 속국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들이 내놓은 이론적 원칙이나 그 밖의 근거들은 다 과학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아전인수격 견해들”이라고 일축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성 김, 북핵자료 박스 들고 귀환(5/10, 연합뉴스)

- 5월 8일 방북, 북한 측과 핵프로그램 신고 협의를 진행한 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일행이 10일 오전 11시 10분께 '핵 관련 자료'로 보이는 박스 7개를 직접 휴대하고 판문점을 통해 귀환
- 성 김 과장은 기자들에게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조사해봐야겠다"고 말한 뒤 일행들과 함께 서울로 향함. 성 김 과장은 판문점에서 서울 소재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직행한 것으로 알려짐.

■ 북·미 식량지원 협상 잘 진행(5/8, 조선중앙통신)

-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북미간 협의가 "진지하게 잘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 통신은 "미국 식량협상 대표단이 5일부터 8일까지 조선(북한)을 방문하였다"며 "방문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에 인도주의적 식량제공 문제에 관한 협상이 있었다"고 보도
- 미 정부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식량 50만t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원식량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제에 관해 북한 당국과 협의중임. 북한 매체가 미 정부의 식량지원 협상 대표단의 방북 사실을 보도한 것은 처음임.

■ 공식활동 들어간 신임 유엔주재 北대사 신선호(5/8, 연합뉴스)

- 7일(현지시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신임대사는 30여년 간 외무성에 근무한 베테랑 외교관임.
- 1948년 황해남도에서 태어난 신 신임대사는 짐바브웨 대사관에서 참사로 활동했으며 지난 1996년 외무성 과장을 거쳐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를 역임, 신 신임대사는 부임 전에 외무성에서 국제기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상급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짐.

■ 美 “한반도 주변 무력증강” 집중 비난 속 대미관계 개선의사 강조(5/6,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그들(미국)이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선반도 비핵화를 바라지 않으며 무력으로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지배하려는 야망에 변함이 없다”고 비난하면서도 “대화과 협상의 방법으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원칙적 입장”이라며 대미관계 개선 의지도 함께 강조

나. 북·중 관계

■ 베이징서 北미술전 개최(5/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고(故) 김일성 주석의 96회 생일(4.15)과 인민군 창설 76주년(4.25)을 기념한 ‘백호’ 미술전시회가 4월 25~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뒤늦게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전시회에 각종 조선화(동양화)와 유화, 보석화, 수공예품이 소개됐다면서 개막식에 베이징국제우호연락회 부회장과 중국세계평화기금회 대표,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 조선백호무역회사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고 보도

■ 中무역촉진위 대표단 방북(5/10, 조선중앙통신)

- 중국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국제상회 대표단이 9일 제11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쉬쿤위안(許坤元) 회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 방직공업협회 대표단도 같은 날 방북했다고 보도

■ 中리창춘, 노동신문 대표단 면담 (5/9, 신화통신)

- 리창춘(李長春)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9일 노동신문 대표단과 면담, 김중협 노동신문 책임주필 등이 중국 런민(人民)일보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이라고 보도, 리 상무위원은 “중·북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중국은 새로운 상황을 맞아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풍부하게 할 태세가 돼 있다”고 언급
- 5월 6일 방중 일정을 시작한 김 주필 일행은 10일까지 베이징에 머물 예정

■ 후진타오, 김정일 ‘열차사고 위문’에 답전(5/7, 조선중앙방송)

-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열차 충돌 사고에 위문 전문을 보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답전을 보내 사의를 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7일 보도

■ 北김영남, 베이징올림픽 성공 기원(5/6, 중국신문사)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중국 인민의 일은 바로 조선 인민의 일(中國人民的事情就是朝鮮人民自己的事)”이라며 베이징(北京)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고 중국의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6일 보도, 김 상임위원장은 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류샤오밍(劉曉明) 북한주재 중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조선 인민과 중국 인민은 똑같이 베이징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축원하고 있으며 이번 올림픽이 양국 인민의 친선강화와 세계평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

다. 북·러 관계

■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 평양시내 해방탑 헌화(5/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 관계자들이 2차 세계대전 종전 63주년을 맞아 평양시내의 해방탑에 헌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총리, 러시아 푸틴 총리에 축전(5/9, 조선중앙통신)

- 김영일 내각 총리가 러시아 총리로 임명된 블라디미르 푸틴 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김영일 총리는 축전에서 앞으로 양국 관계가 강화, 발전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힘.

■ 러시아 대통령 취임 간략 보도(5/8,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42) 러시아 대통령이 5월 7일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사실을 아무런 논평 없이 짧막하게 8일 보도

■ 北현대미술전 발트3국·러시아 순회(5/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현대미술 전시회가 ‘발트3국’으로 불리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

스토니아를 거쳐 러시아에서도 개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의 응용미술박물관에서 지난 1월 25일 개막된 북한 현대미술전이 애초 4월 20일까지 열릴 계획이었으나 6월 9일까지로 2개월 연장됐고, 이후 라트비아의 리가, 에스토니아의 탈린, 이어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열릴 전망

■ 北, 남·북·러 철도연결 전 세계의 관심(2007년 5월호, 조국)

- 북한이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을 위한 철도 설계검사를 끝냈다고 철도성의 김 철 부상이 발표
- 북한과 러시아는 4월 24일 라진-하산간 철도 현대화를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TSR을 통한 국제화물 수송을 담당할 합영기업 설립에도 합의
- 이와 관련, 김 부상은 “조선반도의 북남과 러시아연방을 통한 이 교통로가 완비되면 우리 나라와 중앙아시아 나라들, 유럽 나라들 사이에는 ‘친선의 다리’가 놓이게 될 것”이라면서 “여러 나라들 사이 경제교류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10·4(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위한 일환으로 북남 사이 진행된 여러 갈래의 회담들에서 철도 연결과 공동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후, 이 사업은 현재 온 거래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속에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
- 그는 “지난해 12월 개성-봉동간 화물열차 운행이 시작된 데 이어 개성-신의주 사이 철도를 북과 남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로 개건 보수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임.

라. 북·일 관계

■ 일본 동포방문단 방북(5/10, 조선신보)

- 일본 효고(兵庫)지역 동포방문단이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오사카(大阪)지역 동포방문단과 북·일 우호대표단이 5월 3~7일 북한을 방문해 평양 주체사상탑과 대동강맥주공장, 통일거리시장,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 판문점, 개성시내와 영통사 등을 돌아봤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마. 기타 외교 관계

■ 北, 선박 관련 국제회의 개최 예정(5/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선박의 기술과 선급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열릴 예정, 조선중앙통신은 “배기술 검사 및 선급 제정국제연맹 정기회의에 참가”를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선박등록국 대표단, 폴란드 선박등록국장, 중국 선급사 대표단, 베트남 선박등록국 대표단, 쿠바 선박등록국 대표단이 12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

■ 싱가포르 대통령, 김정일에 친서 전달(5/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싱가포르 조지 여 외교장관이 1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S.R.나단 대통령의 친서와 선물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통해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또 이날 북한 박의춘 외무상과 싱가포르 조지 여 외교장관은 만수대의사당에서 외교부 간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베트남 외교부대표단 면담(5/9, 조선중앙통신)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의춘 외무상이 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부중 외교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베트남외교부 대표단을 각각 만나 환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대표단은 이날 양 부위원장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을 전달했으며 방북 일정을 마치고 항공편으로 귀국

■ 짐바브웨에 의사 22명 파견(5/9, 짐바브웨 관영지 더 크로니클)

- 북한이 짐바브웨에 의사 22명을 파견했다고 짐바브웨 관영지 더 크로니클이 9일 보도, 의료진은 북한과 짐바브웨 간 협정에 따라 파견됐으며, 3년간 머물며 의료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신문은 보도

■ 北·베트남, 외교 협조 합의서 조인(5/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과 베트남 외교부간 ‘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8일 평양에서 조인됐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조인식에는 북한측에서 김영일 외

무성 부상과 관계자들이, 베트남측에서는 부중 차관을 단장으로 한 베트남 외교부대표단 관계자들과 레 반 꾸 북한 주재 베트남 대사가 참석, 합의서에는 김영일 부상과 부중 차관이 서명

■ 北김영남, 미얀마 수해에 위로전문(5/6, 연합)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6일 미얀마 군정 최고지도자인 탄 슈웨 장군에게 전문을 보내 사이클론 나르기스(Nargis)로 인한 피해에 위로의 뜻을 표시

3 대남정세

가. 대남 보도

■ 北, AI 북상 막으려 철새 '예의주시' (5/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최근 남조선(남한)의 여러 지역들에서 조류독감(AI)이 휩쓸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조류독감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전파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야생철새의 이동과 관련된 전파 경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지적, 북한의 언론매체는 최근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AI가 충청도, 경상도, 경기도에 이어 서울까지 확대된 사실을 속속 보도

나. 남북 교류

■ 국제기구 통해 대북 식량지원(5/13, 조선일보)

- 정부가 조만간 국제기구 등을 통해 인도적 대북(對北) 식량지원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알려짐. 정부 당국자는 “미국 측과의 협의를 거쳐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우리의 지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나 미국을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에 적극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미국 및 국제기구와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

■ 경기도, '북한 산림녹화' 적극 추진(5/12, 연합)

-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13일 개성시 개풍양묘장을 방문, 양묘장 준공식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산림녹화분야에서 북측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발표
- 도(道)가 이번에 준공할 양묘장은 2007년 9월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와 '개성지역 산림녹화사업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추진된 사업임. 개성시내에서 서북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개풍양묘장은 총 9ha 규모로 비닐온실 3개동(1천125㎡)과 태양열발전시설, 하루 200t의 용수를 공급할 관정, 농기계 창고, 관리사 등으로 구성

■ 정부, 민간대북사업에 100억여 원 지원(5/11, 연합)

- 정부는 15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회의를 열어 2008년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사업에 약 100억원대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할 예정
- 통일부는 지난 2월께 민간 대북지원 단체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총 62건의 협력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 이후 심사를 진행해왔음. 정부는 범 정부 차원의 예산절감 기조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협력기금 사용 투명성 문제 등을 감안, 올해는 작년 지원 규모인 117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한 100억원대의 기금을 민간단체들에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짐. 특히 정부는 민간단체의 자체 조달액수 만큼 지원하는 이른바 '50 대 50'의 매칭 펀드 원칙을 가급적 적용하고 기금 사용 투명성 문제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단체들에 대해서는 지적 사실을 감안해 지원규모를 정할 것으로 알려짐.

■ 北, 대통령이 '6·15이행' 천명하면 남북관계 완화(5/10, 연합)

- 민화협 방북단은 5월 7일 방북, 평양시 중화군 양묘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10일 오후 귀경
-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이충복 민화협 부위원장이 "남측 최고당국자가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고 선언하면 경색 국면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언
- 북측의 이충복 부위원장은 "인수위 시절에는 우리(북쪽)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건드리지 않고 있었는데, 핵문제와 개성공단을 연

계시키거나 선제타격을 운운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정당방위’ 입장을 고수했다고 정 전 장관은 설명, 또 이 대통령의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에 대해 “난 데 없는 소리다”라며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전하고 “북측은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한 공식 조건으로 ’6·15 공동선언의 온전한 이행 선언’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인순이, 금강산 단독 콘서트(5/8, 뉴시스)

- 데뷔 30주년을 기념, 전국 투어 중인 가수 인순이(51·사진)가 15일 오후 7시 금강산 관광특구 야외공연장에서 콘서트를 개최. 이날 금강산 공연 장비들은 육로를 통해 현지로 이동하며 출연진과 스태프 등을 포함, 참가 인원도 100명이 넘음.

■ 남북 언론인, 3개항 결의(5/8, 연합)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는 8일 북쪽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에서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와 ‘남북 언론인 대표자 회의’를 갖고 “다양한 형태의 기사 교류”를 시작하기로 합의
- 회의에는 남측에서 언론본부 공동대표인 김경호 한국기자협회장과 정일용 연합뉴스 논설위원, 양승동 한국PD연합회장 등 27명이 참석했으며 북측에서는 조충한 언론분과위 부위원장, 홍동철 민주조선 부주필, 정명순 조선중앙방송 국장 등 26명이 참석

■ 통일부 장관, 국방위원장 호칭 필요하면 붙일 것(5/8, 연합)

-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호칭 표기와 관련, “필요한 경우 (국방위원장 호칭을) 붙이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 (호칭을) 안붙일 것”이라고 밝힘.
- 김 장관은 이어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 “대북정책은 상생공유 정책”이라며 “북한과 대화를 하고 핵 문제에 대해 많은 진전을 이루게 되면 얼마든지 여러 측면에서 협조하고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힘.

■ 5월부터 금강산서 스카이라이프 시청(5/8, 연합)

- 디지털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는 4월에 금강산 아난티 리조트의

- 130여 객실에 스카이라이프 수신설비를 설치한 데 이어 5월 중순부터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힘. 금강산 아난티 리조트는 14일 개장
- 이로써 북한 지역은 개성공단에 이어 금강산에서도 스카이라이프가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됐음. 스카이라이프는 현대 아산과 계약을 맺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960여 대의 위성방송 수신기를 설치

■ 남북 교인, 7월 평양 봉수교회 헌당예배(5/7, 연합)

-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통합 산하기관인 남선교회전국연합회 관계자는 7일 “봉수교회 헌당예배를 7월 중순 남측 교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 계획”이라며 헌당예배 일정을 남북한 당국 및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과 협의 중이라고 발표
- 평양의 일부 주민들과 외국인 신자들이 예배를 보는 것으로 알려진 봉수교회는 김 주석의 지시로 1988년 평양에 건립됐으며, 예장통합과 전국연합회가 북측에 40억원가량의 자재를 지원해 연건평 600평에 지상 3층 규모로 재건축, 이에 따라 예배실이 300석 규모에서 1천200석으로 늘어났고, 예배순서와 찬송가 가사를 보여주는 대형 화면과 외국인 신자를 위한 동시통역기 등 첨단 음향, 영상설비가 설치됨.

■ 평양 의학과학토론회 개최...남측 불참(5/7, 조선중앙통신: 연합)

- 제10차 평양 의학과학토론회가 5~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 남측 의료관계자들은 2003년 제5차 토론회에 처음 참가하고 2006~07년 대표단을 보냈으나 올해는 토론회 참가가 무산
-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료대표단 방북을 추진해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는 “지난해 북측이 남측의 제10차 토론회 참가에 합의했었지만, 최근 (남북관계) 정세를 들어 남측이 참가하기 힘들 것 같다고 전해왔다”고 전언

■ 금강산 골프장, 14일 정식 개장(5/6, 연합)

- 금강산관광특구에 건설된 금강산 골프장이 오는 14일 부대시설을 모두 완공하고 정식 개장, 통일부 당국자는 “골프장 회원권이 1천800개 정도 판매

- 됐다”면서 “14일 오픈하면 회원 위주로 하루 30팀 정도가 골프장을 이용하고 7월부터는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언급
- 금강산 골프장은 경기보조원(캐디) 60명을 포함, 북한 인력 200여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2005년 12월 30일 사업 승인이 난 금강산 골프장은 코스 전장 7천547야드(파73)에 18홀 규모로 에머슨퍼시픽 그룹이 운영을 담당

5.13-5.18

5월
2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일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가. 대남 보도
- 나. 남북 교류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먹는문제 해결 절박(5/14,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시기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4일 보도
- 김 위원장은 함경북도의 길주농장을 ‘현지도’ 하는 자리에서 농업증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같이 강조,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 농장에서 최근 연간 농산물 생산을 급격히 늘릴 수 있었던 기본요인은 ‘종자혁명’ 방침을 철저히 관철했기 때문이라며 ‘종자혁명’의 중요성을 지적

나. 정치 관련

■ 北, 5·18맞아 ‘반정부 투쟁’ 촉구(5/18, 노동신문: 평양방송;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18일, ‘광주항쟁에서 발휘된 투쟁으로 자주통일과 민족변영을 이룩하자’ 제목의 개인필명의 논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6·15통일시대의 흐름에 배치되게 외세와 ‘관계우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비핵·개방·3000’을 거론하며 “동족대결소동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다”면서 “현실은 남조선 사대매국세력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책동을 짓부셔 버리지 않는다면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도, 조국통일위업도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
- 평양방송은 미국이 “광주대학살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며 미국을 비난한 후 “남조선 인민들은..반미항전에 떨쳐나설 것이며..친미사대매국노들의 반민족적 행위를 단호히 짓부셔 버리고 말 것”이라고 강조
- ‘우리민족끼리’도 ‘민족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친미매국집단’ 제하 글에서 현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대결시대로 몰아가려고 책동하면서..애국적 청년학생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미제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친미매국집단의 반민족적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야 한다고 강조

■ **북남의 언론인들, 6·15선언, 10·4선언 전파자 역할 수행(5/17,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6·15시대와 언론의 역할’ 제목의 글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태도는 곧 민족자주와 사대굴종, 통일과 분열, 평화와 전쟁을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지적하고 “북과 남의 언론인들은 시대의 걸림돌이 될 것이 아니라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을 앞장에서 선도해 나가는 시대의 기수, 전진하는 대오의 나팔수”가 돼야 한다고 강조
- 또 신문은 “(남측의) 보수세력이 집권하자마자 동족 앞에 내든 ‘비핵·개방·3000’과 ‘동맹우선’, ‘관계복원’이라는 것은 오늘의 시대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외세와 결탁해 동족을 해치려는 민족대결론”이라고 비난한 후 “북남 언론인들은…반민족적, 반통일적 대결책동과 사대공조, 전쟁공조와 같은 반역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그 부당성을 폭로하는 다양한 언론활동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고 촉구

■ **北, 10·4선언 이행하면 북남관계 전환(5/13, 평양방송)**

- 2007년 남북정상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면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민족사를 창조할 수 있다”고 평양방송이 13일 주장
- 방송은 ‘10·4선언은 조국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애국투쟁의 기치’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10·4선언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며, 북과 남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그에 기초해 평화와 협력, 통일을 다그쳐 나갈 것을 약속한 무게 있는 선언”이라고 강조

■ **南통일교재, 북한을 심히 자극(5/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최근 통일교육 교재로 발간한 ‘북한이해 2008’에 대해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깎아내리고 교재 전반을 우리 공화국(북)을 심히 자극하는 내용들로 일관했다”고 비난, ‘반공화국 대결의식을 심어주려는 악랄한 책동’이라는 제목의 노동신문 글은 6일 ‘북한이해 2008’ 발간 후 나온 북한의 첫 반응

다. 경제 관련

■ 北전람회 참가 외국기업들, 北진출에 관심(5/16, 조선신보)

- 15일 막을 내린 제11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했던 외국기업들이 대북진출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가장 눈길을 끄는 기업은 중국 최대 백색가전 업체인 하이얼로 이문도 해외추진본부 구역경리는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부단한 품질향상을 신조로 삼고 있는 하이얼은 조선(북)과의 기술교류와 무역거래를 통해 중조관계 발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언급
- 러시아의 클리오 그룹도 북한 진출에 적극성을 보였는데, 전람회 참가가 처음인 클리오 그룹은 러시아의 체신, 보건, 축산 등의 분야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이번 전람회에 외과수술 봉합용 실제품, 가축용 사료 촉매제 등을 출품했다고 조선신보는 보도

■ 北, 2007년 EU에 과일나무 지원 요청(5/1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2007년 흉수 피해를 입은 뒤 유럽연합(EU)에 과실수 지원을 요청했다고 체코 민간 연구기관인 과수종자연구센터의 바브라 연구원이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
- 바브라 연구원은 과수종자연구센터가 2008년 3월 17만달러 상당의 사과나무 4만4천500그루를 북한에 전달했으며, 4월에는 센터의 전문가 1명이 일주일간 방북, 2007년 흉수 피해가 심각했던 지역에서 사과나무 심기와 재배 기술을 전수했다고 언급

■ 北, 나선지역 투자 南기업에 면세 입장(5/15, 연합)

- 나선·선봉 지역에 남측 기업이 적극 진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수산물 중개무역 업체인 (주)매리의 정한기 중국법인 대표가 15일 전언, 그는 “나선 지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 150곳의 대부분이 중국 업체”라고 지적하고 “남측 기업들은 통일부의 협력사업 승인이 없으면 직접 투자가 불가능해 러시아나 중국에 법인을 두고 합작 회사를 세우는 방식으로 간접 진출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힘.
- 그는 “2000년부터 북측 ‘나선강성무역회사’와 통조림 공장 설립을 협의하

고 있는데, 북측은 남한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남측 기업이 진출할 경우 면세 조치 등 투자 혜택을 적용해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언급

■ 경제강국 건설 선전선동 강화 강조(5/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경제강국 건설은 오늘 우리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투쟁과업”이라며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선전선동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신문은 ‘혁명적인 선동공세를 벌여 온 나라에 총진격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자’ 제목의 사설에서 “오늘 우리 앞에는 선군혁명의 위대한 승리와 성과에 토대해 공화국 창건 60돌(9.9)을 맞는 올해를 조국 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며 가까운 몇해 안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놓아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르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
- 신문은 노동당 조직에 대해 “선동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선전선동 역량을 총동원해 진공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고 주문

■ 北, 첫 소화기 생산공장 합작회사 모집(5/15, 연합뉴스)

- 북한이 최초의 소화기 생산공장을 설립하면서 해외기업과 합작을 추진 중, 15일 친북 국제조직인 조선우호협회(KFA)는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orea-dpr.com>)에 게재한 ‘Joint Venture(합작투자)’ 라는 공모를 통해 “북한 정부가 믿을만한 소화기 제조업체를 찾고 있다”면서 “미국과 남한, 일본을 제외한 어떤 국가의 업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힘.
- 이 공모는 합작의 목적이 “북한의 첫 소화기 공장을 설립하고 전역의 소화기를 보수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곧 국가 차원의 강제규정이 시행되면 모든 빌딩에서 북한산 소화기를 사용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소개
 - ※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비준을 통해 2000년 11월 스페인에서 설립된 이 협회는 북한의 입장을 선전하는 가장 큰 북한밖 ‘연락조직’으로 세계 각국에 분포

■ 北농업성, 식량 무조건 자체 해결 강조(5/13, 조선신보)

- 세계적 곡물가 상승으로 일부 국가의 식량 수출제한 조치가 잇따르는 가운데

데 북한의 각 지역 농촌에서는 “대응책의 기본은 국내 증산”이라는 인식 속에 영농일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농업성 관계자도 “세계적으로 쌀 가격이 상승하고 여러 나라에서 쌀 수출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식량문제를 무조건 자체로 해결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위기의식을 표현

라. 군사 관련

■ 노동신문, 南무기구매 지위 상승으로 정세 긴장(5/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지위 상승으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긴장되고 있다면서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라고 주장
- 신문은 ‘선제타격을 노린 위협천만한 군사적 움직임’ 제목의 논평에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남조선의 미국산 무기구매 지위를 나토(NATO) 수준으로 끌어올릴 데 대한 법안이 통과됐다”며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무기 제공의 신속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무기품목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

마. 사회·문화 관련

■ 몸에 좋은 콩메주 건강가루(5/17, 조선신보)

- 장철구평양상업대학이 메주균과 콩, 강냉이, 현미, 울무를 원료로 한 ‘콩메주 건강가루’를 만들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이 가루는 더운 물에 타서 마실 수 있으며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항산화 기능, 항혈압상승 기능, 면역부활, 항암 기능, 인슐린 작용을 조절하는 기능 등을 높인다고 덧붙임.

■ 北문학지, 이덕무는 18C 진보적 실학자(2008년 3호, 청년문학)

- 문학잡지 ‘청년문학’ 2008년 제3호는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출생 배경과 업적 등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진보적인 시 창작으로 우리나라 18세기 애국적 시문단을 더욱 풍부히 하는 데 기여한 선진적인 실학자, 시인”이라고 평가

■ **성인들 제친 北 소녀力士 림정심(5/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성인들이 출전한 역도경기에서 3개의 금메달을 딴 소녀 역사가 등장, 조선중앙통신은 “청춘거리 역기(역도)경기관 청소년체육학교에 다니는 올해 15살의 림정심이 얼마 전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여자역기 48kg급 경기에서 3개의 금메달을 땀다”고 보도

■ **北, 7월에 환경관련 토론회 잇따라 개최(5/17, 조선중앙통신)**

- 오는 7월 평양에서 국토환경부문과 자연지리학부문 학술토론회를 잇따라 열 예정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에 따르면 7월 29일 열릴 ‘전국 국토환경부문 학술토론회’에서는 국토계획과 관리, 대기·물·토양·생태 등 환경보호사업과 관련한 과학연구 성과·경험이 발표될 예정
- 7월 23일 열릴 ‘전국 자연지리학부문 학술토론회’에서는 ‘큰물(홍수)피해 방지’ 관련 논문을 비롯해 ‘자연환경과 자연부원(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일반 자연지리 및 지형학적 연구’, ‘토양 및 생물지리학적 연구’, ‘경관 생태 및 토지이용계획 분야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

■ **北위생방역소, 전염병 예방사업 강화(5/17, 조선중앙방송)**

- 중앙위생방역소는 봄철 전염병을 막기 위한 예방 접종과 검병·검진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北식량난 속 동요방지 사상교양(126호, 좋은벗들 소식지; 5/15, 노동신문)**

-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15일 북한 소식지(126호)를 통해 “식량난이 심각한 와중에 사상교양은 더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주민들의 표현대로라면, 전국 어디서든 눈만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사상교양으로 정신이 없다”고 전언
- 노동신문은 15일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선전선동 사업을 강화할 것을 당 조직에 주문하는 등 북한 당국은 최근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사상교육을 강화
- 소식지는 한편 “지난 5월초 함경남도 함흥시 동흥산 구역에서 집 식구들이 집단 설사병에 걸려 연이어 죽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들은 “너무 오랫동안 안 먹지 못한 가운데 풀죽을 잘 못 먹은 데다 오래된 물로 배를 채운 게 큰

탈이 났다”고 전하는 등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과 자살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

■ 北, 정권수립 60주년 새 집단체조 준비(5/1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은 정권수립 60주년(9.9)을 기념해 새로운 집단체조 ‘조국이여 번영하라’를 준비 중이며 오는 8월부터 기존의 집단체조 ‘아리랑’과 함께 선보일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4일 니컬러스 보너 고려관광 대표의 말을 인용해 보도

■ 北병원, 안과질환 줄기세포 이식치료 연구(5/13, 조선신보)

- 김만유병원이 망막색소변성증과 시신경위축증 등 안과질환에 줄기세포 이식을 통한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고 일부 효과도 본 것으로 전해짐.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한·미·일 6자수석 18~19일 워싱턴서 회동(5/18, 연합)

-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미·일 3자 수석대표회동을 위해 18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 김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18~19일(현지시간) 미·일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사 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아주국장과 각각 양자회동 및 3자회동을 갖고 6자회담 재개 일정을 비롯한 북핵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이번 회동에서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는 핵신고 문제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검증 및 모니터링 방법, 6자회담 재개 일정 등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예상

※ 한·미·일 3자 수석대표 회동은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1월 하노이 회동 이후 1년 6개월 만임.

■ 조선신보, 北, 더 대범한 조치 용의있을 것(5/1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4일 북핵 폐기 “2단계 조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조선(북한)은 동시행동 원칙이 관철된다면 세계에 보란듯이 보다 대범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도 있는 듯 하다”고 주장
- 신문은 ‘조선의 핵계획관련 문서 제공, 전략적 결단에 안받침된 조치’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영변 핵시설 가동기록을 넘겨주고 김 과장이 이를 휴대한 채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선 일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주장, 신문은 “조선의 핵활동 기록을 손에 쥔 미국관리들의 귀환”은 “6자합의가 본래의 궤도에 따라 이행되고 있으며, 조선이 합의 이행의 완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2가지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
- 이어 6자회담이 비핵화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얼마 남지 않은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에 모든 문제가 풀리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적대관계 청산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구체적인 행동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중요한 기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신문은 강조

나. 북·미 관계

■ 北, 美 식량원조에 이례적 보도(5/17,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 북한은 17일 미 국무부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 발표 후, 12시간만에 조선중앙통신의 첫 보도를 시작으로 평양방송, 조선중앙방송과 중앙TV방송을 통해 사실을 신속히 보도
- 북한은 5월 8일에도 방북한 미국 정부의 협상 대표단과 북한 당국간 식량 지원 “협상은 진지하게 잘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하고, 9일 노동신문도 이를 4면에 실는 등 미국의 식량지원 사실을 대내외에 공개
- 조선중앙통신과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된 북한 매체들의 보도는 또 미국의 식량 제공이 “부족되는 식량 해결에 일정하게 도움”이 되고 북한과 미국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이해와 신뢰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 북한 매체들은 “(북한 당국은) 식량제공 실현에서 나서는 실무적 조건들을 보

장해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으로써 미 정부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고 이행할 것임을 천명

다. 북·중 관계

■ 北, 中대지진 신속히 보도(5/18, 조선중앙TV, 5/17, 노동신문; 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 매체들은 12일 중국 쓰촨(四川)성 윈촨(汶川)현에서 발생한 리히터 7.8의 대지진 피해소식을 발생 하루 만에 피해상황을 첫 보도한 이후 발생 원인과 중국 측의 대대적인 복구작업 등을 연일 주민들에게 보도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진발생 하루 뒤인 13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위로전문을 보내 “귀국 인민이 피해 후과를 하루 빨리 가시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고,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조·중 친선협회, 청년동맹 등 북한의 여러 기관·단체들도 중국의 관련 단체들에 별도의 전문을 보내 위로의 입장을 전달
- 노동신문은 17일 ‘지진 피해를 가시기 위한 투쟁’이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쓰촨성 대지진 발생과 피해규모,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구조활동 소식을 전했으며,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도 중국 국무원 지진재해구제지휘부 자료를 인용해 “15일 현재 사망자 수가 1만9천509명으로 늘어났다”며 중국 당·정·군의 지진피해 복구 조치를 상세히 소개

■ 중국 대지진에 각계 위로 전문 발송(5/17,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 사회단체들이 중국의 지진 피해와 관련, 중국의 해당 단위들에 전문을 보내어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깊은 위문을 표시했다고 보도

■ 北, 中에 지진피해 복구비 10만달러 지원(5/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음에도 중국 쓰촨(四川)성의 지진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10만 달러를 중국에 제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이에 앞서 5월 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강

한 지진이 발생해 많은 인명 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는 불행한 소식에 접하여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와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보낸다”는 내용의 위로 전문을 보냈으며, 후 주석은 이튿날 답전을 보내 “당신께서 위문전문을 보내준 데 대해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보도

■ 주북 中대사, 성화봉송 협조 감사연회(5/15, 조선중앙방송)

- 류샤오밍(劉曉明) 북한주재 중국대사가 14일 대사관에서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행사에 협조해준 북한 당국에 감사연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5일 보도
- 이 자리에는 북측에서 김영일 내각 총리, 박학선 체육지도위원장, 김영일 외무성 부상, 박병중 평양시 인민위원회 1부위원장 등이 참석, 류 대사는 연회에서 “평양에서 진행된 제29차 올림픽경기대회 봉화(성화) 이어달리기는 가장 훌륭한 행사였다”며 “봉화이어달리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해 준 조선 당과 정부에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고 언급
- 류 대사는 앞서 지난 5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예방해 성화봉송행사 협조에 사의를 표시하고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구두천서를 전달하기도 했음.

라. 북·일 관계

■ 北, 日에 과거범죄 사죄·배상 요구(5/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화폐를 위조해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는 등 “아시아 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썩웠다”며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 및 배상을 촉구
- 신문은 “일본은 지난 세기 일제가 저지른 전대미문의 죄행에 대한 배상을 모면해 보려고 갖은 오그랑수(속임수)를 다 쓰고 있다”며 “조선 인민과 아시아 인민의 피땀으로 살려 온 전범국인 일본은 과거죄행을 솔직히 털어놓고 그를 인정하며 철저히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임.

■ 北, 日우주기본법 입법 비난(5/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일본 중의원에서 통과된 ‘우주기본법안’은 ‘우주군사화’와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신문은 “일본 반동들의 책동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 전략적 지대들을 저들의 우주감시망에 넣고 임의의 시각에 선제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주군사화, 해외팽창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위험한 기도의 발로”라고 주장

마. 기타 외교 관계

■ 유럽순방 외무성 대표단 귀환(5/17, 조선중앙방송)

- 궁석웅 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체코, 폴란드 등을 순방하고 17일 귀환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北최태복, 포르투갈 공산당 노동당 중앙위원회 면담(5/16, 조선중앙통신)

- 최태복 비서는 1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포르투갈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비서인 알바노 누네스를 단장으로 한 포르투갈 공산당대표단을 만나 대화를 나눔.

■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활동(5/16, 조선중앙방송)

-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가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맹 대표단, 적십자 국제위원회 대표단 등과 공동으로 15일 평양시 대동강 외교단회관에서 적십자 활동 소개 모임을 가졌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6일 보도

■ 평양서 北·이란 친선행사 개최(5/13,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이란 간 ‘친선주간’을 맞아 13일 평양 천리마문화회관에서 기념집회와 영화감상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3 대남정세

가. 대남 보도

■ 남북 여성대표자 회의 금강산에서 개최(5/16, 조선중앙통신)

- 남북 여성대표자 회의가 15~16일 금강산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 여성들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남북이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금강산발로 보도

나. 남북 교류

■ 개성공단 69개업체중 10여개 수익 기록(5·6월호, 민족화해; 5/18, 연합)

- 개성공단에 입주한 69개 기업 중 10여개 기업이 수익을 내고 있으며 20여개 기업은 손익분기점 근처에 도달했다고 신연상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이 잡지에 기고
- 민족화해' 5~6월호에서 손익분기점 미도달 기업이 30여개지만 "신규가동, 신규투자, 감가상각비 처리, 국내 본사와 임가공료 산정방식의 차이, 국내 수주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수익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도달기업이라 해서 적자기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
- 그는 개성공단 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애로사항으로 '콩나물시루'를 방불하는 북측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편과 기숙사 문제를 꼽음. 4월 17일 기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 2만6천272명 가운데 1천여명은 자전거로, 나머지는 버스로 통근하고 있는데, 85대의 버스가 투입되고 있으나 대당 1일 운송능력이 250여명 정도밖에 안돼 통근버스는 마치 콩나물 시루같다는 것, 공단 1단계 건설이 끝나는 2010년 말에는 450개 기업에 8만~10만명의 근로자가 일하게 되는 만큼 별도의 통근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신 위원장은 거듭 지적
- 그는 개성시에서 공단에 공급한 인력은 4만5천~5만명 수준이어서 외부에서 4만~5만여명의 인력이 더 충원돼야 하므로 이들을 위한 숙소가 필요하며 "남한의 시장경제 논리로는 '북측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선투자를 통한 우리의 득실이 무엇인지 잘 계산해 봐야 한다"

고 말해 남측의 적극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함을 지적

■ 정부, 북에 옥수수 5만t 지원 검토(5/15, 연합)

- 정부는 수해를 겪은 북한 주민에 대한 긴급 구호 차원에서 2007년 지원키로 했다가 여러 사정으로 유보했던 옥수수 5만t을 제공하는 방안을 최근 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정부, 민간 대북지원에 102억원 지원 의결(5/15, 연합)

- 정부는 15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제20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회의를 열어 올해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 102억원을 지원키로 의결, 37개 민간 단체들이 추진 중인 중인 대북지원 사업 40건에 대한 기금 지원 건을 심의
- ※ 이번에 민간 대북지원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액은 작년 115억4천만원에 비해 약 12% 줄어든 규모

■ 남북 6·15 공동행사 금강산 개최(5/14, 연합)

-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6·15 공동선언 채택 8주년 기념행사를 금강산에서 열자는 북측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 남측위는 올해 행사에 금강산의 숙박 시설 등을 고려할 때 남측에서 모두 300여명이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 이 관계자는 “정부 대표단 참가 여부는 남북 당국끼리 논의할 사안”이나 “내부적으로는 남측 당국 대표자를 초청해 축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 경남 법씨에 北 만족…종자교류 물꼬(5/14, 연합)

- “경남에서 평양으로 가져간 ‘삼덕벼’ 종자(100kg)를 북측 사람들이 파종해 본 결과 놀랄 정도로 수량이 많으면서 균일하게 생산돼 한 톨도 식량으로 쓰지 않고 전량 종자로 사용한다고 알려졌다”고 경남도가 발표

■ 이산가족면회소 완공임박…상봉행사는 ‘감감’ (5/13, 연합)

- 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대비해 ‘상시상봉’의 인프라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남북이 건설에 합의한 면회소는 지하 1층, 지상 12층에 206개 객실을 갖춘

현대식 건물로, 총 사업비가 약 600억원에 달함. 최대 1천명을 수용, 2002년 9월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합의된 이후 북핵 상황 악화로 한때 공사가 중단되는 등 곡절을 겪은 끝에 현재 94~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

- 정부는 완공 후 1개월여 동안 각종 집기를 설치한 뒤 8월 중순 경 정상 개소한다는 계획, 하지만 남북 당국간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논의도 진전이 없는 터라 당국자들은 건물이 완공되고도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

■ 경기도, 북한 개성서 양묘장 준공(5/13, 연합)

- 김문수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이 13일 북한 개성시 개풍을 방문, 북한측과 함께 묘목생산을 위한 양묘장(養苗場) 준공식을 개최, 개풍 양묘장은 북한의 산림자원을 복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2007년터 개성시 개풍동 일대 9ha에 조성한 것으로 1천125㎡ 규모의 온실 3개동과 관리동, 창고, 차고,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갖추.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5.19-5.25

5월
3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일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군부대 시찰(5/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324군부대 직속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부대의 임무수행 실태를 파악한 뒤 군인들의 훈련 모습을 참관했으며, 특히 “부대의 모든 운전수들이 자동차를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운전기술을 부단히 높여 무사고 주행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
- 그러나 김 위원장 시찰의 동행인사에 대해서는 미언급

■ 김정일, 군인가족 예술공연 관람(5/18,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 제2기 제1차 군인가족 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인민군 제963부대, 966부대, 233부대의 군인가족 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군인가족 예술소조 경연은 예술을 대중화하고 군인가족들의 혁명화를 다그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군인가족들은 남편들의 혁명사업을 성심성의로 도와주는 기특한 여성들”이라고 언급
- 김 위원장의 공연 관람에는 김격식 군 총참모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과 김기남 노동당 비서, 장성택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이 동행

나. 정치 관련

■ 北, 통일교육지침서 철회 요구(5/23, 조평통 서기국 보도)

-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에서 “통일교육기본계획과 통일교육지침서에는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에 대해 악랄하게 헐뜯고 부정해 나섰다”면서 “심지어 ‘비핵·개방·3000’을 운운하며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까지 중상 모독했다”고 주장

- 조평통은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그 내용 하나하나를 따져보아도 어느 일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공존, 공영, 공리를 이룩하려는 것”이라며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대해 헐뜯고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면서 ‘편향된 교육지침 교정’을 떠들고 있는 것은 그들의 반공화국 대결광증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보여 준다”고 비난
- 조평통은 현 정부를 거론하면서 “민족의 장래를 위한 통일교육사업까지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해 나섬으로써 화해와 협력의 방해자로서의 정체를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았다”며 “우리는 우리의 근본을 훼손하며 대결을 강요하는 자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단호히 결산할 것”이라고 주장

■ 통일부는 ‘분열부’ 맹비난(5/24, 우리민족끼리; 평양방송)

- 우리민족끼리는 24일 통일부가 북한의 실상과 안보 현실을 담은 통일교육 지침서를 발간한 것을 ‘반북대결음모’로 비난하면서 “이번 지침서는 통일부가 아닌 분열부만이 내놓을 수 있는 반공반북지침서”라고 주장
- 이 사이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앞에서는 ‘진심을 터놓고 만나기를 바란다’ 느니 뭐니 하며 마치 북남관계발전과 민족의 통일번영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며 “뒤에 돌아앉아서 우리를 어찌보려고 별의별 오그랑수(꼼수)를 다 쓰다 못해 이제는 자라나는 어린 학생소년들에게까지 역사를 왜곡하고 현실을 부정하면서 반북대결을 강요해나서고 있다”고 주장
- 평양방송은 24일 통일부가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업무과제로 북한인권개선을 꼽은 것을 강하게 비난

■ 北, 日 독도영유권 책동 ‘李대통령 탓’ (5/23, 조국전선 대변인 담화)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은 23일 일본이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명기하기로 전해진 것과 관련, “일본 반동들이 독도영유권 교육을 강화하려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떠들며 굴욕적인 친일사대 행위를 일삼고 있는 이명박 매국 패당이 빚어낸 산물”이라고 비난

-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23일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 반동들의 공개적인 독도 영유권 교육 강화책동을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침해”로 규탄하고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라고 강조하고 특히 “오늘 일본 반동들의 무분별한 영토 팽창의 수레바퀴에 기름을 쳐주는 것은 이명박 패당”이라며 “과거를 묻지 않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백년 숙적인 일본에 아부하고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팔아먹고 있다”고 주장

■ 美 사상문화 침투에 모기장 대처 주문(5/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미국의 대외전략 3대 기둥 중의 하나가 사상문화적 침투”라며 이에 대비해 “모기장을 단단히 쳐야 한다”고 주장, 특히 “여러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을 악용해 제국주의자들은 문화 교류와 인류의 문명발전이라는 귀 맛 좋은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며 “불순 출판선전물들이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모든 공간들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모기장을 단단히 쳐야 한다”고 강조

■ 北, 6.25때 학살 유해 80여구 발굴(5/22, 조선중앙통신)

- 평남 성천군 석창리에서 6.25전쟁 당시 “학살”된 유해 80여구가 발굴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 통신은 6.25전쟁 당시 미군이 “성천군에서 40여일동안 무려 1천700여명의 무고한 인민을 학살했으며 석창리에서만도 150여명의 애국자와 주민들을 살육했다”고 보도

다. 경제 관련

■ 김책제철소, 고로 가동 중단(5/25, 연합뉴스)

- 대북 소식통들은 25일 “김책제철소가 중국에서 원조로 들여오던 코크스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최근 고로 가동을 보름 이상 중단한 상태”라고 언급, 북한에서는 코크스탄이 생산되지 않아 제철소 가동에 필요한 코크스탄의 거의 전량을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이중 상당량은 중국에서 원조물자로 제공
- 중국 정부는 2008년초, 북한에 원조물자로 코크스탄 6만t을 공급하기로 결

정한 데 이어 지난 4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남·북·중 경제 에너지협력 실무그룹 회의에서 코크스탄을 북한에 제공기로 약속한 바 있음. 그러나 중국 정부로부터 북한에 원조할 코크스탄 구매대행을 위탁받은 지린(吉林)성의 한 회사가 가격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고, 물량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코크스탄을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당장 코크스탄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해도 고로 재가동을 위해서는 1만t의 코크스탄 비축이 필요한데다 고로예열 등 준비기간도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제철소 가동 중단 장기화에 따른 철강 파동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

■ 경제연구, 원가절감 강조(2008년 1호, 경제연구)

- ‘경제연구’ 최근호(2008년 1호)는 국제적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북한내 원자재가 부족한 실정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원가절감이 절실하다고 강조, 잡지는 ‘원단위(原單位) 소비기준을 낮추는 것은 경제발전의 절박한 요구’ 제하의 글을 통해 노동력과 원자재, 자금 등을 최대한 적게 투자하면서 품질은 향상시킬 것을 촉구, 그러나 “원단위 소비기준을 낮춘다는 것이 결코 단위 제품이나 단위 작업이 요구하는 질적 속성을 무시하면서 지출요소들을 줄인다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임.

※ 북한에서 ‘원단위 소비기준’이란 “단위 제품을 생산하거나 단위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노력, 원료와 자재, 연료와 동력, 설비와 자금 등의 이용 및 소비 한계를 규정한 국가적 기준”을 뜻함.

■ 北, ‘선군봉화상’ 쟁취운동으로 생산경쟁(5/21, 조선신보; 5/2, 노동신문)

- 북한이 정권수립 60돌(9.9)인 올해 집단주의 경쟁의 한 형태인 ‘선군봉화상’ 쟁취 운동을 통해 생산과 건설을 독려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1일 보도
- 조선신보는 “지금 전국(북한)의 모든 생산단위에서는 집단적 혁신운동인 선군봉화상 쟁취를 위한 사회주의 경쟁에 떨쳐나서고 있다”면서 노동신문 5월 2일자 1면 기사를 인용, 선군봉화상 쟁취 운동이 각지 공장과 기업소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
- 신문은 “선군봉화상 쟁취 운동이 2000년부터 시작됐다”며 “선군봉화상 쟁취 운동은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가 제

시한 생산계획 수행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

-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중앙위원회 주관 아래 1년 내내 계속되는 이 운동은 ▲국가계획의 달성 ▲과학기술 중시정책 구현과 성과 ▲생산공정 개선(개선)·현대화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운동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집단주의”라고 언급, 또 과거의 운동과 마찬가지로 ‘모범단위’로 선정되면 “사회주의 경쟁 공동순회 우승기”를 받고 모범사례는 텔레비전과 신문을 통해 소개

※ 과거 김일성 주석의 통치시대에는 ‘천리마운동’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체제 시대에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집단적 생산경쟁의 핵심이었다면, 김 위원장 체제의 상징인 ‘선군정치’의 시대에서는 ‘선군’의 이름하에 선군봉화상이 강조됨.

■ 北, 유럽 기업과 교류 증시(5/19, 조선신보)

- 북한은 기술 수준이 높은 유럽 각국의 기업과 교류를 증시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9일 제11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5.12~15) 소식과 함께 보도
- 조선신보는 북한이 유럽 기업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고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기술개선(개선)을 밀고 나간다는 (북한의) 전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전람회 주최측인 조선국제전람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최근 유럽의 기업들이 조선(북)과 경제교류 협력에 보다 큰 관심을 표하고 있다”고 보도

라. 군사 관련

■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해체 주장(5/24,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24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제2의 조선전쟁 준비를 위한 침략적 전쟁모의기구”라고 비난하며 이의 즉각 해체를 주장
- 신문은 “현 남조선 보수집권세력은 침략적인 연례안보협의회를 해체할 대신 오히려 미국과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운운하며 미국의 세계지배 전략과 반공화국 전쟁정책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며 “잘게 발전하던 북남 관계는 불신과 대결의 과거시대로 다시금 치닫고 있으며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발발 위험은 더욱 짙어가고 있다”고 강조

■ 한·미 실사격훈련 비난(5/23,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3일 '한미 연합 공중 및 지상 실사격 훈련'에 대해 "우리 민족의 화해 분위기와 평화를 파괴하고 조선반도에 기어코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는 전쟁도발 행위"라고 비난
- 우리민족끼리는 "이러한 무모한 전쟁도발 책동은 그들이 떠드는 미국과 그 무슨 '동맹' 강화란 한마디로 미국과 야합해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는 '전쟁동맹' 강화라는 것을 실증해 준다"며 "남조선 인민들은...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

■ 北경비정 2척, 6일 서해 NLL침범(5/22, 연합)

- 북한 경비정이 2008년 들어 세 차례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것으로 밝혀짐. 22일 군당국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 1척이 5월 17일 오전 6시 37분부터 25분 가량 서해 대청도와 연평도 사이 NLL을 3.2km 침범
- 앞서 6일 오전 11시4분께도 북한 경비정 2척이 대청도와 연평도 사이 NLL을 1.9km 가량 넘어 16분 가량 기동했고, 3월 28일 밤 10시50분께는 경비정 1척이 NLL을 300m 가량 월선한 뒤 9분 가량 운항하다가 북쪽으로 되돌아감.
- ※ 북한 경비정은 2007년 NLL을 8회 침범

마. 사회·문화 관련

■ 문학예술출판사, 5대 혁명가극 노래집 발간(5/23,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문학예술출판사가 '피바다', '꽃파는 처녀', '밀림아 이야기하라', '당의 참된 딸', '금강산의 노래' 등 "5대 혁명가극"에 나오는 200곡의 노래를 엮어 '5대 혁명가극 노래집'을 펴냈다고 소개

■ 국제 스포츠대회 메달 '풍성' (5/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북한 선수들이 최근 3개월 간 각종 국제대회에서 40여개의 금메달을 획득했고 20명은 베이징올림픽 출전권을 땀다면서 종목별 성적을 자세히 소개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여자 마라토너 김금옥 선수와 정영옥 선수는 지난 2월 중국 홍콩에서 열린 제11차 아시아마라톤선수권대회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 또 여자 빙상의 고현숙 선수는 '노르웨이컵' 국제빙상대회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500m와 1천m에서 우승, 이어 3월 제주에서 열린 2008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3.18~23)에서 양춘성 선수가 자유형 66kg급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차광수 선수는 그레코로만형 55kg급 은메달을, 김순남 선수와 김금철 선수는 자유형 55kg급과 그레코로만형 66kg급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
- 조선중앙통신은 4월 제주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에서 북한 선수가 5개의 금, 은, 동메달로 단체종합에서 2위를 기록했다고 보도, 또 올해부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공인을 받았다는 평양 '만경대상' 마라톤대회(4.6)에서 북한 선수들이 2개의 금메달과 각 1개의 은메달, 동메달을 획득
- 북한 선수단은 4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와 태국 방콕에서 개막된 제3차 국제무도경기대회에서도 30개에 가까운 금메달을 땀으며,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국제 체조경기대회에서는 리세광 선수와 홍은정 선수가 나란히 남녀 도마에서 금메달을 차지, 마지막으로 중국 톈진(天津)에서 열린 2008 '세계컵(월드컵)' 체조경기대회의 남자 도마와 링운동에서는 리세광 선수가 1위와 2위를 쟁취했고 김진혁 선수는 남자 평행봉과 링운동에서 3위에 오름.

■ 약초재배에 의료일꾼 총동원(5/23,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립원준(58) 북한 보건성 국장의 말을 인용, “평양의학대학 병원과 김만유 병원 등 중앙병원들과 각 도 인민병원으로부터 리·동 종합진료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치료예방 기관의 일꾼들이 약초 재배에 총동원되고 있다”고 보도
- 신문은 일례로 평양시 서성구역 인민병원의 경우 “지난 4월 수천 정보에 달하는 약초밭을 새로 조성해 당귀, 목화, 시호 등 약재들의 씨뿌리기와 모 옮겨심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수유, 감초, 산사, 두충, 구기자 등 “20여 가지의 약초를 심어 정성들여 가꾸고 있다”고 보도

■ 北, 이산가족 사연 잇따라 보도(5/22, 평양방송; 5/12, 통일신보)

- 평양방송은 22일 “고향을 남조선(남한)에 두고 황해남도 재령군 읍128 인민반에 살고 있는 김덕수 동무와 그 가정을 소개해 드리겠다”면서 김씨 가족이 남북으로 헤어진 사연을 소개, 통일신보도 5월 17일에 경상남도 사천면 정의리에서 태어나 6.25전쟁 당시 북한 의용군에 입대해 월북했다는 황옥금씨의 사연을 보도

■ 北, 정권 60돌 기념 집단체조 창작(5/22, 조선신보)

- 북한이 올해 정권 수립 60돌을 맞아 새로 만든 집단체조 ‘변영하라 조국이어’는 북한의 지난 60년을 모두 5장 12절로 나뉘어 있으며, 이 집단체조에는 공장·기업소 근로자와 각급 학교 학생, 유치원생 등 수만명이 출연한다고 조선신보가 22일 소개
- 신문은 “집단체조만으로 구성된 작품의 창작은 1998년 작품 ‘영광 빛나는 김일성 조선’ 이래 10년 만”이라며 ‘변영하라 조국이어’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융합”한 2008년판 ‘아리랑’ 과 함께 8월초부터 평양 룡라도 5월 1일경기장에서 선보인다고 보도

■ 北, 개구리 보호 강조(5/21,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1일 “농작물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개구리를 적극 보호·증식하는 것은 지금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며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보도

■ 北, 유행가 ‘대지의 향구’ 재평가(5/21,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이 21일 오후 북한 예술계가 그 동안 “퇴폐적이고 반동적”이라고 평가했던 계몽기 가요(흘러간 옛노래) ‘대지의 향구’를 방송
- 남한에서 백년설이 불러 널리 알려진 ‘대지의 향구’는 일제시대 만주로 간 동포들이 이국 땅에서 받는 민족차별과 동족에게까지 차별받는 설움을 묘사한 노래, 조선중앙방송은 보천보전자악단이 부른 이 노래를 내보내면서 “애국의 뜻을 품은 양심적 문예인들이 조선인민과 중국인민 사이에 켜기를 박으려는 일제의 간악한 민족이간 책동에 맞서 1940년에 제작한 영화 ‘복지만리’의 주제가”라고 소개, “우리 인민은 중국 인민과 손 잡고 일제의 식

민지 예측과 민족이간 책동을 짓부수고 기어이 조국해방을 이룩하고야 말 의지를 가다듬으며 '대지의 항구'를 널리 애창했다"고 설명

■ 北 식량위기 속 평양은 '새단장 활기' (5/21, 연합뉴스)

-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져 대량아사 발생이 임박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평양 거리는 오히려 활기를 띠고 있다고 최근 방북하고 돌아온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전언
- 평양을 방문했던 한 관계자는 "식량난 분위기는 평양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평양 시내 도로를 아스팔트로 새로 포장하는 등 도시 정비사업이 예전보다 더 활발했다"고 소개, 북한 당국은 4월부터 이집트 오라스콤사와 함께 1990년대 경제난으로 공사를 중단해 흉물처럼 남아있던 류경호텔의 공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짐.

■ 北소설가들, 창작으로 식량 기여 주문(5/10, 문학신문; 2008년 1월호, 조선문학)

- 극심한 식량난 속에 작가들도 '먹는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감안, 농촌지역에서 "현실체험"을 하면서 농촌을 주제로 한 작품 창작에 주력하고 있다고 북한의 작가동맹위원회 기관지 문학신문이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작가동맹의 소설문학분과위원회에서는 북한 당국이 정권 수립 60돌(9.9)을 맞는 올해 신년 공동사설(신년사)에서 '인민생활 제일주의'를 내걸고 주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 해결"을 강조함에 따라 소설가들도 "협동벌에 달려 나가 취재와 현실체험, 집필을 혁명적으로 하도록" 조치했다고 보도
- 조선문학은 1월호에서 작가들에게 올해 문학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며 "격동적인 현실 속에 몸을 푹 잠그고 땅냄새, 기름냄새가 푹 배이도록" 해야 한다며 농촌이나 공장 등에서 "현실 체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北, 어린이 철분부족 빈혈대책 토론회(5/19, 조선신보)

- 북한의 식량난이 국제적인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5월 15일 평양에서 '제1차 전국 영양관리학 부문 과학토론회'가 열렸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北, 역사유적 주변시설 대대적 보수(5/19, 평양방송)

- 북한의 문화보존지도국이 봄철 '문화유적 애호 월간' 을 맞아 북한 전역의 1천400여개 역사 유적 시설을 보수했다고 평양방송이 보도

■ 北여성지, 고부간 화목이 가정의 평화(2008년 4호, 조선여성)

- 조선여성지는 '사회주의 도덕과 생활' 이라는 코너에서 '가정의 화목은 전적으로 우리 며느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역에 사는 50대의 며느리 최복실씨와 '며느리를 귀중히 여기면 행복이 꽃피어 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황해남도 송화군에 사는 시어머니 류효애(83)씨의 사례를 소개, 귀감으로 본받을 것을 권장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北 이르면 내주 핵신고서 제출(5/24, 연합)

-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다음 주 북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이 이르면 내주께 핵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
- 톰 케이지 국무부 부대변인은 23일 힐 차관보가 중국과 러시아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과 북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6일 출국해 베이징을 27~29일까지, 모스크바를 29~31일까지 각각 방문한다고 밝힘. 특히 국무부는 이번 방문동안 힐 차관보가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회담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힘.

나. 북·미 관계

■ 힐-김계관 北京서 日人납치문제 협의(5/25, 연합)

-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5월 27~29일 중국 방문 기간에 북한 측 파트너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나

핵 신고 협의의 마무리를 확인하는 동시에 일본인 납치 문제 등 북일 간 현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힐 차관보는 최근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일본 측이 제기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함한 '관심과 우려사항'을 김계관 부상에게 전달하고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추정

■ 北, 美와 방위조약 체결 희망(5/2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미국과 안보체제 확립을 위해 '북·미 방위조약' 체결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올해 초 북한을 방문했던 토니 남궁 뉴멕시코 주지사 수석고문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북간 '방위조약'(defense treaty)을 맺을 것을 원했다"며 "이 조약이 '불가침 조약'을 의미하는지, 미국이 북한을 절대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식문서화해달라는 것인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같은 종합적인 동맹조약을 원하는 것인지는 확실히 규명해주지 않았다"고 밝힘. 그러나 "확실한 점은 북한이 미국과 일종의 안보체제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관심있는 것은 식량, 에너지 지원, 경제제재 해제, 평화협정 체결, 미·북 관계정상화가 아니고 이 모든 문제들은 북한이 미국과 안보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

■ 北, 美의 식량지원에 정치적 의미 적극 부여(5/23,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미국의 식량제공 신속 보도, 인민의 이목을 끈 정치술어 '신뢰증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언론매체들이 지난 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 발표를 신속히 보도하면서 '이해와 신뢰증진'이라는 구절을 적대관계인 북한과 미국 사이에 사용한 것은 "국면전환을 충분히 예감케 하는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23일 전망
- 신문은 "본지 평양지국에서 전해온 데 의하면, 신문, 텔레비를 통해 보도를 접한 인민들의 이목도 이 구절에 집중됐다고 한다"며 "인민들은 대미관계와 관련한 신문, 방송의 보도를 나라의 입장 표명으로 간주"하는데 "이번 보도를 보고 많은 인민들이 조(북)미관계가 '잘 되어 나갈 것 같다'는 소감을 말하곤 하였다고 한다"고 전언, 북한 주민들의 이런 소감은 "무슨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보도의 구절구절에서 받은 인상을 그대로 이

야기한 것이지만 무책임한 짐작은 결코 아니다”라고 신문은 말하고 미국의 발표에 대한 북한 매체들의 “적극적인 의의 부여는 6자회담 이행과 미국과의 적대관계 해소에 대한 조선(북한)의 입장이 확고부동하다는” 증명이라고 언급

- 조선신보는 북한 매체들이 그동안 “미국이 ‘원조’를 운운하는 데는 음흉한 지배주의적 속심이 깔려 있다”(노동신문, 2007.4.11)거나 “(미국은) 식량문제를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면서 우리를 압살해보려고 책동하고 있다”(민주조선, 2006.9.20)는 식의 보도태도를 보여온 것과 이번 보도태도를 대비시키기도 함. 신문은 또 북한 매체들이 그동안 6자회담이나 북미회담 등을 보도할 때는 단순히 그런 사실만 전했었으나, 이번 미국의 식량지원에 대한 보도에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변의 전체상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구절”이 있는 게 주목된다고 이례성을 거듭 지적
- 이번 미국의 식량지원 결정을 북한 주민들은 “단순히 식량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조선중앙통신의 (이해와 신뢰증진) 보도가 식량제공의 정치적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
- 신문은 이어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등 “정치적 보상 조치”가 이행될 경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전환이 “행동으로 확인”됐다고 보고 “조선은 호응할 준비가 다 돼있는 듯 하다”며 “미국이 조선과의 적대관계 해소를 통한 비핵화의 실현을 계속 추구한다면 10·3 합의 이행의 완결 이후엔 양국 관계에 보다 큰 전진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
- 그러나 신문은 일본에 대해서는 “제재소동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다”, 남한에 대해서는 “새 정권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외면한 것으로 하여 민족공조로 정세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하고 “10·3합의 이후에는 ‘조미회담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국제정치의 현실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덧붙임.

다. 북·중 관계

■ 北지도부, 中대사관 찾아 지진참사 조의(5/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당·군·정 간부들이 20일 주북 중국 대사관을 찾아 쓰촨(四川)성 대

지진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조의를 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에 따르면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 비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 박의춘 외무상, 북·중 친선협회 중앙위원장인 최창식 보건상,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장 대리, 박경선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등이 중국 대사관을 방문

- 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내각이 공동 명의로 중국 대사관에 대지진 피해와 관련한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 외무성, 인민보안성, 무역성, 보건성,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등에서도 이날 별도로 중국 대사관에 화환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

라. 북·일 관계

■ 조총련에 對日투쟁 촉구(5/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결성 53주년을 맞아 일본 당국의 “탄압”을 비난하고 조총련 조직이 “단결과 투쟁”으로 이에 맞서 나갈 것을 촉구
- 노동신문은 “최근 연간 일본 반동들은 총련에 대한 전면적 탄압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모략사건들을 연이어 꾸며내면서 총련 말살 소동에 미쳐 날뛰고 있다”며 “일본 반동들이 제아무리 재일동포 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총련을 말살하기 위해 발악해도 주체조선(북한)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영예를 안고 곳곳이 살며 싸워나가려는 재일 동포들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조총련과 같은 해외 교포조직을 갖고 있는 것은 “크나큰 자랑이고 영예”라고 덧붙임.

■ 北시인, 日독도영유권 비판 풍자시 발표(5/25, 우리민족끼리)

■ 北, 日 ‘독도영유권’ 주장 비난(5/23,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3일 일본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리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이며 조선반도(한반도)를 노린 노골적인 재침 선언”이라고 비난
- 우리민족끼리는 일본이 “새 세대들에게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 라는 왜

곡된 인식을 심어주려고 그토록 발광하는 것은 단순히 독도문제를 ‘국제 분쟁화’ 하자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침략전쟁을 통해 독도를 강탈하고 나아가 조선반도와 아시아를 손아귀에 넣으려는 ‘신대동아공영권’ 야망을 실천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다는 위험신호”라고 주장,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이명박 ‘정권’ 의 친일 굴종적인 대일 자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과거사 재론관련 언급과 일왕 면담 등을 맹비난

마. 기타 외교 관계

- 김영남 요르단 국왕에게 독립 62주년 축하 전문 발송(5/25,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아프리카와 협조관계 발전 강조(5/24, 연합뉴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4일 아프리카연합(AU) 및 AU 회원국들과 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
- 이란 卅방북단 귀국(5/23, 조선중앙방송)
 - 아크바르 아베디 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이란 하메단주(卅) 친선대표단이 23일 방북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英, 對北 원어민 영어교육 지원 연장·확대(5/2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 영어강사를 파견해 온 영국문화원이 2008년 종료될 예정이었던 원어민 영어강사 파견 프로그램을 2010년까지 연장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고 제임스 로우 영국문화원 공보관이 밝힘.
 -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로우 공보관은 영국문화원이 북한에서 영어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1년동안 평양내 대학에서 교수들을 가르칠 영어 강사 4명을 새로 모집하고 있다고 언급
 - 영국문화원은 2002년부터 북한에 영어 강사를 파견했으며, 현재는 3명의 강사가 평양내 주요 3개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 등 모두 450여명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들 영어 강사는 자신들이 가르치는 교수들의 영어 실력이 유럽 의회 지정 기준 ‘B1~B2’ 정도라고 평가했으며, 이는 중간~중상위 수준임.

■ 北·에티오피아 문화교류계획서 체결(5/22,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에티오피아 정부가 '2008~2010년도 문화교류 계획서' 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 5월 16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열린 체결식에 리성목 에티오피아 주재 북한 대사와 모하메드 디리르 에티오피아 문화부 장관이 참석해 서명
- ※ 북한과 에티오피아는 1975년 수교한 뒤 '20년친선협조조약' (1983), '경제기술협조협정' (1985), '탱크생산재개협정' (2004) 등을 체결

■ 주북 英대사 농촌 지원(5/21, 조선중앙통신)

- 존 에버라드 주북 영국대사와 대사관원들이 21일 평안남도 평성시 백송협동농장을 찾아 농사를 돕고 지원물자를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3 대남정세

■ 北, 6·15행사 南당국자 수용 거부(5/23, 연합)

- 6·15 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 위원회 대표단은 23일 개성에서 만나 6월 15~16일 금강산에서 6·15 공동선언 채택 8주년 기념 행사를 치르기로 합의
- 세 대표단은 행사 명칭을 '6·15 공동선언 발표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약칭 6·15 민족통일 대회)' 로 하고 개·폐막 사이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민족대회, 남·북·해외 공동위원장 회의, 공동 사진전시회, 등산, 연회 등의 행사를 치르기로 합의
- 남측위 관계자는 "협약에서 북측과 당국자 참가 여부에 대한 공식 논의는 없었다"며 "남측 정부가 6·15와 10·4 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 한 남측 당국자의 참가는 어렵다는 것이 북측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언급

■ 북한 여자축구, 피스퀸컵 또 불참(5/23, 연합)

- 아시아 최강 북한 여자축구가 6월 14일 수원에서 개막될 여자축구 국가대항전 '2008 피스퀸컵 국제여자축구대회' 에 또 불참, 2006년 제1회 피스퀸컵 때도 대회 개막 직전 당시 핵실험 여파로 인해 참가를 포기한 데 이어 두

번째

-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명의로 보낸 공문에서 북한은 “최근 조선반도 정세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 조건에서 부득이 참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를 유감으로 생각한다. 피스퀀컵이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밝힘.

■ 인천세관, 북한산 바닷모래 반입 절차 간소화(5/22, 연합)

- 인천본부세관은 6단계로 이어지는 북한산 모래 반입 절차를 3단계로 축소하고 24시간 반입체제를 구축, 더욱 빠른 통관이 가능해졌다고 22일 발표, 세관은 반입절차 간소화에 따라 주간 근무인력을 야간, 일요일, 공휴일로 분산해 24시간 반입체제를 구축
- 인천항을 통한 북한산 모래 반입은 2004년 13만t, 2005년 370만t, 2006년 978만t, 2007년 1천514만t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추세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5.26.-6.1

5월
4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가. 대남 보도
- 나. 남북 교류

4. 주요동향 개요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北, 나흘 연속 김정일 공개활동 보도(5/3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함흥시의 흥남제련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5월 25일 제324군부대 직속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 시찰 보도에 이어 제1727사관양성부대와 제836군부대 관하 구분대 시찰(5.26), 제324군부대와 제604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5.28), 함흥시 2.8비날론연합기업소와 함흥의학대학 현지지도(5.29), 함흥시 영광군 백운산 유원지 방문(5.30) 소식 등 최근 거의 매일 김 위원장의 외부 공개활동을 보도
- 김위원장의 흥남제련소 방문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김기남 비서와 박남기 부장이 수행

■ 김정일, 증조모 묘소에 생일화환(5/3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증조모인 리보익의 출생 132돌을 맞아 31일 평양 만경대에 있는 묘소에 화환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 자리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 비서와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서기장을 비롯한 당·군·정 관계자들이 참석

■ 김정일, 함흥 인근 백운산유원지 방문(5/3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함흥시 인근의 영광군에 새로 건설되고 있는 백운산유원지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백운산유원지에 새로 건설된 문화·편의봉사시설과 참관도로 등을 돌아보면서 “함흥시민들을 위한 또 하나의 유원지가 마련되고 있는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고 “영광군내 인민들이 소문 없이 큰 일을 한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통신은 보도
- 김 위원장의 시찰에는 김기남 비서와 박남기 부장이 수행

■ 김정일, 함흥 의학대학 시찰(5/2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함흥에 있는 함흥의학대학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대학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끊임없이 개선 강화하여 재능있는 의학자들을 더 많이 육성하여야 한다”며 “학생들을 시대가 요구하는 유능한 의료 일꾼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에서 주체를 뚜렷히 세우며 교육과 실전을 결합시키고 교수방법을 부단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
- 현지지도에는 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박남기 당 부장 등이 수행

나. 정치 관련

■ 北, 이명박 정부 100일 백서 발표(6/1, 조국통일위원회; 연합)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은 1일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백서를 발표, ‘비핵·개방 3000’ 등 대북정책과 각종 대내외 정책을 강력히 비난
- 연구원은 ‘대세의 흐름을 거역하는 역적패당은 시대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목의 백서에서 “(이명박)보수패당이 집권한 지난 100일은 남조선을 철저히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시킨 치욕의 100일이고, 북남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최악의 100일이며, 우리 민족의 머리 위에 대결과 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온 범죄의 100일”이라면서 “100일간의 행적은 과거 친미독재자를 무색케 하는 반통일 대결분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 백서는 새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방침을 “대미종속관계의 전면 부활”이라며 전시작전권 반환연기입장,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가입 움직임, 키 리졸브 등 한미합동군사연습, 미국 쇠고기 개방 등을 거론, 또 영어 몰입식교육을 “문화적으로 남조선을 미국화 하기 위한 것”으로 비난하고 외국인을 장관직에 임명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미국 상전이 고문으로 들어앉은 적은 있어도 장관직까지 미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으로 꾸릴 것을 획책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난
- 조국통일연구원은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해 “6·15공동선언과 10·4선

언을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차단하자는데 근본 속셈이 있다”며 “이 구상은 민족의 이익을 외세에 팔아넘기고 동족 사이에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기 위한 반통일 선언”이라고 지적

■ 김정일 부인 김옥, ‘三男 후계’ 추진(6/1,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실상 네번째 부인인 김옥(44)씨가 후계구도 구축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1일 “김옥씨가 ‘3대 세습은 안된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삼남인 정운(24)을 후계자로 세우기 위한 물밑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김옥씨는 자신의 측근인 리제강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 부장을 앞세워 이런 후계구도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보도
- 김옥씨는 그동안 후계자 지명을 서두를 경우, 김정일 위원장에게 레임덕을 불러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후계문제 거론에 제동을 걸어왔음. 그러나 김옥씨는 “어차피 후계자를 정해야 하고 후계자는 김 위원장의 아들 중 한 명이 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제일 나이가 어린 정운을 후계자로 은밀히 선정해 물밑에서 준비를 갖춘 뒤 김 위원장에게 “깜짝 선물”로 내세우려는 하며 김옥씨와 리제강 제1부부장 세력은 특히 김정운을 후계자로 정하는 데 최대 걸림돌인 김 위원장의 장남 정남(37)을 견제하기 위해 당 조직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를 통해 정남과 친분이 있거나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한편 김옥씨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주요 인사도 그의 손에서 이뤄지고 간부들이 그에게 줄서기 하는 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후문, 김옥씨의 막강 파워의 실례로 2007년 인민군 창건 75주년(4.25) 열병식 전날 최종 리허설을 지휘하고 2007년 김 위원장의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모교인 김원균명칭평양음악대학에 독일제 피아노 수십대를 보냈음. 당시 선물 행사 직후 관련 간부들은 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이번 선물이 김옥씨에 의해 이뤄졌다고 내부 선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짐.

■ 北, 이명박정부 백일 앞두고 종합 논평(5/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논평원의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실용주의 따위로는 언젠가도 북남관계가 풀릴 수 없을 것”

이라고 주장

- 노동신문의 논평원의 글은 ‘남조선 당국의 반민족적인 실용주의를 단죄함’ 제목으로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실용주의를 내들고 있는 것은 북남관계의 근본 성격과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북남관계는 외세에 의해 일시적으로 갈라진 동족 사이의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특수한 관계로, 민족내부 문제”인데 이런 “북남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다루면서 실용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범죄적 폭거”라고 실용주의 전반을 비난
- ‘비핵·개방 3000’ 구상에 대해 동유럽의 체제변화와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미국이 써먹은 방식을 모방한 것이라는 데 대해 숨기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또 경제협력 4대원칙은 북과 남이 합의한 10·4선언에 대해서도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행을 공공연히 중단시키고 있다”고 주장
- 상호주의 요구에 대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천명된 것과 같이 북남관계는 민족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통일지향적인 것으로 되어야 한다”며 “북남협력 사업 역시 유무상통과 상부상조에 기초한 공리공영이 기본원칙으로 되어야 한다”고 반박함. 또 ‘퍼주기’ 비판론에 대해서는 “퍼주기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가 할 말이 더 많다”며 “우리는 지난 시기 남측이 간청한 문제들을 대범하게 가능한 다 풀어줬고 남조선 인민과 기업가들을 위해 군사적으로 예민한 금강산지구와 개성지구까지 열어줬다”고 주장
- 대북 인도지원에 대해 “우리는 해방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녘 동포들이 재난을 당하거나 생활처지가 어렵게 됐을 때마다 동포애로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며 “우리는 그에 대해 생색을 낸 적이 없으며 그 어떤 부대조건을 내세운 적은 없다”고 언급하며 “동족에 대한 인도주의 사업까지 주판알을 튕기며 정치적 부대조건과 대가를 내걸고 있는 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도의마저 다 버린 냉혈한이고 돈 밖에 모르는 인간 추물이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비난

■ 北, 한미FTA 비준 동의 추진 맹비난(5/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을 거명하며 맹비난, 노동신문은 ‘민족적 분노를 자아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놀음’이라는 제목

의 글을 통해 “남조선 미국 ‘자유무역협정’으로 남조선이 덕볼 것은 사실 상 아무것도 없다”면서 “있다면 그것은 미국에 아부하는 이명박 일당과 재벌들에게나 차례지게 된다”고 주장

■ 北, 한미 군사동맹 강화 비난(5/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북침전쟁 도발을 위한 위험한 결탁’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새로 등장한 이명박 정권은 민족 공조를 외면하고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부르짖으면서 침략전쟁 정책의 돌격대로 발벗고 나서고 있다”고 보도

다. 경제 관련

■ 北철도상, 철로 현대화·표준화 강조(5/24, 민주조선)

- 김용삼 철도상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수송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원만한 철도 수송을 위한 철로 보강을 강조, 김 철도상은 민주조선(5.24)에 발표한 글에서 “우리 나라(북)에서 가장 중요한 수송수단은 철도”라며 “기관차와 객화차에 대한 수리정비 사업을 잘해 그 성능과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
- 또 현재 중요한 문제는 “콘크리트 침목과 용접 레루(레일)를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침목을 콘크리트화하고 용접 레루를 받아들여 레루의 이음목 수를 줄여야 레루의 부담 능력을 높이고 철길에 생길 수 있는 이상 현상들이 더 잘 방지돼 열차가 더 많은 짐을 싣고서도 안전하게 빠른 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고 강조

■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5/28, 농협)

- 노동신문은 28일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며 경제난 속 모든 분야에서 “절약 투쟁”에 나설 것을 거듭 강조, 신문은 “우리의 경제적 토대와 밑천이 얼마나 은(효과)을 내는가 하는 것은 생산 정상화와 기술 개진(개선)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과 함께 절약사업을 어떻게 벌어나가는가 하는 데 크게 달려 있다”면서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낭비 현상을 없애지 않고서는 나라 살림살이가 펴 수 없으며 인민들이 덕을 볼 수 없다. 절약이 생산이다”라고 주장

■ 동평양화력발전소 현대화(5/28, 연합)

- 주로 평양지역에 난방용 전력을 공급하는 북한의 동평양화력발전소가 컴퓨터자동화와 발전시설 증설에 착수

■ 고려식품공장, 튀김과자로 스낵류 제패(5/27, 조선신보)

- 북한에서 옥수수, 보리, 밀가루, 감자, 녹말 등을 원료로 각종 튀김 과자류를 주로 생산하는 신생업체인 고려식품공장이 북한의 스낵 시장 석권은 물론 해외진출을 꿈꾸고 있다고 소개

■ 北 수력발전소 건설공사 현황(5/26,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6일 북한 곳곳에서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공사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며 현황을 소개, 원산청년발전소의 경우 완공 단계에 이르러 댐공사 마무리 작업과 1호발전소 압력관로 발전설비 조립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 발전소의 2단계 건설 현장에서는 물길굴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
- 예성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에서는 1호청년발전소의 2호 발전기 조립이 끝나 시운전이 진행 중이며, 2호청년발전소 건설 현장에서는 무덤이땀 취소구 콘크리트치기, 물길굴 굴착과 피복 등이 진척되고 있다고 방송은 보도

라. 군사 관련

■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5/31, 연합)

- 북한이 지난 3월에 이어 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 북한은 30일 오전 평안남도 증산 인근 해상에서 사거리 46km의 옛소련제 스틱스 미사일로 추정되는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
- 남북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남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군 당국은 일단 북한 군이 6월까지 전투준비 관정 검열(전투준비태세 검열)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데 주목, 군의 한 소식통은 31일 “서해상에 떠있는 함정에서 육상방향인 북동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사거리도 짧다는 점에서 남측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하계훈련에 대비한 성능확인용 훈련으로 보인다”고 언급

-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 3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을 당시에도 “북한은 겨울 내내 습한 창고에 보관했던 미사일을 따뜻한 5월이 되면 햇볕에 말린 뒤 성능시험을 위해 수 발씩 쏘 왔다”면서 “5월 되면 또 쏠 것이니 그때 가서 놀라지 말라”고 예고하기도 했다고 언급

■ 北군사회담 단장, 南 ‘빠라’ 살포 중단 요구(5/30, 조선중앙통신)

-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인 박림수 대좌(대령)는 30일 남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북한을 비난하는 ‘빠라(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박 단장은 통지문에서 “빠라 살포를 포함한 모든 심리전을 중지하고 일체 적대행위를 종식시키기로 한 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북남군사회담과 접촉에서 쌍방이 서약한 군사적 합의”인데 이명박 정부가 “군부와 우익 반공단체들을 동원해 우리의 체제와 제도를 악랄하게 비방증상하는 반공화국 빠라 살포행위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
- 그는 “5월말 현재 기구와 대형 고무풍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빠라를 살포한 지역만 해도 황해남도과 개성시, 강원도의 군사분계선 인근 일대를 포함하여 수십개소에 달하고, 심지어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의 통행도로와 관광지들에도 교묘한 방법으로 빠라를 살포하고 있다”고 언급, 그는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일본 반동들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여 우리를 반대하는 빠라살포 행위의 도수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
- 그는 “반공화국(북) 빠라살포 행위가 동결상태에 놓여있는 현 북남관계를 수습할 수 없는 파국적 사태로 몰아가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며 “호전집단은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 ※ 북한은 2007년 5월과 7월 장성급회담 등에서도 남측의 빠라 살포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단을 촉구한 바 있었음.

■ 北미사일 유도 방해 교란장치 개발(5/29, 연합)

- 북한이 GPS(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해 목표물을 공격하는 첨단 미사일이나 정밀유도 폭탄을 교란할 수 있는 GPS 교란장치를 자체 개발해, 이란·시

리아 등 중동지역에 이 장치를 수출하려 한다는 정황을 우리 정보 당국이 포착

■ 북한군 대규모 영농지원…사실상 훈련 중단(5/28, 연합)

- 북한군 병력이 대대적으로 영농지원에 투입돼 하계 군사훈련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짐. 군 소식통은 28일 “북한 전·후방지역에 주둔한 북한군이 대규모 영농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영농지원 수준이 예년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언급

■ 北경비정, NLL 침범…17분만에 복귀(5/27, 연합)

- 북한 경비정이 다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17분만에 복귀, 27일 오전 11시 13분께 북한 경비정 1척이 서해 연평도 서쪽 NLL을 넘어 남쪽으로 2.1km까지 내려 왔다가 우리 측 해군의 경고 통신을 받고 복귀했다고 합참이 밝힘.

마. 사회·문화 관련

■ 기록영화 수편 제작(6/1, 평양방송)

-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에서 최근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주민들의 생산 활동을 담은 기록영화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 앞으로’, ‘금진강을 다스리는 사람들’ 등 수편을 제작

■ 국제아동절 기념행사 개최(6/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일, 남한의 어린이날 격인 ‘국제아동절’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마련,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평양 만경대유희장에서는 평양시와 외국의 어린이 및 여성 간 친선모임이 열려 합창과 무용, 기악연주 등 예술공연과 공놀이, 줄넘기, 줄다리를 포함한 각종 오락경기가 진행
- 이 자리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중린 노동당 중앙위 비서,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김용진 교육상, 로성실 여맹 중앙위원장과 함께 평양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들이 참가
- ※ 북한은 1950년부터 기념해온 국제아동절(6.1)과 더불어 만 7세부터 14

세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년단 창립일(6.6)도 어린이를 위한 기념일로 삼고 있음.

■ 농업기술서적 편찬(5/30, 조선중앙통신)

- 농업출판사는 최근 곡물 생산을 늘리기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한 ‘논벼농사 참고자료’와 ‘토양의 영양원소평가’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채소 농사, 가축 사육, 감자 재배 등과 관련한 농업기술서적들도 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식량사정 어렵지만 아사자 없다(5/30,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전민이 떨쳐나 식량문제 해결을’이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북한의 농업성 관계자가 “식량 사정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하면서도 최근 북한에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서방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선 “생활이 풍족하지는 못해도 인민들은 보다 좋은 미래를 안아 오기 위해 분발하고 있다”며 강력히 부정했다고 소개
-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 조선신보는 “식량문제 해결의 중요성은 해마다 제기돼 왔지만 올해 양상은 예년과 자못 다르다”며 “오늘 국내(북한)의 식량 사정은 긴장되고 있다”고 전하고, 조선중앙통신도 최근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 사실을 보도하면서 “부족되는 식량”이라고 언급한 대목을 상기시킴.
- 조선신보는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이라 불린 시련을 결속(끝냄)한 후 대책을 강구해 2004년부터는 농업분야도 호전기에 들어섰”는데, 작년 여름 “특히 곡창지대인 황해남도 일대에 많은 비가 내려 농업생산에서 피해가 확대”돼 그 결과 “2007년의 알곡 수확량은 2006년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고 설명,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부족되는 식량 해결을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고 여기에 국가적인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다”고 전함. 특히 북한 농업성 김경일 책임부원의 말을 인용해 북한 전역에서 감자 농사 면적을 2007년보다 18% 늘였다고 말해 북한 당국이 6월말경 수확하는 감자로 임시변통할 생각임을 시사
- 김경일 책임부원은 현재 애로사항에 관한 질문에 “특히 비료 문제가 걸리고 있다. 예년에 비해 상당히 긴장되고 있다”며 “현재는 풀거름과 곡짚, 축산배설물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국제적인 식량 파동까지 겁친

상황에서 비료를 자체 해결하는 문제는 긴박한 과업”이라고 토로했다고 조
선신보는 보도

■ 평양시 인구 감축 방침(제135호, 오늘의 북한소식; 5/30, 연합)

- 평양시는 “인구조사 정리사업”을 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이 없
는 대상자들을 모두 지방에 내려보내기로 했다”고 인권단체인 ‘좋은벗들’
이 30일 발표
- ‘오늘의 북한소식’ 제135호에서 “평양시에는 집이 없어서 친척이나 친구,
직장 동료들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면서 평양시
당국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 소식지는 “평양시는 그동안에도 주
택이 충분하지 않은 점과 전기·물·난방의 소비량 등을 고려해 매년 직장 인
원을 꾸준히 감축해 왔다”고 설명하고 “배급이나 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시
민들의 수요에 비해 공급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데 따른 일종의 자구책”이
라고 분석
- ※ 북한 당국은 신체가 허약하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1차로
지방에 내려 보내며, 부부 한쪽이 지방 출신이거나 소소한 비법행위에
걸려도 지방에 내려보낸다고 소식지는 설명

■ 2008년부터 유치원서도 역사 교육(5/30, 조선신보)

- 북한 교육 당국은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유치
원에서 역사교육을 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30일 보도, 유치원 낮은반에서
는 ‘이야기 시간’을 통해 을밀대와 단군릉 등에 대한 교양교육을 하고, 취
학전 의무교육 단계인 높은반에서는 ‘우리말 시간’이나 ‘셈세기 시간’에
이순신 장군, 측우기 등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

■ 北, 비료·비닐 부족에 이상저온까지 올해 작황 부진 예상(5/30, 연합)

- 북한은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모내기 전투’에 돌입했지만 해마다 남쪽
에서 지원받던 비료와 못자리용 비닐박막 공급이 끊긴 가운데 이상저온으
로 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 모내기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 북한 당국
은 모내기에 필요한 노동력 동원을 위해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관공서도 최소 인원만을 남겨두고 모내기에 총동원돼 있는 상황

- 북한의 각 협동농장에서는 2007년 사용한 비닐박막을 재활용해 못자리를 설치하기는 했지만 이마저도 양이 턱없이 부족해 경우에 따라 못자리 면적의 3분의 1 정도만 온상을 만들어 모를 키우고 있는 형편, 또한 비료 부족은 북한의 올해 작황 전망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
- 현재 북한의 쌀가격은 지역별로 북한돈으로 1kg에 3천원을 초과해 4천원대를 향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음. 조선족 대북무역업자 김모(40)씨는 “개인 휴대품 명목으로 1인당 25kg 정도의 쌀을 중국에서 들여갈 수는 있지만 향후 가격이 더 오를 것을 예상하고 쌀을 내놓지 않는 사재기심리에다 당국의 시장단속까지 맞물리면서 일부지역에서는 쌀값이 1kg에 10위안(북한돈 4천800원)까지 올랐다”며 “현재로서는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 외에는 가격 폭등을 잡을 수 있는 뚜렷한 수단이 없는 형편”이라고 귀뜸

■ 北 ‘푸에블로호’ 그림 우표 발행(5/29, 조선신보)

- 조선우표사가 ‘반미공동월간(6.25~7.27)’ 에 즈음해 북한에 억류된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를 그려 넣은 새 우표(50×34mm) 1종을 발행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평양 고려호텔 앞 식당가 ‘현대화’ (5/27, 연합)

- 평양 고려호텔 앞길의 ‘고급 식당가’ 가 새로운 변신을 시도, 조선신보는 27일 “평양의 창광 음식점거리의 면모가 일신된다”며 “평양 역전과 잇닿아 있는 창광 음식점거리는 시내에서도 손꼽히는 식당봉사지구의 하나로 현재 거리에 있는 음식점들의 개건보수 공사가 한창”이라고 소개, 창광거리는 평양 역전에서 시작해 고려호텔을 거쳐 노동당 청사로 이어지는 거리로, 다양한 식당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평양을 대표하는 고급음식점들이 줄을 잇고 있음.

■ 개성 송악소주 외국에 수출(5/26, 조선중앙통신)

- 개성의 특산주인 송악소주가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 호평을 받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도 수출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 개성송도식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송악소주는 송악산 천연샘물과 도토리, 옥수수가 주원료이며 “향기롭고 유순한 맛”으로 북한에서 여러 차례 상과 메달을 받았다고 통신은 소개

■ 北, 아리랑에서 ‘핵 아닌 비단 영변’ 묘사(5/26, 조선신보)

- 북한이 세계에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인 ‘아리랑’에 핵시설로 ‘세계적 명성’이 있는 영변을 무대로 한 작품을 새로 넣어 올해 가을 공연할 예정
- 아리랑에서 영변은 핵시설 장소로서가 아니라 북한에서 유명한 비단 생산지로서 등장, 조선신보는 26일 “2008년도판 아리랑의 특징은 다른 장면들을 단축해 2장 5경에 평안북도 녕변군을 무대로 한 작품을 삽입한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이 곳이 핵시설의 소재지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에서는 비단 생산의 거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도
- 이에 따라 이 “작품의 제목은 ‘녕변의 비단 처녀’이며 그 취지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생활 제일주의 방침을 예술적 화폭에 담았다고 한다”고 신문은 설명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김숙, 北핵신고서 거의 마무리 단계(6/1, 연합)

-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1일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의 전날 회동에 대해 “상견례를 겸해 만나 6자회담의 각종 현안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했다”고 밝힘. 또 “북한이 핵 신고서 제출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
- 김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신고서 제출은 10·3합의에 따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서 미측으로부터 취해져야 할 2가지 조치와 상호연관된 것으로, 미국측 준비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날짜에 (신고서 제출을) 하기로 했으며 아직 양측이 최종 조율중”이라고 언급
- 김 본부장은 “다만 북·미간 긴밀한 협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신고서의 제출 시기만 결정돼 있지 않을 뿐 큰 문제에 관해서는 다 해결이 돼가고 있다”고 소개하고 “중요한 것은 신고한 내용은 모두 검증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검증 기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신고된 내용은 자료와 현장 방문, 시료채취, 여러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검증될 것”이라고 강조

- 또 “6자회담의 가속화 차원에서 북한이 지대한 관심을 갖는 분야로서 경제·에너지 분야 실무 의장국인 한국 입장에서 조만간 실무그룹 회의의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김 본부장은 6자회담의 재개일정과 관련, “6월 중에는 6자회담의 수순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것처럼 진행될 수 있겠다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혀, 6월 중에는 6자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될 것임을 분명히 함.

나. 북·미 관계

■ 北외무성, 美보고서에 “대화상대에 대한 모독”(5/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31일 북한을 폐쇄되고 군사화된 사회로 규정한 미국 국무부의 ‘자유·민주주의 신장 보고서’를 “대화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모독”이라고 비난
-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형식을 통해 “미 국무부는 2008년 ‘자유 및 민주화 추진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다”며 “자기의 국내법에 따라 만들어낸 독선적인 문서장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대해 ‘폐쇄’니, ‘고도로 군사화된 사회’니, ‘독재국가’니 하고 악담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하고 “핵문제 해결과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때에 미국이 우리 최고수뇌부를 걸고 들면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에 대해 시비중상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고 대화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모독”이라고 주장

다. 북·중 관계

■ 北평양교예단, 中각지 성황리 공연(6/1,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대표적인 서커스단인 평양교예단이 중국의 전장(鎮江), 항저우(杭州), Ningbo(寧波) 등 여러 도시에서 “시민들의 격찬을 받으며 성황리에 공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조선중앙방송은 평양교예단의 중국 순회공연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공연장소가 관중으로 언제나 초만원에 이르렀으며 공연이 끝날 때 마다 수많은 각 계층 인사와 시민이 공연 성과를 열렬히 축하”했다면서 공연을 관람한 중국 인사들의 소감도 전달

■ 中투먼시의 새 명물, 北국경 통과 도보관광(5/30, 연합)

- ‘걸어서 북한과 중국 국경을 넘는다.’ 그간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서만 북중국경을 넘을 수 있었음. 그러나 5월 22일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에서 북중 국경을 도보로 통과해 북한의 함경북도 남양시로 건너가는 관광이 개시돼 향후 투먼시의 새로운 관광명물로 떠오를 전망
- 30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북중 양국은 4월 29일 투먼시에서 양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투먼-남양 도보관광 합의서를 체결함에 따라 5월 22일 중국인 관광객 30명이 처음으로 걸어서 국경을 통과해 북한의 남양시를 둘러보고 돌아옴.
- 투먼시는 90년대부터 북한 정부를 상대로 도보관광 개통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 대사의 지원을 받아 마침내 숙원을 풀 수 있었다는 후문, 투먼시 투먼강(圖們江) 국제여행사에서 독점 판매하는 이 관광상품은 오전 9시 투먼세관을 출발, 북한의 남양세관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건너 북한으로 들어간 뒤 남양역, 김일성동상, 김일성-저우바오중(周寶忠) 상봉기념관 등 남양 시내를 둘러보고 오전 11시 30분 다시 다리를 건너 돌아오는 2시간 30분 일정으로 구성,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회만 진행되는 국경통과 도보관광 비용은 150위안(약 2만3천원), 여행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외국인은 국경통과 도보관광을 할 수 없으며 중국인도 변경통행증을 받을 수 있는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는 주민만 가능하다”고 소개

■ 北주재 中대사, 모내기 동참(5/29, 조선중앙통신)

- 류샤오밍(劉曉明) 북한주재 중국대사와 중국대사관 직원들이 29일 평양시 순안구역에 있는 북중친선 택암협동농장에서 모내기를 돕고 지원물자도 건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류 대사는 이 자리에서 “조선 인민은 공화국(북한) 창건 60돌을 뜻깊게 맞

이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이고 있다”면서 “중·조(북) 친선관계의 가일층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라. 북·러 관계

■ 北, 국제러시아어경연 참가 10명 선발(5/29, 조선신보)

- 6월 23~2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12차 국제학생러시아어올림픽경연에 북한에서 10명이 참가한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북한은 이를 위해 2002년 월별 선발대회를 열어 평양외국어대학 부속 평양외국어학원의 강윤미(16세, 6학년(졸업반)) 양을 포함, 13~16세 학생 10명을 선정

마. 북·일 관계

■ 北, 적군파 추방형식으로 日 인계 방침(5/27, 연합)

- 북한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자국을 삭제하는 조치에 착수할 경우 1970년 항공기 요도호를 끌고 북으로 간 적군파 요원 3명을 추방하는 형식으로 북한 영토 밖으로 내보내고 이후 일본이 이들을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日, 국제신뢰 원하면 과거청산 수행(5/27, 연합)

- 노동신문은 27일 일본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으려면 과거의 침략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며 일제 피해에 대한 “성근한 배상”을 촉구

■ 北, 인민의 對日 적개심 하늘에 닿아(5/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일본이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명기하기로 한 것은 “영토강탈 책동”이라면서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대일 적개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 “과거문제를 외면해 버리고 남조선과 일본의 ‘미래지향’을 운운한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민족을 배신하는 역적행위였다는 것을 이번 사태가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

바. 기타 외교 관계

■ 駐北 몽골대사 농사지원(5/30, 조선중앙통신)

- 소도브잠츠 쿠렐바타르 북한 주재 몽골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이 30일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있는 북-몽골 친선 정방협동농장에서 농사일을 돕고 지원물자도 건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3 대남정세

가. 대남 보도

■ 노동신문 '비핵·개방 3000' 통일차관 연설 비난(5/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핵-개성공단' 연계 발언을 문제삼아 개성공단내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남측 상주인력을 퇴출시킨 데 이어 홍양호 통일부 차관도 지목해 그의 남북관계에 관한 연설을 비난
- 신문은 26일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의 통일부 차관이라는 자가 북남관계 문제를 입에 올리면서 '비핵·개방 3000'에 대해 지껄었다"며 "그는 '비핵·개방 3000'이 우리의 핵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이라느니, 남북관계의 실천전략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면서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것인 듯이 분칠했다"고 주장

나. 남북 교류

■ 6·15기념행사 유럽·美·日서도 개최(6/1, 민족통신)

- 6·15공동선언 채택 8주년을 기념한 행사가 금강산 6·15민족통일대회(6.15~16)와 함께 유럽과 미국, 일본 등 해외 각지에서도 열린다고 재미동포 온라인 매체인 민족통신이 1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유럽지역 동포단체는 6월 6~14일 독일 에센, 프랑크푸르트, 베를린과 프랑스 파리 등지에서 '6·15공동선언 8돌 유럽동포 통일축전'을 개최

■ 남북 교육자회의 금강산서 개최(5/30, 조선중앙통신)

- 제2차 남북교육자대표자회의가 5월 29~30일 금강산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 조선중앙통신은 남북 교육자들이 이번 회의를 통해 “어떤 환경속에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이행하며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저촉되는 온갖 법적·제도적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회의에는 남측에서 정진화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표단이, 북측에선 교육자직업동맹이 참석, 2005년 12월 개성에서 열린 제1차 회의 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표단도 참석했었으나 이번 회의에는 불참

■ 부산서 北 긴급지원 밀가루 200t 선적식(5/27, 연합)

- 27일 오후 부산항 3부두에서 국제구호단체인 JTS가 북한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긴급하게 지원하는 밀가루 200t(1억5천만원)을 선적하는 행사를 가짐.

■ 北 청소년에 농구공 3천개 전달(5/27, 연합)

- 한국농구연맹(KBL)과 남북평화재단은 27일 북한의 중학교(중·고교 과정) 학생들이 사용할 농구공 3천개를 북측에 전달

■ 정부, 대북 설비자재 89억원상당 지원(5/26, 통일부)

- 통일부는 5월 29일부터 엿새 동안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및 불능화에 대한 상응조치 차원에서 89억원 상당의 설비자재를 북한에 제공한다고 26일 발표, 이에 따라 89억원 상당의 전기동(구리) 1천t이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항-남포항 경로로 북한에 배송

4 주요동향 개요

- 김정일 함흥 근처 체류

- 대남비방 계속
 -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 2탄
 - 남한의 대북 뼈라살포 중단요구 전통문

-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법 윤곽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6.2-6.8

6월
주차

1. 대내정세

- 가. 정치 관련
- 나. 경제 관련
- 다.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가. 대남 보도
- 나. 남북 교류

1 대내정세

가. 정치 관련

■ 北 '지도부 와해붕괴' 극도의 경계심(6/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평화적 이행전략'이라는 글에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군사전략에 매달릴 뿐 아니라 그와 병행하여 '평화적 이행전략'으로 저들의 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다"며 개방·개방 요구도 "그러한 책동의 하나"라고 주장
- 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이 이를 위해 "반동분자, 반사회주의 분자들을 규합하고 돈을 대주면서 그들을 반정부 책동으로 적극 부추기고 있다"며 "내부와해 전략을 실현하는 데서 지도부를 와해붕괴시키는 데도 주목을 돌리고 있다"고 언급
- 이어 "내부와해 전략을 실현하는 데서 다음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주민계층 속에서 사상정치적으로 약한 층을 찾아내어 그에 발을 붙이고 그들을 적극 충동질하는 것"이라고 주장

■ 민족공조와 외세공조 양립 불가(6/7, 통일신보; 6/8, 우리민족끼리)

- 통일신보는 7일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추진을 비난하며 '민족공조'와 '외세공조'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
- 8일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민족공조는 애국애족의 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명박 정부가 "친미사대, 반공화국(반북) 대결책동을 더욱 노골화하면서 자주통일 시대의 흐름에 도전해 나가고 있다"며 "민족공조가 애국애족이라면 외세 '공조'는 매국배족 행위"라고 주장

■ 조평통, 한·미 무력증강에 단호 대처(6/7, 조평통 서기국 보도)

- 조평통은 7일 한·미 양국의 군수지원협정 체결 20주년(6.8)을 맞아 발표한 서기국 보도에서 "미국과 남조선 친미호전세력의 발악적 책동에 의하여 6·15 이후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는 차단되고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의 위험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
- 또 "현실은 미국과 이명박 패당이 떠드는 '대화'와 '평화'란 한갓 내외여론

을 오도하고 저들의 침략적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면사포에 불과하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힘에 의한 대결과 전쟁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며 “불은 불로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혁명적 기질이며 확고한 대응방식”이라고 언급

■ 北, 6·15시대의 전진은 대세의 흐름(6/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15통일시대는 생명력 있고 전도양양한 애국의 시대’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6·15 공동선언 채택 이후 지난 8년 동안 남북한 사이의 변화와 흐름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6·15 통일시대는 온 민족이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기초해 자주와 대단결을 지향해 나가는 역사의 새시대”라고 강조
- 또 이명박 정부가 “외세와 공조하면서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 막아 보려”하고 있고, ‘비핵·개방·3000’ 내세워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면서 북남대결의 낡은 시대를 되살리려”한다고 비난
- ※ 북한은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 채택 이후를 ‘6·15 통일시대’로 규정

■ 강성대국건설 고난 극복 독려(6/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낙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정론을 통해 강성대국으로 가는 길은 “이상과 포부로만, 희망과 열정으로만 걷기에는 너무도 힘겨운 길”이라면서 “웅대한 목표를 위하여 떨쳐나선 이 길에서 한 목숨 바쳐서라도 반드시 해내”자고 강조
- 신문은 경제난이 최악이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8년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 강계시를 시찰, 중소형발전소 등을 자체 건설해 경제난을 극복했던 사례를 들며 “자강도의 노동계급처럼, 자강도 과학자·기술자들처럼, 자강도의 일군(간부)들처럼...분투하자”고 역설, ‘강계정신’을 되살릴 것을 거듭 촉구
- 아울러 “우리는 난관을 피해갈 수도 있는 그 어떤 ‘제2의 길’, ‘제3의 길’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진정한 낙원으로의 지름길인 사회주의 길에서 한치의 탈선 없이 걸어왔다”면서 “바로 그것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북한)은 오늘과 같은 승리와 영광의 언덕에로, 강성대국의 대문 가까이로 전진해온 것”이라고 주장

■ 김정일의 조부, 김형직 사망 82주년 기념화환 증정(6/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부인 김형직 사망 82주년을 맞아 당·정·군 간부들이 5일 평양시 강동군 봉화리에 있는 김형직의 동상과 만경대의 묘소에 노동당 중앙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명의의 화환을 진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날 행사에는 최태복·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로두철·전승훈 내각 부총리,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등이 참석

나. 경제 관련

■ 광복백화점 외벽 통유리로 교체(6/8, 조선신보)

- 평양 제1, 2백화점과 함께 북한의 3대 백화점으로 꼽히는 광복백화점의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교체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조선신보가 8일 보도
- 평양 만경대구역의 광복거리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광복백화점은 전쟁 노병이나 영예군인(상이군인) 등 이른바 ‘유공자’에 해당하는 북한의 ‘공로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 연건평 2만7천㎡에 3층 규모, 신문은 “광복백화점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1989년 7월)을 계기로 세워졌다”면서 “약 20년 만에 개진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한 뒤 “건물의 외벽들을 전부 통판유리로 교체하고 있다”고 소개

■ 모내기 80% 완료(6/6, 조선중앙방송)

- 북한 전역에서 모내기가 80%정도 완료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6일 보도

■ 北, 베이징올림픽 연계 관광특수에 큰 기대(6/5, 조선신보)

- 북한은 8월 8일 개막되는 베이징올림픽과 연계한 외국인의 북한관광 특수에 큰 기대를 걸고 해외관광객 유치에 총력
- 북한 관광 당국은 ‘아리랑 보러 평양으로 오세요’라는 구호를 내걸고 조선국제여행사, 국제청소년여행사, 조선국제금컵여행사 등의 여행사 직원들을 중국은 물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 보내 국제관광전시회를 열고 북한이 자랑하는 “대집단체조이자 예술공연”인 아리랑을 집중 홍보하고 북한의 유명 관광지들에 대한 소개도 곁들였다고 조선신보가 5일 보도
- 또 아리랑 공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묘향산, 구월산, 개성 등의 명승지

관광을 묶은 여행상품이 “다채롭게 짜고 들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

- 베이징올림픽을 북한 관광 특수로 연결시키려는 북한의 생각은 예년엔 8·15 광복절을 기념해 8월 15일 개막하던 아리랑 공연을 베이징올림픽 개막 4일 전인 8월 4일 열기로 한 데서 이미 뚜렷이 드러남.

※ 북한 당국이 올해부터 아리랑 공연을 저녁 시간대로 잡고, 낮 시간대에 정권 수립 60돌을 기념해 새로 창작한 역시 10만명 규모의 집단체조 ‘번영하라 조국여’를 8월 중순께부터 공연키로 한 것도 외국인 관광 객들을 위한 볼거리를 더 만들기 위한 생각으로 보임.

■ 함남 금야강발전소 공정률 60%(6/5,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함경남도 금야군에 건설하고 있는 금야강발전소(시설용량 18만kW)의 조기 완공을 위해 댐과 발전기실 등 전반적 공사를 “입체적”으로 벌여 나가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5일 보도, 북한은 금야강 상류에 대규모 댐을 쌓아 인공호수를 형성한 후 이를 이용해 여러 개의 발전소를 계단식으로 건설해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인데, 김정일 위원장은 2003년 4월에 이어 2006년 9월에도 건설장을 방문, 조기 완공을 독려

※ 금야강발전소는 1980년대 말 착공해 1993년 초까지 철도 인입선공사(14km), 다리공사 등 기초공사를 추진하다 자금난 등으로 건설이 중단된 후 1999년 3월 꺾기모임을 갖고 재추진에 들어갔으며 2007년 여름 수해 때 수송로들이 파괴되고 설비와 자재가 침수·유실되기도 했음.

■ 황해도 쌀값 석달새 3배 상승(138호, 좋은벗들 소식지; 6/5, 연합)

- 곡창지대임에도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황해남북도에서 쌀값이 5월 말 현재 1kg에 북한돈 4천500원~4천원을 기록해 지난 2월에 비해 3배 이상 급등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 소식지 최근호가 5일 주장
- 황해북도 사리원의 경우 쌀값이 2월 1천350원, 3월 1천700원, 4월 2천200원에 이어 5월 10일 2천500원, 25일 3천500원, 30일 4천200원으로 급등세, 쌀값 4천원대는 북한 노동자의 평균 월급으로 알려진 3천원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
- 사리원 지역의 옥수수 가격도 5월말 현재 1kg에 1천950원으로, 지난 2월

720원에 비해 270%가량 상승했으며 황해남북도의 옥수수 가격은 대체로 1천950원에서 2천원 사이라고 소식지는 언급

- 소식지는 특히 황해도 지역의 한 군부대에서는 군인 배급이 모자라자 “12세 이하 자녀를 둔 군관(장교)은 처자를 부모 집이나 처가에 보내 식량배급이 나오는 11월까지 떨어져 살 것”을 지시할 정도라고 주장

■ 암스테르담 상공회의소, 북한사업설명회 개최(6/4, 자유아시아방송)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상공회의소가 5월 30일 헤이그에서 연 북한사업설명회에 스위스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 2명이 참석해 유럽 기업들의 대북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를 적극 펼쳤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 그러나 참석 기업인들은 북한 투자를 위한 통신, 통행, 통관 등 ‘3통 문제’를 지적하며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짐.
- 기업인들은 북한 외교관들에게 ▲북한에 국제적 수준의 금융기관이 없어 투자금의 송·출금이 불편한 점 ▲북한과 유럽간 물품의 통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통관 절차에도 문제가 많은 점 ▲북한의 투자담당 관리들 가운데 영어 능통자가 부족해 인허가나 상담시 의사소통에 장애를 겪는 점 ▲북한 시장에 대한 공개정보가 부족하고 북한 시장 진출관련 당국 및 기업소의 연락처 파악이 어려운 점 등을 지적했다고 브라우어 공보관은 설명

■ 北, 폴란드에 건설기능공 수십명 파견(6/3, 연합)

- 북한이 중동 뿐 아니라 최근엔 폴란드에 수십명의 건설 기능공을 파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 코발스키 기사는 “북한의 건설 기능공들은 폴란드에서 한창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북서부 지방 도시들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북한의 건설 기능공들을 포함하면 폴란드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

■ 영농철 비료 부족 아우성(6/3,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3일 평양발 기사에서 본격적인 모내기철에 들어선 북한의 농촌 표정을 그리면서 “나라에서는 필요한 양만큼의 비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농부들 한숨, 영농철 비료 부족은 곧바로 농작물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을철 곡물 수확 감소로 이어지기때문에,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식량난을 2008년까지 이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

다. 사회·문화 관련

■ 김일성대에 ‘최상급 수영장’ 건설(6/8, 조선신보)

- 김일성종합대학에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북한 내 “최상급 수준”의 수영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조선예술, 영화도입부 “입체구성” 강조(2008년 3호, 조선예술)

- ‘조선예술’ 최근호(2008.3)는 중요한 선전도구의 하나인 영화 제작과 관련, 도입부에서 주제를 암시하면서도 결말을 쉽게 짐작할 수 없도록 입체적으로 구성할 것을 강조
- 잡지는 ‘영화의 첫머리에서 관중과의 교감문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영화에서는 첫인상이 중요하다”며 “첫머리가 좋아야 관중에게 친근감을 안겨줄 수 있고 극적 기대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시작이 단조롭고 밋밋(속이나 생각이 얇은 것)하게 된다면 기대와 흥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 잡지는 도입부를 잘 만든 대표적 작품으로 예술영화 ‘한 여학생의 일기’와 실존인물을 그린 ‘대홍단책임비서’ 등을 꼽음.

※ 2006년 제작돼 북한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 여학생의 일기’는 ‘영화광’으로 알려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작 과정을 직접 지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2007년 5월 칸 국제영화제에서 시사회가 열려 세계 영화인들로부터 “신선하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음.

※ ‘대홍단책임비서’는 당정책을 관철해 나가는 데서 솔선수범한 실존인물인 량강도 대홍단군 당책임비서인 김성진의 모습을 그린 영화로 1997년 9월 제작

■ 조선소년단의 창립 62돌 기념 학생소년예술축전 개최(6/6, 조선중앙통신)

- 만 7세부터 14세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선소년단의 창립 62돌을 기념

하는 학생소년예술축전이 6일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김종린 당중앙위 비서, 리용철 청년동맹 1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

■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 시작(6/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청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이 6월 5일 량강도 혜산시에서 시작됐다고 보도

■ 北여자축구, 중국 꺾고 아시안컵 우승(6/9, 연합)

- 북한 여자축구대표팀이 중국을 꺾고 베트남에서 열리고 있는 2008아시아 축구연맹(AFC) 여자아시안컵 우승컵을 차지

■ 北,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보호에 관심(6/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보호를 민족 장래를 위한 관건적인 사업으로 간주하는” 북한 당국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서명국으로서 온실가스 완화를 위한 부문별 전략을 발표하고 유엔협약에 따르는 1차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에너지 효율과 자연에너지 사용을 위한 사업을 전개, 화력발전소에 깨끗한 연소기술과 동력용 순환비등층 연소보일러(연료를 끓는 액체와 비슷한 상태로 유동시키며 연소시키는 보일러)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도입

■ 논두렁 새참에 ‘에스키모’도 인기(6/5, 조선신보)

- 북한에서 아이스크림을 일컫는 말인 ‘에스키모’가 모내기가 한창인 평양시 인근 농촌에서 논두렁 새참거리로도 등장, 조선신보는 5일 북한의 대집단 체조인 ‘아리랑’ 공연이 열리는 곳으로 잘 알려진 ‘5월1일경기장’ 상표를 붙인 아이스크림이 북한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지금은 평양 뿐아니라 지방도시들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

- 각종 ‘에스키모’의 수요가 이같이 증가함에 따라 평양시 룡라도에 있는 5월1일경기장의 생산작업반은 하루 3만여개로 생산량을 늘림.

■ 1그루 베면 10그루 심자, 녹화 운동 전개(6/2, 노동신문)

- 북한은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홍수·가뭄과 그로 인한 식량난의 근원중의 하나인 산림 황폐화를 막기 위해 ‘1그루 베고 10그루 심기’ 운동을 전개

■ 김일성 주치의 양형만 사망(6/4,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고 김일성 주석의 주치의였던 양형만 국가과학원 교수가 3일 ‘불치의 병’으로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4일 보도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6자회담 훼손은 유관국 이익 훼손(6/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내 “강경보수세력들”이 비핵화와 관련한 북·미 협상에 제동을 걸려 하고 있다며 “6자회담을 해치는 것은 곧 미국 자신을 포함한 유관국들 모두의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 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주장
- 또 “분명한 것은 6자회담과 국제정치의 흐름이 미 강경보수세력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되고 있다”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훼방은 국제사회의 총의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주장

■ 성 김 한국과장 10~11일 방북, 북핵 불능화 논의(6/7, 연합)

-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북핵 불능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11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6일 발표
- 성 김 과장의 방문목적에 대해 “핵 불능화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 시설 11개중 8개에 대한 불능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불능화 작업을 어떻게 마무리할 지에 대해 그들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매코맥 대변인은 설명

- 매킨맥 대변인은 성 김과장이 방북에 앞서 서울에서 한국측 6자회담 대표들과 북핵 6자회담 산하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회의 참석차 방한중인 중국측 6자회담 대표들과도 만날 계획이라고 언급

■ 6자 에너지실무회의의 10~11일 서울·판문점 개최(6/3, 외교통상부)

- 정부는 북한의 핵신고에 상응하는 경제·에너지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5자 공여국회의와 6자회담 경제·에너지실무그룹 수석대표 회의를 10일 서울과 11일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발표, 이에 앞서 남북간 사전 준비 협의가 5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

■ 北, 에너지 지원속도에 강한 불만(6/5, 연합뉴스)

- 북한이 비핵화에 따라 제공받기로 돼 있는 경제·에너지 지원의 속도가 더딘데 대해 북핵 6자회담 산하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의장국인 우리측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 현학봉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황준국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남·북 수석대표 회담을 갖고 에너지 지원이 자국이 이행하고 있는 핵시설 불능화 속도에 못미치고 있음을 수 차례에 걸쳐 지적했다고 회담 소식통은 전언
- 현 부국장은 특히 “지원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 그는 모두발언에서도 “현재 우리 무력화(불능화)가 80% 이상 추진되는 반면에 전반적인 에너지 협조사업은 36%선에서 되고 있어 매우 우려를 표시한다”면서 “응당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원만하게 진행되리라 생각한다”고 언급
- 남측은 이에 “서로의 조치를 수량화할 수는 없지만 의장국으로서 북측의 우려를 접수해 나머지 5개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측이 자신들의 불만을 강하게 제기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았고 진지했다”고 언급, 북측은 또 지원받을 발전 설비자재의 종류와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남측에 전달하였으며, 남측은 6월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5자 공여국회의에서 북측의 요청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경제·에너지 지원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

※ 북핵 2·13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를 이행하는데 따라 나머지 5개국은 북한에 중유 95만t에 해당하는 경제·에너지 지원을 제공해야 함. 북한은 불능화 조치 11개 중 8개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3개 조치 중 핵심인 폐연료봉 인출작업도 총 8천개 중 3천 200개 정도가 진행됐지만 에너지 제공은 중유로 환산하면 총 95만t 중에서 33만여t(설비자재 계약분까지 포함하면 39만t)만 이뤄져 상대적으로 속도가 처짐.

나. 북·미 관계

■ 북미관계 주목되는 변화 평가(6/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조미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 호전세력들은 조선반도에서 정세완화의 기미가 보일 때마다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여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이끌어가곤 했다”고 주장하며 “그것은 조미회담과 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범죄행위”라고 강조
- 노동신문은 이 논평에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체 군사적 행동을 삼가”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현 북미관계와 핵협상, 한반도 정세를 이례적으로 긍정·낙관하는 표현들이 등장
- 신문은 “오늘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과 조미관계에서는 주목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지금 조미 사이에는 여러 갈래의 접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며 “여기에서는 조선반도 핵문제를 포함하여 두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현안 문제들이 토의되고 있다”고 지적
- 신문은 또 이러한 북·미간 접촉과 협상이 6자회담 재개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을 비교적 낙관

■ 美지원 식량, 6월말 北에 첫 도착(6/4, 미국의 소리방송)

-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1차 선적분 밀 3만7천t과 옥수수 2만4천t이 각각 6월말과 7월말 북한에 도착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

다. 북·중 관계

■ 세관총국대표단 귀환(6/7, 평양방송)

- 지역식 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세관총국대표단이 방중 일정을 마치고 7일 평양으로 귀국

■ 北, 베이징 올림픽에 힘 보태기(6/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이례적으로 베이징 현지 취재기를 통해 올림픽관련 생생한 소식을 주민들에게 보도, 신문은 '중국기행-올림픽 준비로 들끓는 친선의 도시' 제목의 글에서 올림픽 주경기장의 건축 면적은 25만8천㎡에 달하고 좌석수는 9만1천석이나 되며 이 경기장에서 개·폐막식이 진행된다는 등 주경기장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세계 각국의 '평화와 친선의 새'가 날아와 올림픽경기대회 개막 행사를 하게된다는 의미에서 새둥지 모양으로 건설됐다"고 설명

■ 中시진핑, 17~19일 방북(6/5, 조선중앙통신;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6월 17~19일 북한을 공식 방문, 사실상 차기 후계자로 내정된 시 부주석이 지난 3월 취임 이후 해외 방문길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진핑 부주석이 북한 노동당과 북한 정부의 초청으로 17~19일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주요 지도자들과 회담을 갖는다"며 회동 가능성을 시사한 뒤 "중국은 양국이 북핵 문제를 비롯해 공통 관심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해 이번 방문이 북중 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
- ※ 시 부주석은 북한을 방문한 뒤 19일부터 25일까지 몽골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예멘 등 4개국을 잇따라 공식 방문한 뒤 귀국

■ 주북 中대사, 대북경협 4대분야 제시(6/4, 신화통신)

-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대사는 4일 "중국은 상호 무역과 투자를 늘려 기초시설건설, 광산자원개발, 광산품가공, 변경지구무역왕래 등 4대분야에서 조선(북한)과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

- 류 대사가 제시한 대북경협 4대분야는 지난 3월 신임 인사차 자신을 방문한 리 무역상을 만난 자리에서 “중조 양국 지도자가 정한 정부인도, 기업참여, 시장운영 원칙에 입각해 조선측과 새로운 시기에 걸맞은 신사고로 양국 경협을 심도있게 토론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실질적 협력을 열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한 언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중국이 앞으로 북한과 경협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됨.

■ 北·中, 세관협조협정 체결(6/4, 조선중앙통신)

-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 세관총국 대표단이 3일 중국과 세관협조협정을 맺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
-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의 세관분야에서 호상 협조에 관한 협정이 3일 베이징에서 조인됐다”고 밝혔으나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北연구소, 中과 건강음료 합작 추진(6/3, 조선신보)

- 북한 고려의학과학원의 고려생명수기술센터가 건강음료 생산을 위해 중국 기업들과 합영합작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3일 보도

라. 북·러 관계

■ 북·러 라진항 합영기업 법적문제 합의(6/7,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은 최근 러시아 철도주식회사 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라진항 합영기업 창설과 관련한 모든 법적 문건들”에 대해 합의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7일 보도
- 6월 3일 라선시에 도착한 아나톨리 월로진 사장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 철도주식회사 대표단과 북한의 해당 부문 대표단간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이 같이 밝혔으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음. 양측은 또 “가까운 시기에 합영회사 이사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으며 “하산-라진 사이의 철도 임대 대상을 확정하고 철도 임대계약을 체결할 데 대한 문제를 합의했다”고 방송은 보도
- 러시아 철도주식회사 대표단은 7일 열차편으로 북한을 출국

마. 북·일 관계

■ 北·日, 11~12일 공식 협의 개최(6/7, 연합)

- 북한과 일본이 7일 6자회담의 북일 국교정상화 워킹그룹 회의 재개를 위한 비공식 실무자 협의를 갖고 6월 11~12일 공식 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 북핵 6자회담의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齋木昭隆)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송일호 조일국교정상화 담당대사와 북일 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오는 11~12일 베이징에서 공식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사이키 국장은 “이날 회담에서 여러가지 논의를 통해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도 이를 경청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북일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회담에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
- 그러나 사이키 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항공 ‘요도호’ 납치범들의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해 구체적인 논의는 내주 열리는 공식 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

■ 조총련, 조직 적극적으로 확대(6/4, 조선신보)

- 조총련은 5월 30일 일본 도쿄(東京) 조선회관에서 중앙위원회 제21기 제2차회의를 열어 조직 확대를 위한 ‘동포 되찾기 운동’을 적극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조총련은 동포 되찾기 운동의 모체인 ‘동포 되찾기 운동추진위원회’의 역할을 높이고, 각 계층 동포들에 대한 방문과 접촉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족 의식을 불어넣는 교육사업에 힘을 쏟기로 함. 조총련 서만술 의장과 허종만 책임부의장을 비롯한 부의장단, 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재일조선인 역사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

바. 기타 외교 관계

■ 비슈와나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이사장 평양출발(6/7, 조선중앙방송)

- 김용삼 철도상, 철도협조기구 제36차 장관회의에 참가(6/5, 조선중앙통신)
 - 우크라이나에서 열리는 철도협조기구 제36차 장관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김용삼 철도상이 5일 평양을 출발
- 북한 주재 쿠바대사관 관계자, 평양에서 농사지원활동 전개(6/4, 조선중앙통신)

3 대남정세

가. 대남 보도

- 北,李大통령 방중 논평(6/4,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4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일부 나라들을 방문해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은 '대북정책'에 대한 그들의 설명을 꺾등으로 흘려보내면서 북과 남의 화해·협력을 바란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

나. 남북 교류

- 남북합영 섬유공장, 8월 평양서 본격 가동(6/7, 연합)
 - 남한의 기업과 북한이 공동 투자해 함께 경영하는 합영회사인 '평양대마방직'이 오는 8월 평양에 설립돼 본격적인 가동
 - 안동대마의 김대표는 6월 10일 개성을 통해 육로로 34개 컨테이너 분량의 마무리 공장 설비를 북한으로 보낼 예정이고 8월 15일을 전후로 준공식을 갖고 생산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힘. 또 "공장이 준공되면 우리 측 간부와 기술자 25명 정도가 상주하면서 기업을 운영하게 된다"면서 "남북간 경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
 - 평양대마방직은 총자본 3천만 달러 가운데 안동 대마방직이 1천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절반은 새별총회사가 현금 대신 대마 재배지, 공동부지, 일부 공장 건물 등으로 공동투자, 공장건물은 평양시 동대원구역에 새로 지은 5개 동과 낙랑구역에 있는 기존 건물을 사용하며 북한 근로자 1

천800여 명이 일하게 된다고 안동 대마 측은 설명

※ 안동대마방직과 북한의 합영회사 설립은 2003년 11월 첫 계약이 체결됐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2005년 10월 1일 평양에서 창업식을 가졌으며 최근 공장 건립 등에 속도를 내 계약체결 5년만에 결실을 맺게됨.

■ 金통일, 6·15 8주년행사 참석 긍정 검토(6/6, 연합)

-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6월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6·15 남북공동선언 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남북관계 주무부서장인 김 장관이 6·15 기념행사에 참석한다면 북측이 절대시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현 정부가 부정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김 장관이 행사에서 축사를 할지, 단순 참석만 할지는 미정

■ 北, 남북회담 수석대표 작년말 경질(6/5, 마이니치 신문; 연합)

- 남북한 각료급 회담에서 북한측 수석대표로 활약했던 권호웅 내각책임참사가 2007년말 경질됐음이 북한 정권에 가까운 관계자를 통해 밝혀졌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5일 베이징(北京)발로 보도
- 권 참사는 지난 10여년 동안 대남교섭을 담당해온 한국통으로, 경질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섭 과정에서 쉽게 타협했다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한 점 등이 비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보도

■ 옥수수 5만톤 지원, 북(北)에 먼저 제안(6/4, 연합)

- 정부는 북한에 옥수수 5만t을 지원하기로 하고 5월 북측에 이를 위한 접촉을 제안했으나 북측은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김하중(金夏中) 통일부 장관이 4일 밝힘. 김 장관은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가진 내·외신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 오길 바라며 북한이 앞으로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
- 김 장관은 “이번 옥수수 지원은 북측이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등을 계기로 우리측에 요청했던 것”이라며 “정부는 작년 12월 옥수수 5만t 지원을 결정했지만 국제 곡물가격이 오르고 중국이 식량 수출 쿼터제를 적

용하는 바람에 집행이 늦춰졌다”고 언급, 김 장관은 “작년 정부가 지원을 결정했을 때는 옥수수 가격이 t당 350달러였지만 현재는 420달러 정도여서 당초 책정해놓은 금액으로는 5만t을 다 줄 수 없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한 5만t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개성공단 기금借主 현지법인으로 전환(6/2, 통일부)

-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은 개성공단 초기 입주업체들의 기금 차주(借主)를 모기업에서 개성 현지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2일 발표
- 당국자는 “개성공단 기업들은 ‘협력기금을 대출받으면서 차주를 국내 모기업으로 등록한 탓에 모기업 부채비율이 상승, 회사 신용에 영향을 준다’며 차주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면서 “현재 기획재정부와 차주 전환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언급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6.9-6.15

6월
2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가. 대남 보도
- 나. 남북 교류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대계도간석지·룡천농장 시찰(6/1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 대계도간석지 건설장과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대계도간석지 건설은 나라의 부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며 공사를 앞당겨 끝낼 것을 주문하고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경지 면적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새 땅을 더 많이 얻어내야 한다”고 언급
- 김 위원장은 또 신암협동농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영농 상황을 살핀 뒤 “알곡(곡물) 생산을 늘리기 위한 기본 방도는 우리 나라의 기후 풍토에 맞는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특히 종자혁명 방침 관철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
- 이번 현지지도에는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가 동행

■ 김정일, 평북 북중기계기업소 시찰(6/1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 룡천군에 있는 북중기계연합기업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선박공업에 필요한 각종 기관과 압축기 등을 생산하는 북중기계연합기업소의 여러 생산공정을 둘러본 뒤 “해양국인 우리나라에서 수산업과 해상운수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북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 현대적인 고깃배와 짐배(화물선) 무이(건조)에 필요한 성능 높은 여러 가지 기관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강조
- 김 위원장은 또 “북중의 노동계급은 부강조국 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침으로써 나라의 선박공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최근 몇 해 사이에 획기적인 기술적 진보를 이룩하여 생산을 급격히 늘렸다”고 근로자들을 치하하고 기계생산 근로자들과 기념촬영
- 김 위원장의 기업소 방문에는 김평해 노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가 동행

※ 김 위원장은 2005년 1월 그해 첫 시찰활동으로 북중기계연합기업소를 찾은 데 이어 12월에 재방문했고, 2007년 6월에도 시찰한 바 있음.

■ 김정일, 군부대 산하 식료공장 시찰(6/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 산하 식료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
- 김정일 위원장은 공장 책임자의 안내로 김일성 주석의 ‘현지교시관’ 과 ‘연혁소개실’ 을 돌아보고 공장 관계자들이 군용 식품생산에 헌신,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이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으며, 새로 건설된 직장(職場, 생산라인)을 비롯한 공장의 생산공정과 제품을 살펴본 후 “만족”을 표시, 그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국력을 강화할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의 융성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과학자들의 역할 강화를 촉구
- 식료공장 시찰에는 현철해·리명수 군 대장이 동행

■ 김정일, 잇단 군부대 시찰(6/11, 조선중앙통신; 6/12,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756 군부대 산하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부대의 ‘부업농사’ 와 가축 사육 등을 높이 평가하고 “부업경리를 적극 발전시켜 군인들의 식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 시찰에는 현철해·리명수 군 대장이 동행

■ 김정일, 군인가족 공연관람·군부대 시찰(6/1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2기 1차 군인가족 예술소조 경연’에 참가한 여러 군인가족의 공연을 관람한 데 이어 북한군 제958군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인민군 김격식 총참모장과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김중린·김기남 비서 등과 함께 공연장을 찾아 “공연 성과를 높이 평가”한 뒤 “군인가족 예술소조 경연이 예술을 대중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 선군시대에 창조된 새 문화의 자랑찬 면모를 다시금 뚜렷이 과시했다”고 언급

- 김 위원장은 또 북한군 제958부대를 방문, 군부대장의 안내로 연혁소개실을 돌아본 후 작전지휘실에 들러 경계근무 수행상황과 훈련실태를 살폈다고 통신은 보도, 군부대 시찰에는 군대장들인 현철해·리명수가 동행

■ 김정일, 인민군 군부대 시찰(6/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중흡 7연대' 칭호를 받은 인민군 제176부대 산하 구분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나. 정치 관련

■ 당·정 간부 군인가족 예술공연 관람(6/15, 조선중앙통신)

- 당·정 간부와 평양시 근로자들이 15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리고 있는 제2기 제1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을 관람

■ 김정일, 통일위한 희망적인 큰 선언 내자(6/14, 우리민족끼리)

- 온라인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일화를 소개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3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두 번째로 평양을 방문한 "남측 특사 일행"에게 6·15공동선언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고 밝힘. 김정일 위원장은 "조국해방(광복) 55돌을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통일을 위한 희망적인 큰 범위의 선언 같은 것이나 하나 내고, 거기에 앞으로 더 전진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킨다 하는 내용을 큼직하게 명기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 김 위원장은 또 특사에게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올 때 남조선의 전직 대통령들도 함께 데리고 올 데 대한 의견"도 내놨다고 매체는 보도
- 우리민족끼리는 더불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자기를 평양에 불러줄 것을 여러 통로를 통해 요청"했고, 김 위원장이 "이 해(2000년) 조국통일운동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제길(열어젯힐) 원대한 꿈을 품고 "남조선 당국자의 평양방문 초청 제의"를 받아들여 첫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합의서(4.8)가 채택됐다고 주장
- 김 위원장은 또한 "북남합의서가 채택된 것은 우리의 막강한 군사적 힘에 의해 마련된 승리, 다시 말해 선군(先軍)정치 of 위대한 승리"라면서 "우리

가 선군정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

■ 대접받는 ‘척화비’ (6/12, 우리민족끼리)

- ‘척화비(斥和碑)’가 북한에서는 “외래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의 상징”으로 의미가 부여되면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음. 우리민족끼리는 12일 ‘척화비에 비긴 우리 민족의 애국적 기개’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인민은...외래침략을 반대하는 투쟁행정에서 역사적으로 공고하게 형성된 애국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면서 척화비 설립 경위를 소개한 뒤 “우리 인민의 반(反)침략 의지와 기개가 ‘척화비’의 비문에 깃들여 있다”고 평가
 - ※ 앞서 북한은 2006년 친일파에 의해 파괴된 척화비를 발굴해 개성시 계급교양관에 전시하고 참관 주민들에게 “역사적으로 조선을 침략해 온 열강들의 본성은 오늘도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의지를 다시금 굳게 가다듬게”하고 있다고 북한 언론이 소개한 바 있음.

■ 조선신보, 이명박정권, 남북관계 타개책 찾아야(6/10,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0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와 핵문제는 진전되고 있는 반면 남북관계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이 현상유지를 바라지 않는다면 타개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조선신보는 ‘북이 비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철학’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10·3합의 이행이 최후국면에 들어서고 6자회담 재개문제가 상정되고 있지만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닌 북과 남은 필요하다면 국제정세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만나서 민족대화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

다. 경제 관련

■ 석탄에 눈돌리는 北...고유가속 경제성 재조명(6/12, 연합)

- 북한이 6월 5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에너지 실무협약에서 핵불능화 진전에 따른 경제·에너지 지원의 하나로 일본에 무연탄가스화 설비비용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
- 무연탄가스화는 석탄 화학공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정으로 석탄에 고온

- 과 고압을 가해 기체로 만드는 이 기술을 활용하면 석탄에서도 비료와 화학 원료는 물론이고 추가 설비를 붙일 경우 석탄액화유까지 만들어낼 수 있음.
- 이번에 북한이 요청한 무연탄가스화 설비는 일본에 요청한 분담액(4천만달러) 규모로 미뤄 비료원료 생산 목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석탄을 기체로 만들어 정제과정을 거치면 요소비료의 원료인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음.

■ 생필품 증산운동 촉구(6/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소비품 생산을 늘리는 것은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 라는 글에서 “당에 있어서 경제건설을 잘하여 인민생활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업은 없다”며 “현 시기 소비품 생산에서 중요한 것은 품종 수를 확대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
- 신문은 이어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로 “설비들의 기술개선(개선)과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기술 혁신”을, 소비품 증산 방안으로는 “지방의 원료원천을 적극 이용해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각각 제시

■ 경제발전 유무상통 원칙 강조(6/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경제의 자립에 대해 “문을 닫아매고 모든 것을 100% 자체의 것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면서 “대외경제관계 발전”에서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칙을 강조
- 노동신문은 ‘경제강국 건설의 기본방향을 견지하기 위한 중요원칙’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제강국을 건설해 나가는 우리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면서 “나라마다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수준에서도 분야별로 다른 것만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있는 것은 주고 없는 것은 받는 방법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고 주장, 신문은 다만, “내부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내세우지 않고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경제의 운명을 남에게 떠맡기는 것”이라면서 “내부의 원천과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는 것이 기본이며 대외경제관계를 통하여 필요한 것을 해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이라고 설명

■ 北천리마제강, 신형 전기로 자체 건설(6/10, 조선신보)

- 북한의 대표적 강철생산지인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가 자체 기술로 신형 전기로를 건설해 오는 9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조선신보가 10일 보도
- 조선신보에 따르면, 평안남도 천리마군에 있는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는 지난 2월부터 여러 기의 낡은 구형 전기로 중 1기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 전기로 건설을 시작해 정권 수립 60주년이 되는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전기로가 성공적으로 가동될 경우 다른 전기로도 신형으로 건설할 예정

라. 군사 관련

■ 北판문점대표부, 모든 억제력 강화 불가피(6/9, 북측 판문점 대표부)

- 북한의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9일 “미국과 남조선(남한) 호전세력들이 오늘처럼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 책동을 계속 추구한다면 조선인민군은 모든 전쟁억제력을 보다 확고하게 강화해 나가는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대변인은 담화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뤄진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중단, 미국의 대한 무기구매국 지위 향상, 한미간 합동군사연습 등을 들어 이같이 언급

마. 사회·문화 관련

■ 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개최 예정(6/14, 조선중앙통신)

- 제6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가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대혁명전 시관에서 개최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번 전람회에는 10여개국과 국제기구 등에서 30여개 단체가 참가하며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전자공학, 유전자공학, 환경학, 기초과학, 의학 등 분야의 최신과학기술도서가 전시

■ AI예방 철새 이동경로 조사(6/13, 조선중앙통신)

-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철새의 이동 경로와 사람·짐승 접촉 경로

등에 대한 역학적 조사연구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정권 60돌 대규모 도서전 개최(6/13, 조선신보)

- 북한이 정권 수립 60돌(9.9)을 맞아 총 2만 종, 4만 부가 넘는 책을 전시하는 대규모 '국가도서전람회'를 개최한다고 조선신보가 13일 보도
- 9월 초 개막되는 이번 도서전에는 조선노동당출판사, 금성청년출판사, 근로단체출판사, 문학예술출판사 등 북한의 20여 개 출판사가 참가해 오는 8월 말까지 발행되는 책 가운데 대표적인 도서를 선정, 전시한다며 행사장에는 각종 잡지와 화첩, 멀티미디어 콘텐츠, 교과서도 선보인다고 신문은 소개
- ※ 북한은 2002년 고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4.15), 2005년 노동당 창건 60돌(10.10) 등을 맞아서도 대규모 '국가도서전람회'를 개최한 바 있음.

■ 여자축구팀 우승컵 안고 '금의환향' (6/12, 조선중앙방송)

- 북한 여자축구대표팀이 베트남에서 열렸던 2008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우승컵을 안고 12일 평양으로 금의환향, 이날 평양순안공항에는 박학선 체육지도위원장을 비롯한 체육관계자와 평양시 체육인들이 대거 출동해 꽃다발을 흔들며 아시아 정상을 차지한 대표팀 선수들의 귀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으며, 선수들에게 꽃 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 주면서 열렬히 축하

■ 여중생 3인방, 중국어대회 도전(6/12, 조선신보)

- 북한의 중학교(중·고교 과정) 학생 3명이 중국 충칭(重慶)에서 열리는 '제1차 세계 중학생 중국어 경연'에 참가한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에 따르면 이들 여학생은 모두 16세로 최근 3차례의 북한 내 예선을 통과한 우수한 학생들임.
- ※ 한편 북한 대학생들도 2006년과 2007년 중국에서 열린 세계 중국어경연에 나가 1, 2등과 1, 3등을 잇달아 차지한 데 이어 올해 7월 제7차 경연에도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2명이 참가해 대회 3연패를 노림.

■ 美 대학 학위 탄 北유학생은 68명(6/11, 자유아시아방송)

- 2007년 1월 말 현재 미국 대학에서 유학 중인 북한 국적의 학생은 34명이
며 이와 별도로 이미 미국 대학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북한 유학생
은 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미국 국토안보부
자료를 인용해 11일 보도
-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북한 유학생들의 미국 입국은 2004년 6명,
2005년 12명, 2006년 4명, 2007년 10명이었고 2008년 1월에는 2명이 미
국행에 성공
- “북한 학생들은 직접 미국에 유학하기는 힘들고 대부분 유럽 등에서 유학
하다가 단기 교환학생 자격으로 입국한다”고 미 국무부 직원이 설명하면서
“북한 유학생들의 토플 성적이 남한 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소개

■ 北, 영통사 복원 南지원 뺀채 “김정일 덕”(6/9,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개성에 있는 천년 고찰인 영통사가 복원된 사실을 전하면서 남
한 불교계의 지원 사실은 빼놓은 채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덕으로
돌림.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황준국, 대북 에너지지원 완료시점 대략 합의(6/12, 연합)

- 황준국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12일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이에 따
라 제공되는 경제·에너지 지원이 완료되는 시점에 대해 “타깃 데이트(목표
시점)를 정확하게 정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
- 황 단장은 브리핑에서 11일 열린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회의’
결과와 관련, “어제 회담이 난항을 겪기는 했지만 실무그룹 차원에서는 대
북 지원의 속도와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합의된 사항을 문서로 정리
했다”고 언급

■ 北외무성, “반테러 의무이행” 성명(6/10, 북한 외무성 성명)

- 북한 외무성은 10일 “정부의 위임에 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일관한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반테러 투쟁에서 존엄 있는 유엔성원국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 것” 이라고 주장

나. 북·미 관계

■ 北외무성, 평양 북미협상 성과적이라고 평가(6/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6월 10~11일 평양에서 열린 북미 협의와 관련해 “협상이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우리의 핵시설 무력화(불능화)를 결속(마무리)하는데 나서는 기술실무적 방도와 그에 따른 정치경제적 보상 완결문제가 토의됐다”고 언급

■ 조선신보, 美대통령에 매케인보다 오바마가 낫다고 평(6/9, 조선신보)

- 북한과 미국 관계를 감안하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공화당 후보가 될 존 매케인 상원의원보다 낫다고 조선신보가 9일 보도, 신문은 “조선반도와의 관계에서 본다면 부시 정권의 잘못을 엄하게 비판하고 조선의 지도자와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공언해 온 오바마가 ‘부시의 아류’ 이자 네오콘의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매케인보다 낫기는 낫다”고 보도
- 신문은 그러나 “설사 매케인이 이겼다 해도 조미관계는 과거에로 되돌려세울 수는 없다”며 누가 당선되더라도 북미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뜻을 내비침.

다. 북·중 관계

■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대표단 방북(6/14, 조선중앙통신)

■ 시진핑, 北과 식량원조문제 협의(6/12, 연합)

- 6월 17~19일부터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방북기간에 북한과 식량원조 문제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중국의 복수 외교소식통들은 12일 “현재 북중 양국의 최대 현안은 바로 중국의 대북식량원조 문제”라며 “시 부주석은 2007년 10월 새로 구성된 중국 공산당 지도부 인사의 자격으로 상견례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지만 이번 방북에서 구체적인 식량원조 규모 및 시기를 북한과 협의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

※ 북중 양국은 일종의 원조협정인 경제과학기술협정의 틀 안에서 매년 식량원조 규모 및 시점을 논의해왔으며 중국 정부는 이에 기초해 2007년까지 매년 10만t에서 15만t에 달하는 원조식량을 북한에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짐.

■ 북·중, 김정일 첫 방중 25주년 맞아 친선 강조(6/12, 조선중앙통신)

- 6월 1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최태복 비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 위원장의 첫 방중 25주년을 기념해 류샤오밍(劉曉明) 주북 대사를 비롯한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친선모임을 개최

- 행사에는 중국측에서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 류홍차이(劉洪才) 대외연락부 부부장을 비롯해 외교부, 철도부,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인민대외우호협회, 인민일보, 신화통신 관계자들이 참석

- 류홍차이 부부장은 김 위원장이 2000년대 들어 중국을 여러 번 방문한 것은 “조선 당과 정부, 인민이 중·조 친선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그를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 김 위원장과 후진타오 주석의 “따뜻한 관심과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중·조관계가 반드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어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큰 복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

■ 北, 中지진피해 복구 성과 소개(6/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중국 쓰촨(四川)성 대지진 100일을 맞아 베이징발로 지진피해 복구 성과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나타냄. 통신은 중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인용, 신속히 보도

라. 북·러 관계

■ 러시아 국경절 기념 해방탑 헌화(6/12, 조선중앙통신)

- 발레리 수히닌 대사를 비롯한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이 12일 러시아 국경절을 맞아 해방탑과 소련군 열사들의 묘에 화환을 진정

■ 러시아 파트니츠키 국립아카데미 민속합창단, 12일 평양에 도착(6/12, 조선중앙통신)

마. 북·일 관계

■ 조선신보, 북·일 합의 '대화지속' 평가(6/13,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3일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그룹회의에서 '납치문제 재조사와 대북제재 부분해제'에 합의한 것과 관련, 향후 쌍방 간 "대화 지속"이라는 의미를 평가
- 조선신보는 "이번 회담에서 쌍방이 논의한 문제의 본질은 조(북)·일 쌍방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외교적 목표의 설정"이라며 "공동의 과제를 정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야 미해결의 문제들도 풀릴 수 있다"고 말해 납치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는 북한과 일본간의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
- 신문은 "후쿠다 정권 출범 후 조·일간에 공식회담이 열린 것은 처음"이라며 "후쿠다 총리에게 당연히 이번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합의 이행의 책임이 후쿠다 총리에게 있음을 강조

■ 조선신보, 北, 요도호 사건은 日 내부 문제(6/13, 조선신보)

- 요도호 납치범의 귀국문제는 일본인 적군파 구성원과 일본 정부 간에 해결해야 할 "일본 내부의 문제"라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고 조선신보가 13일 강조
- 신문은 '요도호는 일본의 내부문제' 제목의 베이징발 기사에서 "요도호 관계자들의 귀국문제와 관련하여 조선(북)은 그것이 당사자들 자체가 결심할 문제라는 입장을 거듭 표명해 왔다"며 2004년 발표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인용, "일본 측이 그들과 만나 필요한 실무협의 절차를 거쳐 이들을 데려간다면 요도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게 될 것"이라고 보도

■ 北, 日과 결실맺는 회담 준비(6/11, 조선신보)

- 북한은 11~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결실”을 맺기 위해 준비를 해왔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조선(북) 측도 오랜만에 열린 일본과의 공식회담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만나서 대화할 바에는 결실을 맺어야 옳다는 관점에서 회담의 준비도 갖추었다”고 보도

■ 北·日, 국교정상화 실무회의 시작(6/11, 연합)

- 북한과 일본은 중국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의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그룹 공식회의를 열어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일 관계개선 문제 등의 논의에 착수
- 북핵 6자회담의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齋木昭隆)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한의 송일호 조일국교정상화 담당대사는 11일 오후 4시께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공식 실무회의에 들어감.

바. 기타 외교 관계

■ 스위스, 대북 농업지원 확대 희망(6/14, 미국의소리방송)

- 스위스 정부가 2008년 북한과 개발협력 사업에 380만달러(약 39억6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향후 대북 농업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스위스연방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처(SDC)의 카트리나 젤웨거 북한 담당관이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언급
- 젤웨거 담당관은 영농기술 전수를 위해 북한 농업성, 국토환경보호성, 농업과학원 등과 협력하고 황해북도, 함경남도, 량강도, 평양의 협동농장, 종자생산 농장, 농업 연구소에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며 “이같은 기술 전수 프로그램은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스위스 SDC는 이 사업들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언급
- ※ 스위스 SDC는 평양에서 소규모 비즈니스 스쿨을 운영하는 동시에 매년 100명 정도의 북한 관리를 스위스, 쿠바, 중국 등지로 해외연수를 보내 시장경제를 접할 기회를 제공

■ 유럽 구호단체 대북 식량지원 활발(6/1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구호단체인 '도르가 국제지원'은 이번 주부터 북한 중부지역의 어린이 1천700명에게 하루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하며 옥수수과 야채가 들어간 영양편빵을 1년 동안 공급할 것이라고 밝힘.
- 또 2005년 북한 당국에 의해 활동 중단을 요구받고 철수했던 스웨덴 구호단체 '피엠유 인터라이프(PMU Interlife)'도 조만간 125만달러 상당의 대북 식량지원 사업을 재개할 계획, 피엠유 인터라이프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스웨덴 국제개발처(SIDA)는 앞으로 2년 간 평안북도과 황해남도 주민에 식용옥수수를 제공하고 농기계 관련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

■ 중앙재판소 대표단(단장: 윤명국 제1부소장) 라오스 방문차 평양 출발(6/12, 조선중앙방송)

■ 파키스탄 대사관과 친선모임(6/12, 조선중앙통신)

- 파키스탄과 문화협조협정 체결 35주년을 맞아 파키스탄 대사관 관계자들과 친선모임이 6월 9일 대성제1중학교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독일, 매년 北 학자·대학생에 장학금 지급(6/12, 자유아시아방송)

- 독일 정부는 해마다 4~6명의 북한 학자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자국의 학자를 북한에 보내는 등 양국 간 학술교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 보도
- 방송에 따르면 정부기관인 독일 학술교류처(DAAD)가 제공한 장학금으로 현재 독일의 대학이나 고등연구기관에서 공부하는 북한 유학생은 박사과정생 14명이 있으며 이들 중 4명은 1년 이상의 장기 장학금을, 10명은 3개월짜리 단기 장학금을 각각 받고 있음. 이 가운데 2명은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연구과제를 수행 중임.

■ 유엔, 北 식량난 현장조사 실시(6/12, 미국의소리방송)

-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유엔 공동실사단이 11일부터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

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 유엔 팀은 함경도와 량강도 등 8개 지역의 53개 군, 560개 가구를 대상으로 앞으로 2주에 걸쳐 식량 사정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리즈릴 대변인이 언급

- 리즐리 대변인은 또 "이미 수요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비정부기구 들은 평안도와 자강도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두 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량배분 지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할 것이라고 밝힘. 미국의 머시코, 월드비전, 사마리탄스 퍼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등 4개 민간 구호단체는 6월 4일부터 평안도와 자강도에서 현장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노동당 유럽방문단 귀환(6/10, 조선중앙방송)

- 김태종 당 중앙위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이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등지를 방문하고 10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주북 팔레스타인 대사관 직원, '친선노동'에 참여(6/10, 조선중앙방송)

- 무하마드 샤흐타 조로브 대사를 포함한 주북 팔레스타인 대사관 관계자들이 10일 평양 사동구역의 오류협동농장에서 농사일을 돕는 '친선노동'에 참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3 대남정세

가. 대남 보도

■ '쇠고기 촛불집회' 지지 담화 발표 및 신속 보도(6/11,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조선신보)

- 조선민주여성동맹은 13일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담화를 내고 "각 계층이 참가하고 있는 정권 반대투쟁은 단순히 쇠고기 시장 개방만을 반대하는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반인민적, 반민족적 정책 전반에 대한 저주와 분노의 폭발"이라며 "남조선 정부가 북·남 관계를 대미관계의 종속물로 전락시키며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도 10일 담화를 통해 “남조선 각 계층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연대성을 보낸다”고 했으며, 조선직업총동맹 대변인은 “촛불집회는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애국투쟁”이라고 주장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7일 담화에서 “최후의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전민항쟁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지퍼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
- 보통 납축 소식을 전할 때 상당한 시차를 두는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촛불집회 내용을 바로 다음날 오전에 보도,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은 지난 11일, 전날의 ‘6·10 촛불집회’ 소식을 보도하면서 경찰이 광화문 일대에 설치한 컨테이너 장벽에 대해 상세히 보도
- 조선신보는 촛불집회 소식을 전하며 “(새 정부가) 100일 만에 버림받고 위기에 빠진 것은 정권 사상 처음”이라며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투쟁이자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책동에 대한 분노의 분출”이라고 주장

나. 남북 교류

■ 北주민 2명, 서해상 통해 귀순(6/15, 연합)

- 북한 주민 2명이 15일 오전 소형 선박을 타고 서해를 통해 귀순의사를 표시, 해양경찰청은 15일 오전 6~7시께 서해 소청도 앞 해상에서 북한 선적 전마선 1척이 귀순의사를 표시해와 1차 조사를 벌인 뒤 인천항으로 예인함. 북한주민은 남자 1명과 여자 1명으로 해경청은 “이들 주민은 북한에서 같은 마을에 살며 꽃게잡이를 하는 어민”이라고 언급

■ 6·15민족통일대회 환영만찬 개최(6/15, 연합)

- 6·15민족통일대회 환영만찬이 15일 오후 7시 30분 금강산호텔 연회장에서 남북 및 해외대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 북측 대표인 안경호 위원장은 “3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북·남·해외 정당 인사들을 망라하는 통일운동 연대세력인 6·15민족공동위원회가 구성됐다”며 “6·15민족공동위원회 결성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을 자주의 단계로 승화시켰으며 이런 의미에서 금강산은 민족통일의 성지로 그 이름이 빛나고 있다”고 건배사를 함.

■ 통일부, 6·15행사에 6명 방북 불허(6/14, 연합)

- 통일부가 15~16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을 신청한 260여명 가운데 6명의 방북을 불허
- 방북 불허 대상자는 이적단체 구성원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뒤 법무부의 보안관찰을 받고 있는 피보안관찰자들로,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北, 6·15행사에 南기자 1명 방북 불허(6/13, 연합)

- 북한은 13일 6·15 공동선언 채택 8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행사(6.15~16, 금강산) 취재진에 포함된 남측 기자 1명의 방북을 불허, 통일부에 따르면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는 이날 남측위원회 앞으로 보낸 전문에서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NK' 취재 기자에 대해 "초청장이 잘못 발급됐으므로 초청을 취소한다"며 "금강산에 들어오지 않도록 긴급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
- 북한은 12일 데일리 NK 기사를 포함, 이 행사 참석 차 방북을 신청한 남측 인사 280여명 전원에 대해 초청장을 발급한 바 있음.

■ 남북기금 지원, NGO에 분배투명성 입증책임(6/11, 연합)

-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을 받은 민간 대북지원 단체는 지원 물품에 대한 분배 투명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의무를 갖게됨. 통일부는 민간 대북지원 단체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발표
- 개정안은 현재 전체 사업비의 70%인 대북지원 사업 관련 기금지원 한도를 50%로 축소 조정하고 아울러 대북지원 물품의 구입 및 수송, 공사 등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 포함)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명시

■ 정부, 민간 대북지원 합동사업에 40억원 지원 (6/11, 연합)

- 통일부는 올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합동사업에 4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1일 발표, 통일부는 이를 위해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 기금지원 신청 공고를 내는 한편 83개 대북지원사업자

단체에 개별 통보해 26~27일 지원신청을 접수할 예정임.

- 지원 대상은 대북 의료지원, 산림녹화 등 규모가 커 여러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총 40억원 범위 내에서 3개 사업에 지원될 예정임.

■ 남북, 개성서 월드컵예선경기 실무협의를(6/9, 통일부)

-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대회' 아시아 지역예선 남북전(2차전) 진행을 위한 실무접촉이 10일 개성에서 열린다고 통일부가 9일 발표

6.16-6.22

6월
3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訪北 시진핑 中부주석 면담(6/18,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18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고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인 시진핑 동지와 그의 일행을 접견하셨다”고 보도
- 방송은 시 부주석이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구두친서를 전했다고 보도했으나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음. 면담에는 북측에서 6자회담을 지휘하고 있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오랜 기간 노동당 국제부장으로 활동한 ‘중국통’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참석하고 중국측에서는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배석

■ 김정일, 잇단 경제부문 시찰(6/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 신의주에 있는 ‘9월제철종합기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 김 위원장은 6월 13~14일 평안북도 대계도간석지 건설장,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북중기계연합기업소 등을 잇달아 방문
- 김 위원장의 시찰에는 김평해 노동당 평북도위원회 책임비서가 동행

나. 정치 관련

■ 北, 南 ‘3통합의’ 미이행으로 금강산·개성사업 위기 주장(6/22, 대변인 담화)

- 북한은 22일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남측의 현 정부가 작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통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에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
- 대변인은 담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10·4 선언에 따른 모든 남북합의 이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난하고 “대결책동은 개성·금강산 지구의 협력교류와 직접 연관된 통신, 통행, 통관의 3통합의 이행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반 년이 가까워오도록 어느 합의사항도 제대

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보수적인 괴뢰 군부집단을 내세워 의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발표

- 그는 3통 합의와 관련, “지난해 10월 북남 수뇌상봉(정상회담) 때 남측이 제기한 요청을 받아들여 우리 군대가 동포애의 심정으로 대범하게 성사시켜 준 민족공동의 서약”이라며 ▲통행시간 오후 10시로 확대 ▲통관절차 간소화 ▲유무선 통신 확대 및 인터넷 허용 등의 합의사항을 지적
- 이어 “괴뢰군부는 3통의 전반적인 이행을 차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성·금강산 지구에서의 협력교류사업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북남 군(軍) 통신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2월 중순까지 노폐화(노후화)된 군 통신의 정상 운영대책을 먼저 세울 것이라고 담보한 문제도 현신썩처럼 던져버리고 있다”고 주장
- 특히 대변인은 “우리 군대는 개성·금강산 지구에서의 협력교류사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3통합의 이행마저 중단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이 지구들에서의 협력교류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따라세워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 이 사업의 중단 가능성을 경고
-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민족의 공리공영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군대가 군사분계선을 터치고 군사적 요충지를 통째로 내놓는 대범한 조치를 위해준 것”이라고 설명

■ 北, 북남관계 6·15이후 최악 위기 주장(6/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남조선(남한) 호전 정권이 무분별한 군사적 대결 소동에 매달리고 있다”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파괴되고,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6·15 이후 최악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
- 노동신문은 이날 ‘군사적 우세론은 반민족적인 대결 전쟁론’ 제하의 개인 필명 논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군사적 우세론”을 내세워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거 북남 대결시대의 괴뢰 집권자들이 동족을 화해와 단합의 상대가 아니라 ‘주적’으로 대하고 적대시하면서 떠들어대던 북침전쟁론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비난
- 또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는 군사적 대결과 전쟁의 조건이 될 수 없다”면서 “북남 대결시대의 낡은 논리와 자막대기를 가지고 북

남관계를 대한다면 어차피 대결을 격화시키게 되며, 전쟁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신문은 주장

■ 北, 美무역 자유화는 기만(6/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무역 자유화 광고는 기만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서방 열강들은 “전 세계적인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관세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면서 발전도상 나라들이 실시하고 있는 무역규제 조치들에 대해 기를 쓰고 반대”해 왔다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北 쌀값 하락...청진·홍남 옥수수 배급(6/20,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에서 5월 1kg에 4천500원(북한돈)까지 치솟았던 쌀값이 6월 들어 2천원 대로 떨어졌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20일 소식지를 통해 주장
- 소식지는 6월 10일 현재 함경북도 회령, 청진과 강원도 원산, 평안북도 신의주, 자강도 강계, 평안남도 강서, 황해남도 해주 등지에서 쌀값이 2천 500원에서 2천700원대로 떨어졌으며 “이는 쌀값이 치솟자 국경지역의 밀수가 활발해진데다 중국 정부로부터 10만t의 (곡물) 수출허가를 받게 되면서 식량 수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아울러 미국으로부터 식량지원 소식이 퍼진 것도 곡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
- 그러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식량 가격이 2007년의 3배 이상이라 돈이 없는 주민들은 사먹기 힘들어 한다”며 “전반적으로 돈이 없는 농촌지역에서는 곡물가격 하락과 상관없이 아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소식지는 주장

■ 北탄광 수해복구 마무리, 석탄증산 독려(6/19,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 2007년 여름 수해로 탄광들이 대거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던 북한이 복구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 짓고 ‘석탄 증산’을 독려, 조선중앙방송은 석탄공업성의 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각지 탄광들에서 침수 갱 복구를 위한 투쟁을 활발히 벌이는 과정에 처리된 물량은 170만m³에 달한다면서 이는 “수십만의 석탄을 캐낼 수 있는 담보”이며 “한 개의 대규모 탄

광에서 1년 간 생산할 수 있는 석탄량과 맞먹는 탄량이 마련된 것”이라고 보도

- 조선신보도 최근 “전국의 탄광들에서 증산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평안남도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의 사례를 소개

■ 北내부자료, 식량문제 심각성 실토(6/18, 좋은벗들 소식지)

- 봄 농사철 ‘총공격전’에 들어가면서 ‘모두 다 올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서자’라는 제목의 농업실태와 관련한 ‘강연제강(강연자료)’을 하달해 “오늘 식량 문제를 푸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 고수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식량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고 ‘좋은벗들’이 18일 보도

■ 북한전역, 모내기 완료(6/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전역의 이모작 앞그루(전작) 및 모판 지대를 제외한 경작지에서 모내기를 끝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경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6/18, 연합: 한국은행)

- 한국은행은 18일 ‘2007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를 발표,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작년에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 또 북한의 2007년 경제규모는 남한의 36분의 1로 2006년(35분의 1)에 비해 남북한간 격차가 다소 확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7분의 1로 2006년과 같음.

■ ‘경제강국’ 건설 매진 촉구(6/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경제강국 건설은 오늘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先軍)정치를 토대로 ‘경제강국’ 건설에 매진할 것을 촉구
- 신문은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 부문에서 기술 개진(개선)과 생산적 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며 농업과 경공업 발전에 큰 힘을 넣어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며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한 ‘인민생활 제일주의’를 거듭 강조

■ 北, 17~20일 싱가포르 IT박람회 참관단 파견(6/17, 조선신보)

- 북한이 17~20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2008 국제정보통신박람회'에 참관단을 파견한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라. 군사 관련

■ 北경비정 1척 한때 NLL 침범(6/22, 국방부)

- 북한 경비정 1척이 22일 오전 11시27분부터 약 30여 분간 서해 백령도 북쪽 북방한계선(NLL)을 2마일 가량 침범했다고 합참이 발표, 합참은 “북한 경비정이 NLL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NLL을 침범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경비정은 우리 해군의 경고성 무선 통신을 받고 북쪽으로 돌아갔다”고 발표, 올해 들어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것은 이번을 포함, 모두 6차례임.

■ 美 군사도발에 만반의 대응태세(6/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미군의 주한 전방전투지휘소(OCPK) 설치 계획과 태평양 상공 미사일 요격실험을 비난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 호전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 책동을 높은 각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주시하며 만단(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

■ 北, 한·미 연합공군훈련 비난(6/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한·미 연합·합동 공군훈련이 16~20일 처음으로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것과 관련해 평화 실현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

마. 사회·문화 관련

■ 스포츠 도서, 올림픽 특수 인기몰이(6/22,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22일 “체육출판사에서 최근에 출판한 체육과학 기술과 상식도서들이 체육인과 근로자, 청소년·학생들 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

■ ‘혈액과 헌혈’ 도서 출판(6/22, 조선신보)

- 6월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열었던 북한이 국제기구 협조를 받아 최근 ‘혈액과 급혈(헌혈)’이라는 도서를 출판해 주민들에게 헌혈의 중요성을 홍보,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 의과학출판사가 발행한 이 도서에는 혈액의 기능과 역할, 혈액형의 분류, 수혈과 헌혈의 의미, 수혈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 캐나다 풍력에너지대회 참가(6/21, 조선신보)

- 북한이 풍력에너지 분야의 국제 교류·협조 확대를 위해 6월 24~26일 캐나다 킹스턴에서 개최되는 제7차 세계풍력에너지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리강진(35) PIINTEC 부부장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이번 대회에서 조선은 최근 풍력에너지(에너지) 개발이용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통보하고 이 분야에서 국제기구와 각국의 풍력관련 단체들과 교류·협조를 가일층 발전시켜 나갈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

■ ‘태권도 명가’ 황해북도선수단(6/20, 조선중앙통신)

- 황해북도 태권도선수단이 발족된 후 10년 동안 대내 경기에서 210여 개의 금메달을 따내는 등 훌륭한 선수와 감독을 배출한 ‘실력있는 팀’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소개

■ 국제복싱연맹, 평양서 기술 강습(6/19, 조선중앙통신)

- 국제복싱연맹(IBF)이 최근 평양체육관에서 북한의 권투감독과 전문가, 청소년체육학교 지도교원, 각 도(道) 체육기술협회 간부 등을 대상으로 기술 강습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AI 발생 외신보도는 거짓말(6/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함경남도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는 한 외신의 보도내용에 대해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라고 보도,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AP통신이 조선(북)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였다는 허위보도를 날렸다”며 “내각에서 현지의 수의방역기관들을 통해 직접 알아본 데 의

하면 이 지역에서 새나 가금류들이 죽거나 사람이 사망한 것이 전혀 없고 역학상태가 매우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

■ 아리랑공연 안내통역원, 2~3개 외국어 통역(6/19, 조선신보)

- 북한이 8월 초 공연에 들어가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기 위해 방북하는 외국인들을 안내할 여성 통역원 확충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들은 “2~3개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아리랑공연 담당 여행사 직원은 “안내통역원들은 주로 20살부터 25살의 여성들이 맡아한다”면서 “이들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 외국어대학 등을 졸업한 외국어 능력의 소유자들로, 보통 2~3개의 외국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언급

■ 세계기상기구에 첨단장비 지원 요청(6/19,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 담당자인 토키요시 토야 박사는 자유아시아 방송(RFA)과 회견을 통해 북한이 여름 홍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악천후에도 쉽게 고장 나지 않는 최신 기상관측 기계와 북한 전역에서 관측된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설비 등 첨단장비를 요청했다고 밝힘.
- 토야 박사는 또 북한이 요청한 기상장비 목록에는 WMO가 올해 초 중국으로부터 기부받아 북한에 제공한 최신 위성영상 수신시스템을 지원하는 보완장비도 포함돼 있다면서 “WMO는 북한이 요청한 장비를 어떻게 지원할지 알아보고 있다”고 언급

■ 중학생 거리밴드 인기(6/17, 조선신보)

- 평양 평천구역의 봉지중학교(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30인조 경음악단이 시민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음. 조선신보는 “평양에 경음악을 잘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봉지중학교는 작년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 관현악 부문에서 1등을 했다”며 “이 학교의 경음악 소조(동아리)는 국가적 명절과 기념일, 여러 계기에 시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경음악 공연을 펼쳐 관중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고 소개
- 이러한 재능을 갖춘 경음악 소조원들은 학교 졸업 후 국립민족예술단, 피바

다가극단을 비롯한 전문예술단체에 많이 선발되고 있으며 “소조 운영에 대한 학부형의 관심과 열성도 지극하다”며 “학부형들은 가정과 사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자기 자식들을 위해 물심양면의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덧붙임.

■ 北강계 낮 최고 36도, 이상고온(6/16, 조선중앙TV)

- 한반도 북단인 자강도 강계가 36.1도를 기록하고 평안북도 구장의 수은주는 36.9도까지 치솟는 등 16일 북한 일부 지역에서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났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

■ 北, 헌혈자·혈액 확보에 주력(6/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헌혈자 모집과 혈액 확보를 “국가의 중요 보건시책”으로 삼고 이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은 북한 보건성과 세계보건기구(WHO),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맹이 이날 ‘세계 헌혈의 날’(6.14)을 맞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면서 “조선(북한)에서는 자원 무보상 급혈자(헌혈자) 대열을 늘리기 위한 활동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6자회담 프로세스 재개 가시화(6/22, 연합)

-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일 6자회담 일정과 관련,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하며 신고서 제출과 거의 동시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빼기 위한 조치(의회통보)를 비롯한 미국의 정치적 상응조치가 뒤따른다고 소개
- 신고서 제출 시기와 관련, “구체적 일자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조만간 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혀 주중에도 가능할 것임을 시사, 북한은 이어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 착수와 비핵화 2단계의 사실상 마무리를 상징

적으로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이벤트인 북한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행사를 신고서 제출 후 하루 이틀 내에 진행할 예정

- 김 본부장은 6자 수석대표 회담 의제에 언급, “신고서 내용을 평가하고 어떻게 완전성과 정확성을 검증하느냐 하는 검증 방법을 협의하게 될 것”이며 “비핵화 2단계 마무리와 관련, 사용 후 연료봉 인출 속도를 가속화하고 남은 조치로서의 미사용 연료봉 처리 문제도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
- 아울러 김 본부장은 이런 조치 후 6자 외교장관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7월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北, 냉각탑폭파 5개국 언론사 초청(6/22, 연합)

- 북한은 조만간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난 뒤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기로 했으며 그 장면을 전세계에 중계하기 위해 6자회담 참가 5개국 언론사를 초청했다고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2일 발표
- 김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냉각탑 폭파 취재를 목적으로 5개국에서 각 1개 언론사를 상대로 방북을 초청했다”면서 “미국은 CNN이 초청됐으며 우리는 한 방송사가 초청됐다. 북한측이 6자회담 채널로 연락을 했으며 해당 방송사에 알려줬다”고 언급, 그는 또 “(냉각탑 폭파) 시기도 명시가 됐다”며 “취재 수락여부는 그 방송사가 결정할 일”이라고 언급
- 김 본부장은 이어 “오늘(22일) 중국을 방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과 만날 예정”이라고 발표

나. 북·미 관계

■ 美, 대북 해상봉쇄 기도(6/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새로운 국제해협 질서를 세우는 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미국은 세계 주요 해협들을 통제 밑에 두고 해상수송과 무역, 군사작전 등에 이용해 왔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해협봉쇄책동에서 특히 위험한 것은 우리 나라(북)에 대한 집단적 군사봉쇄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

■ 美, 北교향악단 방미공연에 긍정적(6/20,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정부가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공연성사여부가 주목,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방미 공연을 추진하고 있는 워싱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용진 회장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국무부에서는 일단 회의를 거쳐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다”며 “(국무부측에서는) 만약 워싱턴 공연이 어렵다면 리치먼드나 볼티모어 등 워싱턴 외곽 지역에서 공연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자고 했다”고 선언
- 워싱턴 민주평통은 북한 유엔 대표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워싱턴 공연을 지난 2월 뉴욕필 교향악단의 평양 연주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추진

■ 北, 라이스 미국무 방북 초청(6/19, 마이니치신문)

- 북핵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지난달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의 회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북을 요청했다고 일본 마이니치(毎日)신문이 보도

■ 北, 美대선 흑백대결로 더욱 첨예해질 것(6/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미국 민주당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대선 레이스를 이같이 ‘금권선거’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매도하면서 나름대로 ‘관전평’을 내놓음.
- 신문은 ‘월계관을 쟁탈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에서 다음 기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선거 경쟁이 날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후보 경쟁을 “열기띤 승벽내기”로 표현, 북한에서 ‘승벽내기’는 ‘남과 겨뤄 지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일’을 뜻함.
- 노동신문은 오바마와 매케인 후보를 각각 “하버드종합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흑인”, “미 해군 비행사 출신의 강경파”로 소개하고 양측이 “이라크 문제와 경제문제 등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을 뿐 대북 정책이나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다. 북·중 관계

■ 北직총 대표단 중국방문(6/21,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중국을 방문하는 김성철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직총 대표단이 21일 평양을 출발

■ 중국민항대표단과 교통운수부 대표단,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대표단 귀환(6/19, 조선중앙통신)

■ 中시진핑, 김정일에 “방문성과 만족” 감사전문(6/19, 조선중앙통신)

- 6월 1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감사 전문을 보내 “이번 방문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시진핑 부주석은 평양을 떠나면서 김정일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양형섭 부위원장 앞으로 보낸 전문에서 이번 방북기간 “쌍방은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더욱 깊이하였으며 두 나라 사이의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촉진시켰다”고 언급

■ 中시진핑, 방북 일정마치고 평양 출발(6/19, 조선중앙통신)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19일 북한의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의 전송을 받으며 평양을 떠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시 부주석과 주즈신(朱之暉<金밑에 金 2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장예쑤이(張業遂) 외교부 부부장, 류홍차이(劉洪才) 대외연락부 부부장,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 부부장, 스즈홍(施芝鴻) 중국공산당 중앙위 정책연구실 부주임 등이 비행기편으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
- 시 부주석은 방북 기간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각각 만났으며 양형섭 부위원장과 회담을 가졌음.

■ 北·中, 황해북도 용진철광 공동개발(6/18, 연합)

- 중국의 복수 대북 소식통들은 18일 “중국 굴지의 마그네사이트 가공회사인

S그룹이 북한과 공동으로 서해합영회사를 설립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웅진군 장송리에 위치한 웅진철광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언, 양측이 설립한 서해합영회사는 자본금 규모가 3천600만유로(약 570억원)로 1차로 철광개발에 주력하고 향후 1만5천kW급 화력발전소, 전용항만, 제철소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

■ 로두철, 민항총국 대표단 면담(6/17, 조선중앙통신)

- 로두철 내각 부총리가 1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리자샹(李家祥) 국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 민항총국 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

라. 북·러 관계

■ 러시아 민속합창단 합흥 공연(6/22,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북한을 방문 중인 러시아 국립아카데미 민속합창단의 공연이 21일 함흥대극장에서 진행, 합창단은 합창과 무용, 기악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으며, 김풍기 함경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김규빈 함경남도당위원회 비서, 문화예술부문 창작가·예술인들, 대학 교원·학생들이 공연을 관람

■ 러시아, 北에 WFP통해 식량원조(6/18, 러시아외교부)

- 러시아 비상기획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인 식량 구호물자 지원에 나섰다”고 러시아 외교부가 18일 발표, 외교부는 “밀가루 2천860t이 6월 11일부터 북한으로 운송이 시작했으며 WFP를 통해 밀가루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언급

■ 고창협동농장에서 농사지원 및 영농물자 전달(6/17, 조선중앙통신)

- 발레리 수히닌 대사를 포함한 주북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이 평안남도 천리마군의 북·러 친선 고창협동농장에서 농사를 돕고 영농물자를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마. 북·일 관계

■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 방북(6/22, 조선중앙통신)

- 최인태 이바라키(茨城) 조선초중고급학교 교장과 김운선 교토(京都) 조선중고급학교 교장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 일행이 22일 평양 만수대를 찾아 김일성 동상에 참배

■ 北, 日과거청산 용단 촉구(6/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 강점기 조선인 강제 연행 등 “과거 죄악”을 씻는 것이 국제적 고립을 면할 수 있는 길이라며 과거청산을 거듭 촉구
- 신문은 이날 ‘과거청산 용단을 내려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세기를 넘겨오며 과거 우리나라에 대한 비법적인 군사적 강점시기 저지른 특대형 반인륜적 죄악에 대해 성근하게(성실하고 공손하게) 인정,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끈질기게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

바. 기타 외교 관계

■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의원대표단 방북(6/21, 조선중앙방송·평양방송)

- 오스트리아 출신의 후버트 피르커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 담당 분과대표단이 21일 평양에 도착, 비행장에는 리종혁 조선·유럽 연합 친선의원단 위원장 등이 대표단을 환영

■ 교향악단·공훈합창단 음악회 감상(6/20, 조선중앙통신)

- 국립교향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음악회가 20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음악회에는 평양 주재 외교관과 대사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 북한 체류 외국인 등이 초대받음.

■ 영국 여왕 생일 기념 연회 개최(6/20, 조선중앙통신)

- 존 에버라드 주북 영국 대사가 19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82회 생일에 즈음해 연회를 마련, 연회에는 궁석웅 외무성 부상, 한 철 문화성 부상, 홍선옥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초대

■ 北·라오스 공동 공보委 구성 합의(6/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공보위원회와 라오스 공보·문화부가 6월 18일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에서 공동 공보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를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
- 조인식에는 북한 측에서 문화상인 강능수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공보위원회 대표단과 라오스 주재 북한대사 등이, 라오스 측에서는 문깨오 올라분 공보·문화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각각 참석

■ 이탈리아, 北식량난 50만 유로 지원(6/20, 미국의소리방송)

- 이탈리아 정부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을 돕기 위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50만 유로(미화 77만 달러, 약 7억9천여만원)를 제공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 이탈리아 외무부 산하 협력개발국 긴급지원 부서의 비비아나 와그너씨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위해 지난 17일 WFP에 현금 50만 유로를 기부했다”고 언급, 그는 또 “이번에 지원된 50만 유로와는 별개로 2007년 이탈리아 정부가 WFP에 기부를 약속한 100만 유로 상당의 밀 1천300t이 현재 북한을 향하고 있다”며 6월 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 리비아 北주재원들 친선노동(6/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주재 리비아 경제협조사무소 대표와 사무소 관계자들이 18일 평양시 사동구역에 있는 북한·리비아 친선 장천협동농장에서 친선노동을 실시

■ 北김영남, 英여왕에 생일 축전(6/17,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7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82회 생일을 맞아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 북한과 영국은 2000년 12월 수교했으며, 김 상임위원장은 2001년부터 해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생일 축전을 보내고 있음.

■ 英축구협회, 北에 운동복 기증(6/1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7일 “영국축구협회가 주북 영국대사관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에 축구운동복을 기증했다”며 “축구운동복은 팬츠, 락

복(트레이닝복), 바지를 비롯해 5종 600여벌”이라고 전언

- 6월 12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된 기증식에서 존 에버라드 주북 영국 대사는 “영국축구협회의 명의로 된 축구운동복을 조선(북)축구협회에 기증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

■ 보츠와나 대사에 안희정 접임(6/16, 조선중앙방송)

- 북한 안희정 대사가 6월 6일 보츠와나의 이안 카마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6일 보도, 안 대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미비아, 잠비아 대사도 겸직 중

3 대남정세

■ 5월 남북교역 작년 동기 대비 14%증가(6/22, 통일부)

- 5월 남북간 교역액이 2007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통일부에 따르면 5월 남북교역액은 1억7천272만4천달러로 2007년 5월 1억5천192만9천달러에 비해 13.7%, 올 4월 1억4천424만8천달러에 비해 19.7% 각각 증가
- 이 기간 상업적 거래는 1억5천313만달러로 작년 같은 시기 1억482만6천달러에 비해 4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등 경제협사업 관련 교역액이 8천945만4천달러를 기록, 작년 5월 4천86만8천달러의 배(118.9% 증가)가 넘어섬.
- 반면 비상업적 거래는 1천959만4천달러로 작년 5월 4천710만3천달러에 비해 58.4% 감소했으며 특히 민간지원을 포함한 대북 지원액은 836만6천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4천643만8천달러의 약 1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 5월 중 금강산 및 개성 관광객은 5만6천957명으로 전 달의 4만9천641명에 비해 14.7% 증가했으며 작년 5월 3만2천641명에 비해서는 무려 74.5% 늘어난 것으로 파악

■ 北축구 대표팀 도착(6/20, 연합뉴스)

-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최종전(22일 오후 8

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남북대결을 펼치는 북한 축구대표팀이 19일 한국에 도착

- 김정훈 감독이 이끄는 북한 대표팀은 19일 오후 9시 45분 중국항공편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대표팀은 간판 공격수인 '아시아 루니' 정대세(가와사키)와 요르단과 홈·원정에서 혼자 세 골을 사냥했던 홍영조(베르니 아 베오그라드) 등 주전급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적응훈련을 치르며 22일 열리는 남북대결을 준비

■ 금강산 면세점, 매출 신장(6/20, 연합뉴스)

- 금강산 면세점이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물품으로 남측 관광객에게 폭발적인 인기, 20일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금강산 온정각에 위치한 동관 면세점의 매출은 2007년에 월 평균 140만달러였는데 올해 들어 280만달러로 배 이상 증가

■ 북녘에 교과서용 종이 보내기 모금 운동(6/19, 연합뉴스)

- 우리겨레하나되기 전북운동본부는 19일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북녘 교과서용 종이지원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개최, 전북겨레하나는 2006년 2억 6천여만원, 2007년 2억9천여만원의 성금을 모아 교과서용 종이 총 700t을 구입해 북한에 보냄.

■ 금강산관광지구 안전점검 19~21일 실시(6/19, 통일부)

- 통일부는 19일 "남측 전문가 7명이 19~21일 금강산 관광지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며 "이번 점검에서는 관광지구 내 도로와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 금강산 관광지구 안전점검은 올해 들어 두번째 이뤄지는 것으로, 예년에는 통일부 등 정부 당국자들이 합동으로 점검에 참여했으나 올해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국자를 제외한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현대아산 관계자 등 전문가 7명만이 참여
- 정부는 또 금강산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일년에 상·하반기 각 1번씩 실시하던 안전점검을 필요할 경우 추가로 진행할 방침

■ 美한인선교회, 北라진에 종합병원 설립(6/19, 미국의소리방송)

- 미국의 한인 기독교 선교단체인 '만나선교회'가 함경북도 라진에 신흥종합 병원을 설립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 VOA에 따르면 6월 10일 개업한 이 병원은 환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에 컴퓨터 단층촬영기 등 첨단 진료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상주 의사 대부분은 미국에서 은퇴한 한국계 의사들로, 2~3개월씩 라진에 머무르면서 의료봉사를 할 계획이며 북한 의료진에 의술도 전수할 예정

■ 굿네이버스, 北에 1억상당 식량지원(6/18, 연합)

- 국제구호단체인 굿네이버스(회장 이일하)는 18일 오전 각계 인사 14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김포공항에서 평양행 직항편을 통해 3박 4일 일정으로 방북했으며, 북측에 1억원 상당의 식량 물자를 지원한다고 발표
- 방북 대표단은 굿네이버스와 구세군, 한국건강관리협회, 홀트아동복지회, 후원자 및 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나라당 이병석(李秉錫) 의원과 김충환(金忠環) 의원도 대표단 일원으로 방북 길에 오름. 이들은 방북 기간 평안남도 남포시의 와우도병원 준공식에 참석하는 한편 굿네이버스가 2005년부터 건축물자를 지원해 신축한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의 편의시설과 탁아소, 마을회관, 유치원 등 인도적 지원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

■ 北, 6·15 존중시 과거불문 협력은 '김정일 뜻' (6/18, 연합)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인사가 6월 16일 금강산 남북공동행사 폐막식에서 6·15, 10·4선언을 실천하려는 사람과는 과거를 불문하고 협력하겠다는 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이라고 강조했던 것으로 확인됐음.
- 방북단에 포함됐던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18일 “김경옥 6·15북측위 여성분과위 부위원장이 폐막식 대표연설에서 ‘과거에는 비록 민족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왔어도 오늘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하려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조국통일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러한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언

■ 통일부, 북한인력개발 종합계획 수립 추진(6/18, 연합)

- 통일부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북한인력개발 종합계획'을 수립,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가속화되는 시기에 대비해 북한 인력에 대한 경제 및 기술 교육 등을 담은 '북한인력개발 종합계획'을 세울 계획"이라고 발표

■ 올해 '8·15행사' 남북 각각 개최(6/16, 연합)

- 금강산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8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한 남·북·해외측 공동위원장들은 16일, 올해 8·15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지 않고 각자 별도로 치르기로 결정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6.23-6.29

6월
4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일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방북 리 합창단 공연 관람(6/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북 중인 러시아 국립아카데미 민속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알렉산드라 베르마코바 합창단 단장과 발레리 수히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의 영접을 받으며 극장에 도착해 합창단의 방북을 환영하고 단원들의 공연에 사의를 표하면서 그들과 대화도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
- 김 위원장은 이날 김기남 노동당 비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현철해·리명수 군 대장, 군 장병들. 군과 사회의 창작가·예술인들과 공연을 함께 관람했다고 통신은 언급
- 통신은 김 위원장의 공연 관람 날짜와 장소는 밝히지 않음.

나. 정치 관련

■ ‘핵 해빙’ 속 “우리식” 강조(6/27; 6/28,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냉각탑 폭파 당일인 27일 ‘우리 인민군대의 기질’이라는 글에서 “선군정치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해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쳐 나가는 정치방식”이라면서 “우리 인민군대는 집단주의 정신도 높고 조직성과 규율성, 단결력도 제일 강하다”고 주장
- 매체는 28일에도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외세의 그 어떤 간섭과 전횡도 짓부수고 우리 식대로 조국의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갈 수 있게 하는 자주적 정치”라면서 “남의 식대로 번영을 이룩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개방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 또 “제국주의 침략 세력이 자주화의 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억누르려고 온갖 군사적 침략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는 현실은 총대를 앞세우고 국방을 중시하는 선군정치를 실시하는 것을 절실한 과업으로 내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대외환경이 여전히 적대적이라고 주장

■ 北외무성대변인, 핵신고 관련 입장 보도(6/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7일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 폭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핵신고서가 “완전하고 정확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해제 등 조치를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9·19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보도

■ 北, 핵신고-테러지원국 해제 침묵(6/26, 연합)

- 북한의 관영매체들은 26일 오후 10시 현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핵신고와 미국 행정부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있음.

■ 北, 美 적대정책 안버리면 전쟁억제력 강화(6/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25전쟁 발발 58주년인 25일 6.25전쟁을 “미제가 도발한 침략전쟁”이라며 “미국이 대조선(대북) 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노동신문은 ‘내외전쟁세력의 도전을 짓부수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은 “대조선 침략정책을 버릴 대신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까지도 조선 정전협정을 난폭하게 짓밟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력증강과 합동군사연습 소동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고 언급하고 “미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버리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노력에 응해 나와야 한다”고 촉구

■ 대미 회담·지원에 환상 갖지 말라(6/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자력갱생은 우리의 생명이다’ 제목의 장문의 논설에서 미국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제국주의자들”, “외세” 등의 표현을 써가며 “우리가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외세에 의존해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은 강국 건설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이 결코 선의에 따른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
- 신문은 미국의 식량지원 등을 의식한 듯 “정치군사적으로 예측시키지 못한 나라들을 원조나 인도주의적 지원의 공간을 이용해 거머쥐려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라며 “제국주의자들이 세계 도처에서 내흔들고 있는 돈주머니는 인민들의 자력정신을 마비시키는 마약”이라고 비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표출

■ 향군 6.25만화 배포에 南정부 비난(6/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재향군인회의 '6.25전쟁 바로알리기' 만화가 각급 학교에 배포되고 있는 것은 남북대결을 고취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목인 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
- 신문은 '북남대결을 고취하는 유치한 망동' 제목의 논평에서 "극우보수단체인 재향군인회가 만들어 내들린 '6.25전쟁 바로알리기' 라는 만화책은 극히 반동적인 선전물"이라며 "더욱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은 6·15통일시대에 이룩된 북남협력사업이 '북의 체제유지'에 이용된다고 악의에 차서 중상하는 사실"이라고 언급

■ 北, 6.25전쟁은 美의 계획된 전쟁(6/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25전쟁 발발일을 하루 앞둔 24일, 전쟁이 미국에 의해 미리 계획됐던 전쟁이라고 재차 주장, '계획적으로 추진된 미제의 조선전쟁 준비책동' 제목의 논평에서 "미제는 조선전쟁(6.25) 도발을 위한 침략계획을 미리 은밀한 방법으로 작성·완성했다"며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1946년 전쟁광신자 맥아더를 미 극동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이전 미 태평양군 무력의 대부분으로 극동군을 편성한 후 조선전쟁을 포함한 극동침략계획을 완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

■ 北, 南군부대 '요덕스토리' 공연 맹비난(6/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8일 국방부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소재로 한 뮤지컬 '요덕스토리'의 순회 공연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공화국(북한) 인권소동이 계속된다면 자주권 수호의 제1선에 서있는 우리 혁명무장력은 무자비한 대응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 조선중앙통신은 '총대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남조선 괴뢰군부의 인권소동' 제목의 군사논평원 글에서 요덕스토리의 순회공연을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
- '논평원'은 국방부가 "우리의 인권문제를 날조한 여러가지 '음악극'을 만들어 순회공연하는 유치한 놀음"을 하고 있다며 이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부정하고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높은 체제를 헐뜯

어보려는 용납못할 반민족적, 반통일적 처사”라고 비난

다. 경제 관련

■ 감자·밀보리 수확 한창(6/28, 조선중앙방송)

- 북한 전역의 협동농장에서 앞그루로 심은 감자와 밀보리의 수확이 한창이라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황해북도의 사리원과 봉산군, 은파군 등 6개 시·군은 밀보리 수확을, 송림시 황주군, 연탄군 등 9개 시·군은 감자 수확을 끝냈으며 황해남도는 감자와 밀보리 수확을 90%가량, 평남 온천, 속천, 용강군내 협동농장들도 각각 50%, 80%, 90%가량 수확을 마무리

라. 사회·문화 관련

■ 전국 도(道)대항 체육대회 폐막(6/29, 조선중앙통신)

- 전국 도대항 종합체육경기대회가 28일 청진시에서 폐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지난 6월 9일 개막해 20일간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각 도에서 선발된 1천2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함경북도 선수단이 종합1위를 차지

■ 한약재 이용 항암제 개발(6/28, 통일신보; 6/29, 우리민족끼리)

- 조선동방측효성약물센터에서 최근 인삼과 오가피를 비롯한 한약재로 ‘동방항암소’라는 항암제를 개발했다고 통일신보가 보도, 동방항암소는 한창 진행 중인 중기암이나 말기암을 치료하고 재발과 전이를 막는 우수한 건강보조식품형 암치료라고 주장

■ 평양 성화봉송 기념우표 발행(6/28, 통일신보; 6/29, 우리민족끼리)

- 조선우표사가 지난 4월 28일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평양에서 진행된 베이징올림픽 성화봉송을 기념한 우표를 발행했다고 통일신보가 보도

■ 평양 유럽식 레스토랑 ‘다국어 서비스’ 실시(6/28, 조선신보)

- 평양의 이탈리아·스위스 요리 전문점인 ‘별무리’가 유창한 외국어 서비스

로 호평받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8일 소개, 제과점과 레스토랑을 겸한 유럽풍의 이 식당은 2005년 6월 스위스 유통업체와 단체의 지원을 받아 평양 고려호텔 인근 창광거리 련화동에서 오픈, 식당을 찾는 외국인 고객들의 모국어로 요리법과 기술을 친절하게 설명하여 외국인들을 감동케하는 서비스를 제공

■ 北, 장마 예·통보 체제 강화(6/27, 조선신보)

- 2007년 여름 최악의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이 장마철을 맞아 “경보(警報)위원회”를 조직하고 “예보통보 체제”를 확립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로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생활한복 치마 10cm 짧게 디자인(6/27, 조선신보)

- 경공업성 피복연구소에서 “현시대적 미감과 계절적 특성에 맞는” 각종 여성 한복 도안을 창작했으며, 생활한복의 치마 길이를 10cm 정도 짧게 디자인 한 것이 특징이라고 조선신보가 보도

■ 北유치원, 바둑 교육열(6/26, 조선신보)

- 북한 유치원에서 지능발달을 위한 바둑교육 열기, 조선신보는 26일 오는 8월 평양에서 ‘어린이 바둑경기 대회’가 열린다며 “조선(북한)의 유치원에는 체계적인 바둑교육을 실시하는 단위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

■ 제6차 국제과학기술도서전 폐막(6/25, 조선중앙통신)

- 제6차 평양 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가 25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폐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식량난 악화로 탈북시도 증가(6/25, 연합: 153호 오늘의 북한 소식)

-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해지면서 북송동포나 여성들의 탈북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25일 주장, 단체는 소식지 153호에서 “최근 들어 귀국자(북송교포) 가족들이 탈북을 시도하다가 붙잡히는 사례가 늘자 보위부는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귀국자들의 여행증을 취급할 때 보다 철저히 심사하며, 될 수 있으면 비준 증명서를 내주지 않는다”고 전언

■ 장마대비 수력발전시설 일제점검(6/25, 조선중앙방송)

- 전력공업성이 장마철에 대비해 북한 전역의 수력발전 시설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

■ 北에도 ‘웰빙 운동화’ 등장(6/2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5일 평양 류원신발공장에서 “중전보다 가벼운 새형(신모델)의 운동화”를 만들었다며 주 소비층으로 “노인들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도, 공장 측은 시제품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색깔과 형태를 최종 결정한 뒤 대량생산에 들어가 북한의 정권 창건 60돌(9.9)에 즈음해 새 운동화를 주민들에게 공급할 예정

■ 함북지역 수족구병으로 어린이 61명 사망(152호, 좋은벗들 소식지, 6/24 연합)

-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24일 북한의 함경북도 지역에 수족구병이 발병해 4월에서 6월까지 2~7세 어린이 61명이 숨졌다고 주장
- 소식지 152호에서 함경북도 내에 어린이 사망자가 제일 많은 지역은 김책시로 22명이 사망했으며, 여타 지역의 경우 사망자 수는 청진시 17명, 회령군 10명, 무산군 12명으로 집계됐다고 전언

■ 평양 전차궤도 중앙서 인도쪽으로 이전(6/24, 조선신보)

- 평양에서 도로 포장과 함께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궤도전차 개보수가 한창, 조선신보는 24일 “시민들의 편의 보장을 위해” 궤도전차 노반을 교체하고 노선 위치까지 변경하고 있다고 보도
- ※ 평양 궤도전차는 1989년 김정일 당시 노동당 비서의 지시에 따라 1990년 만경대 송산주차장에서 사동구역 송신주차장까지 20km에 이르는 제1노선을 건설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 4개 노선이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평양서 국제과학기술도서전 개막(6/23, 조선중앙통신)

- 제6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가 23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전람회 조직위원장인 북한의 문재철 대외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 대리는 개막연설에서 “이번 전람회가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이해와 신뢰, 친선과 협조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개막식에는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 비서와 북한의 교육·출판분야 종사자, 과학자, 북한 주재 국제기구 및 각국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

- 6월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람회에는 10여 개국과 국제기구 등에서 30여 개 단체가 참가하며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전자공학, 유전자공학, 환경학, 기초과학, 의학 등 분야의 최신 과학기술도서들이 전시

※ 북한은 2001년 10월 평양에서 각국의 선진 과학기술을 소개한 도서전 람회를 처음 개최한 이후 매년 국제도서전을 개최

■ 평양 제외 시외전화 금지(151호, 좋은벗들 소식지; 6/23, 연합)

- 북한은 6월 15일부터 평양시를 제외한 전국 각지의 가정에서 시외전화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고 '오늘의 북한소식' 제151호에서 언급, 이 단체는 "오직 체신소를 통해서만 시외전화가 가능한데 체신소에서 전화를 하면 통화 지역, 횟수, 시간 등이 기록되고 도청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언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北,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6/27, 연합)

- 북한이 27일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이벤트를 실시, 폭파 장면은 CNN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

■ 北, 핵신고서 중국에 제출(6/26, 연합)

- 북한이 26일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5시(이하 현지시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 북한 관리는 이날 오후 2시30분(현지시간) 중국 외교부에 도착해 관련서류를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에게 핵신고서를 제출

나. 북·미 관계

■ 美, 北 지정후 20년만에 테러지원국 해제 착수(6/26일, 연합)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핵신고 약속을 뒤늦게나마 이행하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을 앞으로 45일 이내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고 언급, 이에 따라 북한은 핵신고에 따른 검증 과정에서 충실하게 협력을 하면 오는 8월1 1일 테러지원국 명단의 굴레에서 (1988년 1월) 지정된 이후 20년 7개월여 만에 벗어날 수 있게 됨.

■ 北, 교향악단 英보다 美공연에 더 관심(6/2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당국은 애초 9월말로 예정된 국립교향악단의 영국 공연 보다는 10월 초 추진설이 나오고 있는 미국 공연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6일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이 "(국립교향악단의) 당초 9월 영국공연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본국(북한 정부)에서는 미국 공연에 더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영국 의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

다. 북·중 관계

■ 北·중국과 전 분야에서 협력 강화 다짐(6/26, 연합)

- 북한은 25일 중국과 모든 분야에서 우호와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다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 김영일 외무성 부상은 이날 평양주재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리셉션에서 북·중 우호와 협력은 이 복잡한 세계에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언

라. 북·일 관계

■ 일본 후쿠오카현 일·조우호협회 대표단(6/27, 조선중앙TV)

- 기타하라 마모루 대표를 단장으로 한 일본 후쿠오카현 일·조우호협회 대표단이 26일 평양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

■ 北, 북일관계 정상화 양국 이익에 부합(6/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조(북)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두 나라 사이 선린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 인민의 염원과 이익에 맞는다”며 북·일 관계정상화의 당위성을 부각
- 통신은 또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담에서 일련의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국제사회는 조일관계를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이익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전망이 열린 것으로, 관계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된 것으로 평하고 있다”면서 “조일관계 개선은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며 일본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
- 통신은 “특히 두 나라 관계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은 6자회담 공동문건이 규정한 내용”이라며 “조선반도 비핵화 과정이 일정한 전진을 가져오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우익세력의 주장대로 우리와 대결을 계속 고집한다면 6자회담에서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몰리던 신세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주장

마. 기타 외교 관계

■ 최태복 의장, 베트남대표단 면담(6/27, 조선중앙통신)

-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크쏘르 프억 베트남 인민회의 민족이사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베트남·조선(북) 친선의원단 대표단을 면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북한주재 인도대사와 대사관 직원들 친선노동(6/27, 조선중앙통신)

- 질레 싱 인도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이 27일 평안남도 남포시 소재 조선·인도친선 갈천협동농장에서 친선노동을 하고 지원물자를 제공

■ 北·캐나다와 영어교육 협력 강화(6/2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서 영어 교육이 강조되면서 캐나다에 유학하는 학생과 연수를 받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토론토에 북한 영어교원(교사)들을 위한 영어강습소 설립을 제안하는 등 캐나다와 영어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

- 캐나다 내 북한 유학생은 2003년 이전에 5명 미만이던 것이 2004년 10명, 2005년 5명, 2006년 14명 등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 이민국의 노리스 공보관은 “통계에 파악된 북한 유학생들은 중국 내 캐나다 영사관을 통해 학생비자를 발급받았거나 중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은 후 캐나다에서 비자 기한을 연장한 경우만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들은 조총련 계열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북한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언급
- RFA는 또 최근 북한의 학자나 전문가들이 비영리 영어교육기관인 캐나다 영어연구학회(ELIC)의 초청으로 캐나다 밴쿠버 인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고 보도

■ 유럽연합(EU)의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담당 분과대표단 평양 출발(6/24, 조선중앙통신)

- 후버트 피르커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럽연합(EU)의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담당 분과대표단이 방북일정을 모두 마치고 24일 평양을 떠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인민보안상, 베트남·라오스 방문(6/24, 조선중앙통신)

- 주상성 인민보안상을 단장으로 하는 인민보안성 대표단이 베트남과 라오스를 방문하기 위해 24일 평양을 출발

■ 北외무상, 比여객선 사고에 위로전문(6/24, 연합)

- 박의춘 외무상은 24일 여객선 ‘프린세스 오브 더 스타’ 호가 태풍으로 침몰한 사고와 관련해 알베르토 로물로 필리핀 외교장관에게 전문을 보내 위로

3 대남정세

■ 남북 언론단체 이메일로 첫 기사교류(6/27, 연합)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는 정부 수립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언론단체 사이에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한 기사교류가 성사됐다고 27일 발표, 남측 언론본부는 지난 20, 21일 두 차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로부터 논평 형식의 기사를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설명

- 앞서 남측 언론본부는 5월 초 북측 언론분과와 함께 금강산에서 제3회 남북언론인대표자회의를 열어 전자우편 기사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기사교류에 합의했었음.
- 북측이 보낸 기사는 남북관계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한 남측 언론보도에 대한 반론 성격의 논평 등 2건으로 북측이 보낸 기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호를 해야 하고 남북 교류사업 승인 등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당장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언급
- 남측 언론본부는 기사교류 사실을 24일 통일부에 신고

■ 北, 개성공단 통행시간 축소(6/27, 통일부)

- 북한이 6월 24일부터 오전시간대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복귀하는 인력과 물자의 통행을 허용치 않고 있다고 통일부가 27일 발표
-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은 21일 서해지구 군사실무 책임자 명의로 ‘통관·통행 검사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24일부터 서해지구에서의 모든 인원과 차량들의 복귀를 오후 시간(14시부터)에만 진행되도록 계획해야 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발표
- 이에 따라 오전 중 생산품 운반 등을 위해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돌아오는 공단 관계자들(하루 평균 70~80명)이 복귀를 오후로 미뤄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와 함께 남북간 통신선 이상으로 인해 개성공단 사업자들과 개성·금강산 관광객 등의 오전 방북도 10여일째 예정보다 최장 1시간씩 지연되고 있음. 이로 인해 매일 아침 수백명에 달하는 방북 인사들이 방북에 앞서 남측 출입사무소에서 40분~1시간 가량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관광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정부 관계자는 “통신장애가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이미 북한에 팩스 등 일부 장비를 제공했으며 7월 중순까지는 북측에 광케이블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

■ 정부, 北선원 1명 북측에 인계(6/26, 통일부)

- 정부는 강원도 근해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 6월 24일 우리 측에 구조된 북한 선박(1.5t 목선)의 선원 한 명을 26일 오후 북에 인계했다고 발표

■ 北에 12억 상당 말라리아 방역물품 지원(6/26, 연합)

-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는 26일 북한에 122만달러(12억6천여만원) 상당의 말라리아 방역 물품을 지원한다고 발표, 지원 목록에는 말라리아 치료약품 5만명분, 모기장 10만장, 살충제, 감염 검사시약, 교육훈련비 등이 포함
- ※ 복지부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북한의 말라리아 예방·퇴치 사업을 지원해왔음.
- ※ 지원액은 2001년 53만달러에서 2002년 62만달러, 2003년 70만달러, 2004년 70만달러, 2005년 88만달러, 2006년 114만달러, 2007년 141만달러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수도 2000년 20여만명에서 2003년 6만여명, 2005년 1만여명, 지난해 7천400여명 등으로 계속 감소추세

■ 北냉각탑 폭파 취재 MBC 취재진 방북(6/26, 연합)

- 북한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행사를 취재할 MBC 취재진 3명이 26일 오후 베이징을 경유하여 북한에 도착

■ 北주민 여섯차례 배타고 월남(6/26, 연합)

- 북한 주민들이 6월에만 여섯 차례에 걸쳐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옴. “특히 동력선을 훔쳐 타고 내려온 사례도 4차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에 따라 북측은 동·서해안 접경지역의 경계경비 태세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포스코, 北 철광석 수입 타진(6/25, 연합)

- 포스코가 북한으로부터 철광석의 수입을 타진, 포스코차이나는 25일 김동진 사장이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의 초청으로 24일 방북, 북한의 철광석을 시험 구매하는 것과 기존의 석탄 수입량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협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

- 2~3년 전부터 연간 수십t의 석탄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해 오고 있는 포스코차이나는 이번 방북에서 철광석의 시험 구매 가능성을 타진하고 석탄 구매량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 예정

■ 北유도대표단, 남측 숙식비지원 거부(6/25, 연합)

- 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4월 26~27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유도 선수권대회에 참가차 방한했던 북한 선수단 17명(임원 10명, 선수 7명)의 숙식비를 남측에서 지원하려 했으나 북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짐. 이 때문에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원을 지원키로 의결까지 했으나 결국 집행을 못했음. 북측은 지원 거부 이유로 지난 3월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제주) 때 남북협력기금 1천200만원을 지원받은 데 대해 국내 한 언론이 '공짜 방한' 취지로 보도한 일을 거론했던 것으로 전해짐.
-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간 월드컵축구 예선전에서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라 북한 대표단이 숙식비를 자체 부담했으며 대한축구협회는 연습시설과 차량만 제공했음.

■ 김제, 유기질비료 40t 북한에 전달(6/24, 연합)

- 전북 김제에서 사육되는 돼지 축분 등을 이용해 만든 유기질비료가 북한 땅에 뿌려질 예정, 유기질비료는 26일 북한 땅으로 넘어가 남북공동 영농사업단인 (사)통일농수산사업단이 북한 개성에 운영하는 한 협동농장 내 유리 온실에서 재배되는 야채와 과일 밭에 뿌려지는 것으로 알려짐.

■ 정부, 남북기금에 北비핵화계정 신설(6/24, 통일부)

-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비핵화 계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 통일부는 “북핵문제 해결 등 대북정책 목표와 남북협력기금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 비핵화 계정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추후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면 소요 자원 및 별도의 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계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자의적인 기금지원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남북협력기

금법 상의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사업’ 규정을 ‘이산가족 교류지원’, ‘인도적 지원’, ‘북한 비핵화 지원 및 기타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등으로 세분화

■ 北, 통일교에 류경호텔 공사 투자 요청(6/2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은 1992년 공사가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된 것으로 알려진 평양 류경호텔의 추가 공사를 위해 통일교에 3억 달러 투자를 요청하고 협의를 갖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3일 보도

※ 평양 보통강구역에 자리잡고 있는 105층의 류경호텔은 1987년 프랑스의 기술과 자본을 들여와 공사가 시작됐다가 경제난에 따른 자원 조달 등의 문제로 중단됐으며, 지난 4월 이집트의 오라스콤사가 1억 달러를 투자해 16년 만에 공사가 재개

북한 5·6월 동향 일지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5월 01일		
05월 02일	제23차 중앙과학기술축전 폐막(4/28-5/2)	○중방(5/3)
05월 0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제720군부대 직속중대 및 제409군부대 관하중대 현지지도	○중통(5/3)
05월 0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강원도 고산과수농장 현지지도 중, 호금도 총서기, 김정일의 중국 열차사고 관련 위문전문(4.29)에 대한 답전(5.4) 발송	○중통(5/4) ○중방(5/7)
05월 05일		
05월 06일	제1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도론회 개최(인민문화궁전, 5/5-6) 최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다매체문학전자서고' "미래2호" 완성, CD와 홈페이지 통해 보급 노동신문 대표단 중국 항발	○중통(5/6) ○중통(5/6) ○중통(5/6)
05월 0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을 통해 '설비관리법' 발표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 '생명에 활력을 주는 여과 자화수' 등 과학영화 발표 베트남 외무성 대표단(단장: 부중 부상), 평양도착 제3차 건축미학도론회 개최(평양) 미Time,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을 아시아지역 최고 작품으로 선정	○중통(5/7) ○중통(5/7) ○평방(5/7) ○중방(5/8) ○중방(5/7)
05월 0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선인민군 제351군부대 지휘부대 현지지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선인민군 제927군부대 지휘부대 현지지도 북·베트남 외무성 사이의 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평양) 세계적십자 및 적반월의 날(5/8) 즈음 전국 각지에서 행사 스위스 전국여성이사회 대표단과의 친선모임 백두산천지에서 락원 온천 발견	○중통(5/8) ○중통(5/8) ○중통(5/8) ○중통(5/8) ○중방(5/8) ○중통(5/8)
05월 09일	조선노동당출판사, 회상실기집 '인민들속에서' 71-73권 출판 양형섭 부위원장·박이춘 외무상, 베트남 외무성 대표단과 담화 '북남언론인대표자회의' 개최(금강산)	○중방(5/9) ○중통(5/9) ○중통(5/9)
05월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선인민군 제745군부대 지휘부대 현지지도	○중통(5/10)
05월 11일	'남북농민단체대표자회의' 개최(평양)	○조선신보(5/21)
05월 12일	제11차 평양 봄철국제상품전람회 개최(5/12-15) 김정일 국방위원장, 청진염소목장과 청진수지관공장 현지지도	○중방(5/4) ○중방(5/12)
05월 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경성도자기공장과 온포휴양소 현지지도 경기도 대표단(단장: 김문수 지사), 개풍양묘장 준공식 참가(개성)	○중방(5/13) ○조선신보(5/21)
05월 14일		
05월 15일		
05월 16일	북·에티오피아, 2008-2010년 문화교류계획서 조인	○중방(5/22)
05월 17일		
05월 18일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5월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제963, 966, 233군부대 군인가족 예술 소조원들의 공연 관람	○중통(5/19)
	민주공고주재 특명전권대사에 조만석 임명	○중방, 중통(5/19)
	박의춘 외무상, 이란과 몽골 신임특명전권대사 면담	○중통(5/19)
	문화보존지도국, 역사유적 주변시설 대대적 보수	○평방(5/19)
05월 20일		
05월 21일		
05월 22일	정권창권 60돌기념 '집단체조(변영하라 조국이여)창작, 2008년도판 '아리랑' 새로 형상	○조선신보(5/22)
	주체사상 국제연구소 이사장 비슈와나스, 평양 도착	○평방(5/22)
	주북 영국 특명전권대사(존 에버라드)와 직원들 친선노동	○중앙TV(5/22)
05월 23일	6·15공동선언 실천남·북·해외측위 대표들 접촉(개성)	○중방, 평방(5/23)
	당·정·군 간부들, 인민군 제2기 제1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 관람	○중방(5/24)
05월 24일		
05월 2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선인민군 제324군부대 직속구분대 현지지도	○중통(5/25)
05월 2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선인민군 제1727사관양성군부대 및 제836군부대 관하 구분대 현지지도	○중통(5/26)
	집단체조와 아리랑, 8월-9월말까지 상연 예고	○조선신보(5/26)
	인도 외무성 대표단(단장: 엔 라비 비서), 방북	○평방(5/26)
05월 27일	조선노동당 대표단(단장: 김태중 당부부장), 유럽국가 방문차 평양 출발	○평방(5/27)
	평남 청남구, 탄부들 위한 전자도서관 건설	○평방(5/27)
	온포 휴양소 등 근로자들을 위한 여름철 휴양 시작	○평방(5/27)
	북미 양자회담(5/27-28, 베이징)	○조선신보(5/30)
05월 2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선인민군 제324, 604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중통(5/28)
	김격식 군참모장, 방북 부룬디 군사대표단 면담	○평방(5/28)
	양형섭 부위원장·박의춘 외무상, 인도 외무성 대표단과 담화	○중통(5/28)
	미 국회 하원 외교위원장, 보좌관 방북일행 통해 김정일에 선물 전달	○중방(5/28)
	인민무력부, 부룬디공화국 군사대표단 위한 연회 개최	○중통(5/29)
05월 2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2.8비날론연합기업소 현지지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함흥의학과대학 현지지도	○중통(5/29)
	세계금연의날 행사 개최(인민문화궁전)	○중방(5/29)
	나이지리아 신임 특명전권대사, 김영남에게 신임장 제출	○중방(5/29)
	주북중국대사관 직원들 평양 조종친선 택암농장에서 친선노동 및 지원물자전달	○중방(5/29)
	북남교육자대표자회의 개최(금강산, 5/29-30)	○중방(5/29)
05월 3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백운산 유원지', '흥남제련소' 현지지도	○중통(5/30)
	'학생소년들의 축복의 노래무대' 개최(청년공원야외극장)	○중방(5/30)
	북 군사실무회담 단장, 남에 빠라 살포 중단 요구 통지	○중통(5/30)

북한 5·6월 동향 일지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6월 01일	조국통일연구원, '이명박정권 비난 백서 발표'	○중통(6/1)
	6·1국제아동절 58돌 즈음, 평양시와 외국어린이들 사이의 친선연환모임, 만경대유회장에서 진행	○중통(6/1)
06월 02일		
06월 03일	피바다 가극단, 열차편으로 평양 귀환	○중방(6/3)
	러시아철도주식회사대표단(단장:아나톨리 월로진), 열차편으로 라선 도착	○평방(6/3)
06월 04일	북·중, 세관분야 협조협정 조인(베이징)	○중방(6/4)
	박의춘 외무상, 주북 오만추장국 신임특명전권대사와 면담	○중통(6/4)
	보천보햇불상 체육경기대회 개막(양강도 해산경기장)	○중통(6/4)
	주북 쿠바대사관 직원들, 용성구역 조선·쿠바친선 화성협동농장 친선노동	○중방(6/4)
06월 05일	세계환경의 날, 민족토론회 개최(인민문화궁전)	○중방(6/5)
	김용삼 철도상, 철도협조기구 제36차 상회의 참가차 우크라이나 항발	○평방(6/5)
	김영남 상임위원장, 주북과테말라 특명전권대사 라파엘 안포니오 쉐라싸스 갈베스 신임장 접수	○평방(6/5)
06월 0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평양시 개건된 문화 및 급양봉사기지 '대동문영화관, 옥류관, 청류관' 현지도	○중방(6/6)
06월 07일	북·러, 라진항 합영기업 창설 합의	○중방(6/7)
	방중 지역식 세관총국장 귀국	○중통(6/7)
06월 08일		
06월 09일	전국 도대항 종합 체육경기대회 개막(청진경기장)	○중방(6/9)
	박의춘 외무상, 주북 나이지리아 대사 유수프 아무다 아부바카르 면담	○중통(6/9)
	공보위원회 대표단(단장: 강능수 문화상), 라오스, 인도네시아 및 스리랑카(제4차 쿠바와의 연대성 아태지역회의 참가) 방문차 출발	○중방(6/9)
	여자축구 대표팀, 2008년아시아여자축구선수권대회 우승	○중방(6/9)
06월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선인민군 제176군부대 관하 구분대 현지도	○중방(6/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선인민군 제958군부대 및 군부대 관하 중대 현지도	○중통(6/10)
	김태중 당부부장,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지 방문 후 귀국	○중방(6/10)
	북외무성, 6·10성명 발표 "유엔성원국으로서 반테러를 위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할것"	○중통(6/10) ○중방, 평방, 중통, 조선중앙TV(6/10)
06월 11일	북·일, 실무회담(6/11-12) 개최 합의	○조선신보(6/7)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선인민군 제756군부대 관하 구분대 현지도	○중통(6/11)
	관현악과 합창 '눈이내린다' 감상회, 당, 국가간부들, 당중앙위, 내각, 중앙기관 일꾼 등 참석(동평양대극장)	○평방(6/11)
	곽동의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6·15민족통일대회 참석차 평양도착	○중방(6/11)
	북·일 실무회담쌍방 관심사항 집중논의(6/11-12)	○조선신보(6/11)
06월 12일	북외무성 대변인 조미전문가협상에 호평	○중통(6/12)
	김정일 국방위원장, 제534군부대 산하 식료공장 현지도	○중통(6/12)
	대동문영화관 개관 기념 영화감상회(당, 정간부들 관람)	○중방, 평방(6/12)
	파키스탄과 문화협정체결 35돌 기념 관련 대사관 직원들과의 친선모임	○중방(6/11)
	러시아 파트니초키 국립아카데미 민속합창단, 평양도착	○중방(6/12)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6월 13일		
06월 1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평북 '대계도간석지 건설장, 룡천군 신임협동농장' 현지지도	○중통(6/14)
	중국 국가품질감독사검역총국 대표단(단장: 지수평 총부국장), 평양도착	○중통(6/14)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 평양도착	○평방(6/14)
06월 15일	6·15민족통일대회 개최(금강산)	○조선신보(5/28)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중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	○중통(6/15)
06월 16일	중, 교통운수부(단장: 풍정림 부부장), 민항대표단(단장: 이가상 국장) 평양도착	○중방(6/16)
	노동계급 및 직맹원, 김정일 당사업 시작 44돌 경축모임 진행	○평방(6/17)
06월 17일	중 부주석, 습근평 공식 방북	○중통(6/17)
	노두철 내각부총리, 중 민항대표단(단장: 리가상 민용항공국장)면담	○중통(6/17)
	2008년 국제정보통신박람회(싱가포르, 6/17-20)참관단 파견	○조선신보(6/17)
	주북 러시아 대사 수히닌, 직원들 조러친선교차협동농장 친선노동	○중통(6/17)
06월 1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당사업개시 44돌 중앙보고대회 개최(4.25문화회관)	○중방, 평방, 중통, 중앙TV(6/18)
	김정일 국방위원장, 습근평 중국 국가 부주석 일행 접견 및 담화	○중방, 평방, 중통, 중앙TV(6/18)
	중, 습근평 부주석, 국제친선전람관 참관	○중방(6/18)
06월 19일	중, 습근평 부주석, 평양출발	○중통(6/19)
	최태복 최고인민회 의장, 주북 영국대사(존 에버라드) 담화	○중통(6/19)
	김형준 외무성 부상, 제7차 불룩불기꿈나라 공보상회의 참가차 베네수엘라 항발	○평방(6/19)
	북, AP통신의 시발생보도는 "허위 날조극"	○중통(6/19)
06월 20일	보천보햇볕상 체육경기대회(6/4-20) 폐막식(양강도 해산경기장)	○중통(6/20)
	국립교향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음악회 진행(동평양대극장)	○중통(6/20)
06월 21일	직총대표단(단장: 김성철부위원장), 중국항발	○평방(6/21)
	유럽의회 조선반도관계담당 분과대표단(단장: 후버트 피르커 위원장) 평양도착	○중방(6/21)
06월 22일		
06월 23일	제6차 평양국제과학기술 도서 전람회, 3대혁명전시관 개최(6/23-25)	○중방(6/14), 중방(6/23)
	북 유럽동맹 친선의원단 대표단(단장: 이종혁 위원장), 유럽의회 조선반도관계담당 분과대표단(단장: 후버트 피르커 위원장) 면담	○평방(6/23)
	박의춘 외무상, 퇴임 주북 영국대사(존 에버라드)와 면담	○중통(6/23)
	'계급교양주제 미술전시회' 개막(평양국제문화회관)	○중통(6/24)
06월 24일	북·베트남 조선친선의원대표단,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	○중통(6/24)
	제11차 정일봉상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	○중방(6/24)
	주상성 인민보안상, 베트남 및 라오스 방문차 평양 출발	○중방(6/24)
06월 2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러시아 국립아카데미 민속합창단 공연 관람	○중방(6/25)
	'6.25미제 반대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 진행(평양체육관)	○중앙TV(6/25)
06월 26일	김영남, 퇴임 주북 벨기에 대사와 면담	○중방(6/26)
06월 27일	북 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환영 중통 기자회견	○중통, 중방, 중앙TV(6/27)
06월 29일	북 공보위원회 대표단(단장: 강능수 문화상), 라오스 및 인도네시아 방문 후 귀국	○중방(6/29)
	전국 도 대항 종합체육경기대회 폐막식(청진, 6/9-28)	○중방(6/29)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